

문화 | 2030 지표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

환경과 회복력

- 1 유산에 대한 지출
- 2 지속가능한 유산 관리
- 3 기후 적응과 회복력
- 4 문화시설
- 5 열린 문화공간

- 2.4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농업
- 6.6 물 관련 생태계
- 9.1 양질의 인프라
- 11.4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 11.7 포용적인 공공 공간
- 12.b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
- 13.1 기후 및 재해 회복력
- 14.5 해양지역 보전
- 15.1 지속가능한 육상 생태계
- 16.4 불법취득자산의 환수

변명과 생활

- 6 GDP 내 문화 비중
- 7 문화 고용
- 8 문화 사업체
- 9 가계 지출
- 10 문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 11 문화를 위한 공공 재정
- 12 문화 거버넌스

- 8.3 일자리, 기업가정신 및 혁신
- 8.9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
- 8.a 무역을 위한 원조 증대
- 10.a 무역에 대한 우대 조치
- 11.4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지식과 기술

- 13 지속가능발전교육
- 14 문화 지식
- 15 다중언어 교육
- 16 문화예술교육
- 17 문화 훈련

- 4.4 취업을 위한 기술
- 4.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술
- 8.3 일자리, 기업가정신 및 혁신

- 9.c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
- 12.a 지속가능한 소비
- 13.3 기후 적응에 관한 교육

포용과 참여

- 18 사회적 응집력을 위한 문화
- 19 예술적 자유
- 20 문화에 대한 접근성
- 21 문화 참여
- 22 참여적 과정

- 9.1 양질의 인프라/공평한 접근
- 9.c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
- 10.2 사회적 포용
- 11.7 포용적인 공공 공간
- 16.7 참여적 의사결정
- 16.10 기본적 자유
- 16.a 폭력 예방
- 16.b 비차별적 정책

문화|2030 지표는 다음 세부목표에도 횡단적으로(‘분야 간 경계를 뛰어넘어’) 기여한다

- 5.5 여성 참여와 리더십
- 5.c 성평등 정책
- 17.9 역량 구축
- 17.16 글로벌 파트너십
- 17.17 공공, 민간, 시민사회 파트너십
- 17.19 지속가능성 평가

문화 | 2030 지표

2019년 유네스코 발간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 유네스코 2019

ISBN 978-92-3-100355-4

이 출판물은 오픈 액세스 정책에 따라 Attribution-ShareAlike 3.0 IGO(CC-BY-SA 3.0 IGO)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igo/>)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출판물의 내용을 활용할 경우, 이용자는 유네스코 오픈 액세스 저장소(UNESCO Open Access Repository)의 이용약관(www.unesco.org/open-access/terms-use-ccbysa-en)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책에 표현된 필자의 생각이나 의견은 유네스코의 공식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유네스코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출판물은 2030 의제 이행의 시범 단계를 위해 배포용으로 제작된 초판입니다. 이 시범 단계가 종료된 후 후속 개정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문화|2030 지표' 웹사이트(<https://whc.unesco.org/en/culture2030indicators>)를 방문하시거나 Culture2030Indicators@unesco.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책임자 및 편집자: 조티 오사그라하(Jyoti Hosagrahar)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부소장

수석 전문가: 시몬 엘리스(Simon Ellis), 나이마 보거트(Naima Bourgaut)

유네스코 프로젝트팀: 에마누엘 로버트(Emmanuelle Robert), 라테파 알와잔(Lateefah Alwazzan), 에이미 바라(Aimie Bara), 조지 요셉(George Joseph)

유네스코 통계국: 실비아 몬토야(Silvia Montoya), 로베르토 지 피뉴(Roberto De Pinho), 호세 페소아(Jose Pessoa), 리디아 들루모(Lydia Deloumeaux)

표지 및 레이아웃 디자인: 안나 모트룩스(Anna Mortreux)

그림 및 도판: 렉토 베르소(Recto Verso) / 그레이스 앤드라오스 오데르(Grace Andraos Hodeir)

표지 사진: © 게티이미지(Getty Images) / 올본 알리자(Orbon Alija)*

별표(*)로 표시된 이미지는 'CC-BY-SA 라이선스'에 해당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출판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용신화윤(Yong Xin Hua Yun) 회사 및 난징시의 아낌없는 후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인쇄: 유네스코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

목 차

감사의 말
발간사
한글판 발간사
약어
그림 및 표

- 문화|2030 지표 개요 _ 10
 - 서론 _ 10
- 2030 의제에서의 문화 _ 12
 - 문화와 지속가능발전: 주요 개념 및 접근방식 _ 12
 -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유네스코 문화 협약 및 프로그램 _ 13
- 목적과 원칙 _ 16
 - 종합적인 목적 _ 16
 - 이행 원칙 _ 16
- 방법론적 접근방식 _ 20
 - 기존 프레임워크, 방법론 및 경험의 재검토 _ 20
 - 문화|2030 지표 개발 과정 및 진행 상황 _ 23
 - 유네스코 회원국과의 협의 개요 _ 24
- 4가지 주제별 차원 _ 26
 - 4가지 차원 _ 26
 - 데이터 유형 및 출처 _ 28
 - 파트너십과 젠더에 대한 횡단적 접근 _ 28
 - 지표 프레임워크 _ 30
- 지표 설명 _ 33
 - 환경과 회복력 _ 35
 - 번영과 생활 _ 51
 - 지식과 기술 _ 69
 - 포용과 참여 _ 79

결론 및 권고사항 _ 94
참고문헌 _ 99
용어집 _ 100
주(註) _ 108

감사의 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여 동안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해 노력한 결과,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Thematic Indicators for Culture in the 2030 Agenda)에 대한 '지표 프레임워크' 초안 및 관련 기술 문서의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 워크숍의 조직 및 연구방법의 개발에 대한 도움을 비롯해, 이 프로젝트의 첫 단계에 아낌없는 재정 지원을 해주신 난징시와 용신 화운 회사(Yong Xin Hua Yun Company, 중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작업은 에르네스토 오토네(Ernesto Ottone R.) 유네스코 문화부문 사무차장보의 총괄 아래, 조티 오사그라하(Jyoti Hosagrahar)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부소장이 프로젝트 팀을 이끌고 주도했습니다. 해당 팀에는 에마누엘 로버트(Emmanuelle Robert), 라테파 알 와잔(Lateefah Alwazzan), 에이미 바라(Aimie Bara), 크리스틴 델솔(Christine Delsol), 조지 요셉(George Joseph)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또한 이 작업은 유네스코 통계국(UIS) 및 여러 문화협약 사무국을 담당하는 문화부문의 메틸드 뢰슬러(Mechtild Rosler), 라자르 엘룬두 아소무(Lazare Eloundou-Assomo), 팀 커티스(Tim Curtis), 다니엘 클리셰(Danielle Cliche) 등 여러 직원들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연구방법의 개발과 개선에 참여해주신 모든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 시간과 전문지식을 아낌없이 바친 전문가 로버트 은두과(Robert Ndugwa, 유엔 해비타트)와 마르타 벡 돔잘스카(Marta Beck-Domzalska, 유럽연합 통계국), 그리고 주요 과학 자문관인 시몬 엘리스(Simon Ellis)와 나이마 보거트(Naima Bourgauf)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의 여러 전문가 및 기관도 두 차례의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하고 온라인 자문을 해주는 등, 이 프로젝트에 귀중한 의견과 조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José Manuel Argilés Marín(스페인 국제개발협력기구), Romina Boarini(경제협력개발기구), Alfonso Castellanos, Yvonne Donders, Ahmed AR Eiweida(세계은행), Antony Firth, Sharon Gil(유엔환경계획), Xavier Greffe, Christer Gustafsson(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Alison Heritage(국제문화재보존복원센터), Desmond Hui, Omar Lopez Olarte, Valentina Montalto(유럽연합 집행위원회), Pablo Montes, Alma Mrgan-Slipicevic, Désiré Ouedraogo, Alejandro Hector Palma Cerna(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Jordi Pascual(세계지방정부연합), Giovanna Segre, Cecilie Smith-Christensen(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Mario Suárez Mendoza(보고타 시, 콜롬비아), David Throsby, Namaro Yago(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 Marta Zimolag(유럽연합 통계국) 등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유네스코 통계국(UIS)은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부터 지표 프레임워크와 기술 문서의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자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UIS는 그 권위에 걸맞게, 글로벌 수준의 통계 지표 개발 및 관련 데이터 수집 과정을 조직화하고, 이 프로젝트의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지표와 체크리스트에 대한 과학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실비아 몬토야(Sylvia Montoya), 로베르토 지 피뉴(Roberto De Pinho), 호세 페소아(José Pessoa), 리디아 들루모(Lydia Deloumeaux)에게 감사드립니다. 유네스코 지역사무소(Field Offices)의 많은 직원들도 문화 관련 데이터 및 통계 분야에 대한 특별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지표 개발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의견을 전해 주었습니다. 특히 귀오마르 알론소 카노(Guioamar Alonso Cano), 시니샤 세숨(Sinisa Sesum), 다미르 디야코비치(Damir Djakovic), 한 두옹 비치(Hanh Duong Bich)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분들의 폭넓은 경험 덕분에 이 지표 사업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무소의 이러한 지원은 2030 의제의 국가 이행 체계에서 회원국들이 요구한 사항과 연구방법을 일치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개발은 처음부터 유네스코 문화부문(Culture Sector)의 수많은 직원들의 지속적인 지원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각 문화 협약의 개념과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이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 지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협의 과정과 전문가 회의에 참여해 전문적인 의견과 광범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시간과 전문지식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협력은 현재의 방법론과 여러 협약 내 기존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모로 애써 주신 다음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Nada Al Hassan, Francesco Bandarin, Denise Bax, Giovanni Boccardi, Guy Debonnet, Peter Debrine, Fanny Douvere, Dorine Dubois, Othilie Du Souich, Yonca Erkan, Andriana Gilroy, Maria Gropa, Florisse Hendschel, Jan Hladik, Suzanna Kari, Sara García de Ugarte, Olivia Burns, Paola Leoncini Bartoli, François Langlois, Melika Medici Caucino, Lynne Patchett, Marissa Potasiak, Giovanni Scepi, Leng Srong, Petya Totcharova, Richard Veillon, Tharmila Vigneswaranathan and Alicia Zarb 등등.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편집과 '지표 프레임워크'의 디자인에 도움을 준 에밀리 해밀턴(Emily Hamilton), 그레이스 오데르(Grace Hodeir), 일리네 자오(Yiline Zhao)에게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 지표 사업에는 특히 유네스코 통계국의 '문화통계체계'(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및 '유네스코 문화발전지표'(UNESCO Culture for Development Indicators Suite)의 개발 과정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개념적이고 분석적인 작업이 폭넓게 활용됨을 밝힙니다.

발간사

지난 10년 동안 유네스코가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에 접근하는 방식을 옹호한 결과, 지속가능발전의 동인이자 조력자로서 문화의 역할을 인정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이 몇 차례 채택됐습니다. 이 과정은 2015년 유엔 총회에서 193개국이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문화를 포함시킴으로써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의 변혁적인 힘을 보장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헌신은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문화2030 지표)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에 대한 문화의 역할과 기여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론을 수립하고자 이 사업에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와 발전에 대한 일관성 있고 강력한 내러티브(narrative)를 증거에 기반해 구축함으로써 의사결정자를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입니다.

문화에 대한 데이터의 측정 및 수집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개발은 SDGs 내에서 문화의 역할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국가와 도시 수준의 개발 계획과 정책, 그리고 '유엔 개발원조 프레임워크'(UN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s, UNDAF)에 문화를 포함시키는 데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2030 지표'는 유네스코 통계국의 '문화 통계체계'(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FCS), '문화발전지표'(Culture for Development Indicators Suite, CDIS), 문화 협약의 정기 보고 메커니즘을 비롯해, 2030 의제의 특정 맥락에서 구축된 기타 모니터링 메커니즘과 연구 방법론 등 기존의 도구와 자료를 바탕으로 삼아, 지표 체계를 더욱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2030 지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2030 의제에 대한 문화의 기여 상황을 글로벌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2030 의제와 관련된 유엔 전체의 보고 체계에 유네스코가 참여해, 증거 기반의 분석 자료를 국가와 도시에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2030 지표의 목적은 문화 분야의 양적·질적 데이터를 모니터링, 수집, 분석하는 유네스코 고유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2030 의제의 이행을 위한 '문화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방법론은 데이터 수집 및 문화 통계에 대한 역량이 서로 크게 차이 나는 국가와 도시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 자료는 하나의 활동 부문으로서 문화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여러 부문에 걸친 문화의 횡단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의사결정과 운영 조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No one left behind)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위대한 도전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을 지원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유네스코에게 문화2030 지표는 전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 UNESCO / Natalia Espina López



에르네스토 오토네(Ernesto Ottone R.)

유네스코 문화부문 사무총장보

한글판 발간사

유엔은 지난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정하고 모든 인류가 2030년까지 달성을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교육 및 과학과 함께 유엔의 문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문화의 기여도에 주목했습니다. 인류 생존과 직결되는 창의성의 원천인 동시에 인권과 평화의 기초가 되는 문화다양성을 빼고는 목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는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기여도를 확대하기 위해 회원국과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사회,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주제별 문화지표(문화2030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2030 지표는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 갈 때 우리가 현재까지 도달한 정확한 위치를 보여 주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도로의 이정표와도 같은 존재로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19년 유네스코가 출간한 문화2030 지표를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문화2030 지표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이행하는 데 있어 문화가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체계입니다. 이 지표들은 하나의 활동 부문으로서 문화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SDGs와 정책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영역 간 연계를 촉진하는” 문화의 역할, 즉 문화의 “횡단적” 기여를 평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간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 문화가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막막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2030 지표는 현장에서 느껴온 오랜 갈증을 해소하는 단비와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는 단면적이지도 않고 서로 단절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문화2030 지표 또한 문화가 지닌 특성인 다면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 환경과 회복력 △ 번영과 생활 △ 지식과 기술 △ 포용과 참여 등의 네 가지 주제별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4가지 주제는 총체성이라는 문화의 본연의 성격을 반영하여 서로 떨어져 있지 않으며, 그물망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들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문화의 다면적인 역할, 그리고 다양한 영역을 가로 지르는 횡단적 기여를 정확히 담아낼 수 있도록 여러 SDGs 및 세부목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30 의제 내 주제별 지표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제별 지표들이 한국의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서 합의된 글로벌 지표를 뒷받침하고 보완하며, 서로 다른 SDGs 및 세부목표 간 연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2030 지표가 2030 의제에 대한 기존의 이행 메커니즘 내에서 문화가 SDGs에 기여한 정도를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 분야의 기관, 단체, 전문가들이 ‘개념적 틀’과 ‘방법론적 도구’로 유용하게 널리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한 경 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약어

AECID	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스페인 국제개발협력기구
CDIS	Culture for Development Indicators Suite 문화발전지표
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
DHS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인구 및 건강 조사
EFA	Educ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교육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CS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문화통계체계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HS	Harmonised System 품목분류제도
IBE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국제교육국
ICCROM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Property 국제문화재보존복원센터
I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무형문화유산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FCD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국제문화다양성기금
ISCED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국제표준교육분류
ISCO	ISCO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국제표준직업분류
ISIC	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국제표준산업분류
ITU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IUCN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국제자연보존연맹
JRC	JRC Joint Research Centre 공동연구센터
LFS	LFS Labour Force Survey 노동력조사
MDG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NGO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SO	National Statistical Office 통계청
OECD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RBM	Results Based Management 성과중심관리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국민계정체계
UIS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유네스코 통계국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UNDAF	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s 유엔 개발원조 프레임워크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유엔환경계획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WTO	UN World Tourism Organization 유엔 세계관광기구
WHCL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 세계유산 문화경관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WVS	World Value Survey 세계가치관조사

그림 및 표

- 그림 1. 문화|2030의 논리적 근거 _ 17
- 그림 2. 프로젝트 진행표 _ 22
- 그림 3. 데이터 출처 _ 29
- 그림 4.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 _ 29

-
- 표 1. 젠더 대응표 _ 31
 - 표 2(A). 지속가능한 유산 관리 체크리스트 — 국가와 도시 수준 _ 38
 - 표 2(B). 지속가능한 유산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 도시 수준에서만 _ 41
 - 표 3(A). 기후 적응과 회복력 체크리스트 — 국가 수준에서만 _ 44
 - 표 3(B). 기후 적응과 회복력 체크리스트 - 도시 수준에서만 _ 45
 - 표 4. 문화시설 지표의 대응표 _ 47
 - 표 5. 문화 고용의 구성 요소 _ 54
 - 표 6(A). 문화 거버넌스 체크리스트 — 국가 수준에서만 _ 62
 - 표 6(B). 문화 거버넌스 체크리스트 — 국가와 도시 수준 _ 64
 - 표 7. 문화 지식 체크리스트 _ 71
 - 표 8. 다중언어 교육 _ 74
 - 표 9. 예술적 자유를 위한 체크리스트 _ 84
 - 표 10. 참여적 관리 및 거버넌스에 대한 체크리스트 _ 92
 - 표 11. 문화 전문가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2005년 협약 / 목표 1.4.) _ 93

서론

유네스코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속가능발전의 동인이자 조력자로서 문화의 역할을 인정하는 세 가지 주요 결의안(2010년, 2011년, 2013년)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일련의 과정은 2015년에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문화'가 포함됨으로써 정점을 이루었다. 문화는 열한 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1)의 세부목표 11.4(Target 11.4) -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유네스코 통계국은 이 세부목표에 대해 전 지구적으로 합의된 지표 11.4.1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고할 것이다. 세부목표 11.4 이외에도, 문화는 하나의 활동 부문으로서, 그리고 다른 부문에 걸쳐 횡단적으로('경계를 초월하여') 작용하면서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문화의 기여는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유엔 주거 및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회의'(해비타트 III)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비롯해 다른 주요 국제 체제/frameworks)에서도 분명하게 인정을 받고 있다.

유네스코 주제별 문화지표(문화2030 지표)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SDGs 및 세부목표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이행하는 데 문화가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표 체계이다. 이 체계는 하나의 활동 부문으로서 문화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SDGs와 정책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문화의 횡단적 기여를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주제별 지표들은 2030 의제에서 합의된 글로벌 지표를 뒷받침하고 보완하며, 서로 다른 SDGs 및 세부목표 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2030 지표는 2030 의제에 대한 기존의 이행 메커니즘 내에서 문화가 SDGs에 기여한 정도를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 및 도시에 '개념적 틀'과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정책, 의사 결정 및 운영 조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사업은 SDGs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을 입증하고 가시화하여 의사결정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론을 수립하기 위한 혁신적인 활동이다.

문화2030 지표는 문화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의 변혁적 역할에 대한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도시들이 자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문화의 가시성과 구체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문화에 대한 데이터 측정과 수집을 위해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단지 SDGs에서 문화의 역할을 옹호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이러한 개발이 국가와 도시 수준의 개발 계획과 정책, 그리고 '유엔 개발원조 프레임워크'(UN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s, UNDAF) 및 관련 문서에 문화를 포함시키는 데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문화 관련 데이터가 여러 기관과 기구에 의해 파편적으로 생성되는 상황에서, 이 지표 체계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문화와 기타 정책 영역 간의 연결성과 교차성을 부각시킨다. 문화2030 지표의 목적은 문화와 관련된 각각의 SDG 세부목표 및 글로벌 지표에 대한 문화의 기여도를 모니터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SDGs 및 세부목표에 걸쳐 문화가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해 이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 활동, 정책과 일치하는 횡단적 주제에 따라, 여러 SDGs 및 세부목표에 걸쳐 있는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문화2030 지표는 2030 의제에서 문화 분야를 횡단적으로 가시화함으로써, 문화와 발전에 대한 일관성 있고 강력한 내러티브를 증거에 기반해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문화2030 지표의 개념적 틀, 방법론, 이행 메커니즘은 가능한 한 기존의 데이터 출처에 의존하여 양적·질적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문화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유네스코 문화 협약과 프로그램에 보고된 데이터를 통합하며, 국가 및 도시 수준의 도구를 개발한다. 또한, 관련 기관의 역량 구축을 우선시하고,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며, 다양한 통계 역량에 적응할 수 있는 틀을 제안하고, 개선을 모색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문화2030 지표는 문화 분야의 양적·질적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 관한 유네스코 고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도시 또는 국가가 이 지표 체계를 이행할 경우, 여기서

얻어지는 분석 자료와 모범 사례는 2030 의제의 문화 관련 디지털 데이터뱅크와 더불어 지식 기반을 구축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범 도시 및 국가에서 문화2030 지표 이행의 일환으로 수집된 정보는 지역 및 국가 수준의 조치에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선을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문화가 2030 의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글로벌 수준에서도 개략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 데이터는, 2030 의제를 비롯해 문화와 발전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안과 관련된 유엔의 전체 보고 체계에 유네스코가 참여하도록 뒷받침하는 증거 기반의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문화2030 지표 체계의 개발은 2017년 초에, 발전과 관련해 문화를 측정하는 기존의 방법론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시작되었다. 지난 몇 년간 유네스코를 비롯한 세계 파트너들이 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고 이행한 방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SDGs에 대한 의견 수렴을 촉진하고 기존 도구와 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검토 대상으로는 유네스코 통계국의 '문화통계체계'(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FCS), '문화발전지표'(Culture for Development Suite, CDIS), 문화 협약의 정기 보고 메커니즘, 그리고 2030 의제의 특정 맥락과 관련된 기타 모니터링 메커니즘 및 연구 방법론 등이 망라되었다.

이와 함께 두 차례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해(2017년 9월, 2018년 1월) 지표 체계 설정 및 자료 수집 방법을 논의했다. 이 워크숍에는 유네스코 직원(여러 문화 협약 사무국, CDIS 이행에 사전 경험이 있는 지역사무소 및

통계국 직원),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환경계획(UNEP),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JRC), 문화 통계에 사전 경험이 있는 몇몇 국가/지방 통계청, 이전에 CDIS를 지원했던 스페인 국제개발협력기구(AECID), 그리고 여러 지역의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4가지 주제 차원으로 분류된 22개 지표의 기본 틀(framework)이 개발되었다. 이 각각의 차원은 지속가능발전의 세 축인 경제, 사회, 환경에 해당되는데, 특히 4번째 차원의 경우엔 문화 분야의 교육, 지식, 기술과 관련 있다. 각 차원에 해당되는 지표는 '기술 지침'(Technical Guidelines)에 정의되어 있으며, 이 지침에는 각 지표의 목적, 데이터 출처, 산정 방법이 기술돼 있다. 이 지침은 유네스코 통계국, 유네스코 문화협약팀, 그리고 시간과 전문지식을 아낌없이 쏟은 많은 외부 전문가들의 노고 덕분에 개발되었다. 또한 이 지표 체계는 2030 의제의 '5P', 즉 인간(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 중 평화는 문화다양성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모든 차원에서 성별로 세분화된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함으로써, 성평등을 단지 하나의 지표가 아니라 이 지표 체계 전체에 걸쳐 주류화하고 있다. 이 양적 및 질적인 22개의 지표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문화 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국가 또는 도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정책의 방향과 간극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30 의제에서의 문화

문화와 지속가능발전: 주요 개념 및 접근방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2015년 10월 국제사회에 의해 채택된 ‘인간, 지구,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으로,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 의제는 모든 국가가 향후 15년에 걸쳐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하고, 불평등과 싸우며,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2030 의제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이에 연결된 169개의 세부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적·국가적·국제적 수준의 정책 설계 및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17개의 SDGs는 ‘5 P’(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지속가능성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인간, 지구, 번영)뿐만 아니라 목표 이행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조건(평화, 파트너십)을 반영한다. 따라서 2030 의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폭넓고 총체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서로 다른 정책 영역 간의 연계와 시너지 효과를 제안하고 있다. 이 대담한 비전은 지금까지의 단선적이고 부문적인 접근방식을 넘어서서 창의적인 접근방식을 요구한다.

문화와 발전에 대한 폭넓은 접근

2030 의제의 채택으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문화의 역할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 의제는 여러 SDGs 및 세부목표에 걸쳐 문화를 함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2030 의제는 문화유산, 창의산업, 지역 문화와 생산품, 창의성과 혁신, 지역사회, 현지 재료, 문화다양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문화의 기여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건강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역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이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조정할 그간의 경험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SDGs에 대한 문화의 횡단적 및 거미줄식 기여

문화는 하나의 활동 부문 그 자체로서, 그리고 다른 부문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구성 요소로서 ‘발전’에 기여한다. 문화의 보호와 증진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 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 성장, 불평등 감소, 환경, 성평등 증진, 혁신 및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등과 같은 많은 SDGs에 횡단적으로 기여하기도 한다. 문화의 역할은 경제적·사회적 이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동인’이자, 발전에 개입해 그 효과를 높이는 ‘조력자’로서 다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세부목표의 달성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과정 그 자체뿐만 아니라 -SDGs와 세부목표를 통계 지표만으로 평가하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시에 여러 부문을 연결하는 ‘거미줄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화는 지속가능발전의 5가지 핵심 요소, 즉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각각에 걸쳐 횡단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서도 문화유산의 보호를 촉진하고 창의성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인간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비롯한 일부 분야의 경우엔 문화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유네스코 문화 협약 및 프로그램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개별 범위와 개념적 틀에 따라 저마다 특정 관점이나 초점을 지니고 있는 유네스코 문화 협약 및 프로그램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2030 의제의 채택과 함께, 유네스코는 이행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 내에서 특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또는 세부목표가 성과 체계에 융합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조정 및 확인함으로써, 모든 협약을 관련 SDGs에 통합해 왔다. 모두 6개인 유네스코 문화 협약은, 이행 측면에서 국제협력과 역량 강화를 매우 필요로 하는 국제 규범 문서로서, 파트너십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인 SDG 17, 특히 세부목표 17.9(역량 강화) 및 17.16(글로벌 파트너십)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또한 문화 협약은 성평등에 관한 목표인 SDG 5, 특히 세부목표 5.5(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에도 횡단적으로 기여한다.



1954년

비록 지속가능발전의 원칙들이 법적 문서에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지는 않지만,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과 2개의 부속 의정서**」(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and its two protocols, 1954년과 1999년)는 서로 교차하는 문화적, 인도주의적, 안보적 차원의 발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여러 결의안에서 폭넓게 인정을 받아 언급되고 있다.¹ 이 협약은 핵심 목적과 범위를 통해 문화유산에 관한 세부목표 11.4에 직접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유산에 대한 공격에 형사상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또한 문화재 보호에 종사하는 직원을 비롯해 군대, 세관원,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역량 구축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다(세부목표 4.7).



1970년

문화 상품의 불법 거래는 특히 분쟁 지역 또는 분쟁 이후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이슈로, 불법 거래된 문화 상품이 범죄 집단의 자금원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년)은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16의 핵심인 ‘글로벌

안보와 평화 구축’ 의제를 보장하는 주요한 힘이다. SDGs 중 문화유산에 관한 세부목표 11.4 및 불법취득 자산의 환수에 관한 세부목표 16.4는 이 협약의 주요 의무와 직접 연결된다. 또한 이 협약은 일반 대중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세부목표 4.7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역량 강화 및 교류 워크숍을 통해 폭력 예방에도 기여한다(세부목표 16.a).

「**박물관 및 컬렉션 보호와 증진, 다양성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Museums and Collections, their Diversity and their Role in Society, 2015년)는 박물관이 문화 전승, 문화 간 대화, 학습, 토론, 훈련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보장하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특히 ‘사회적 포용’(세부목표 10.2)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술’(세부목표 4.7)에 기여하고 있다.



1972년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에 대한 유일한 규범 문서인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년)은 그 채택 이후 지속가능발전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플랫폼을 제공해왔다. 이 협약의 의무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세부목표 11.4(SDG 11.4)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2015년에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협약의 이행 과정에 지속가능발전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한 '세계유산 지속가능발전 정책'(World Heritage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을 채택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2030 의제가 이 협약의 핵심 메커니즘에 포괄되도록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유산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유산 보존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역의 정책 및 이행 과정에서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이행 과정을 통해 물, 생물다양성 등과 같은 천연자원의 보호(세부목표 6.6, 14.5 및 15.1)와 유산 회복력(세부목표 2.4 및 11.4)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 그리고 포용적인 사회 발전을 장려하여 웰빙과 형평성(세부목표 10.2), 기본권 존중(세부목표 16.10), 지역사회 참여(세부목표 16.7), 성평등(세부목표 5.5)에 기여한다. 더 나아가, 이 협약은 공평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세부목표 8.3), 지속가능한 관광(세부목표 8.9 및 12.b)을 촉진하여 포용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기술 훈련과 혁신(세부목표 4.4 및 4.7)을 뒷받침하고, 최종적으로는 분쟁 예방과 해결(세부목표 16.a)을 용이하게 하여 평화와 안전에 기여한다. 최근에는 '세계유산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개념과 지침이 협약 메커니즘에 통합됨에 따라, 협약 이행에 지속가능발전 관점이 반영되도록 정기보고 질문지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 협약이나 비준 및 사업 체제에 있는 당사국들이 협약 이행을 통해 2030 의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유산지역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협약이 도시 및 SDG 11에 기여하는 역할은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2011년)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이 권고는 공간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하는 도시 유산 보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제안하고 있으며, 또한 그 이행에 있어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2001년

이 협약은 해양에 대한 이해력과 해양유산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세부목표 4.7)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해양 지역사회 구축 및 문화 정체성 보호에 기여한다. 수중문화유산은 인간이 과거에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 또는 어떤 영향을 받아왔는지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여 기후 적응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세부목표 13.3). 마찬가지로 수중문화유산은 인류와 해양, 호수, 하천 사이의 역사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유산에 대한 연구 및 보호 활동은 미래 세대를 위해 연안 및 해양 지역의 보존 상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대시켜 수산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세부목표 14.5 및 14.7).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년)은 문화 다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발전의 동인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이 지닌

중요성을 인정한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함으로써 2030 의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평화와 안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2016년 채택) 제6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살아있는 유산을 당사국의 개발 계획, 정책, 프로그램에 어떻게 완전히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2030 의제는 특히 정기 보고 시스템 및 성과 체계(results framework)를 통해 이 협약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에 결합되었다. 농업과 식량 체계, 전통의학, 천연자원 관리, 생태계 서비스, 생태자원 관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세대를 이어 전승되는 지식과 관행은 무엇보다도 식량안보(SDG 2), 보건(SDG 3), 양질의 교육(SDG 4), 성평등(SDG 5),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SDG 8), 지속가능한 도시(SDG 11) 및 기후변화 대응(SDG 13)에 기여한다. 현 단계에서 이 협약이 2030 의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협약의 핵심 내용(제2조)에 나와 있듯이, SDG 4(양질의 교육)가 최우선 과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확대(세부목표 4.7)와 관련해 무형문화유산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005년)은 그 이행 메커니즘을 2030 의제의 원칙 및 목표에 맞추고 있다. 이 협약은 특히 SDG 4, 5, 8, 10, 16, 17에 주안점을 두고,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협약의 네 가지 주요 목표에 따라 모니터링 체계에 결합되도록 하고 있다. 먼저 이 협약은,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스를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목표(goal 1)의 범주 내에서, 창의 분야의 일자리와 기업가정신 확대(세부목표 8.3), 창의 분야의 취업을 위한 기술 구축(세부목표 8.3 및 4.4), 문화·창의산업 분야의 책임 있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증진(세부목표 16.6 및 16.7)이 이뤄지도록 기능한다. 또한 두 번째 목표(goal 2)를 바탕으로, 협약은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균형적인 흐름 조성(세부목표 10.a)과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의 이동성 지원(세부목표 10.7)에 기여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발전 체제에 문화를 통합하고자 하는 세 번째 목표(goal 3)에 따라, 협약은 문화 부문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이행을 장려하고(세부목표 17.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증진시키며(세부목표 17.14), SDGs 이행을 위한 역량 구축에 참여하도록(세부목표 17.9) 기능한다. 이와 함께 이 협약은 네

번째 목표(goal 4)에 반영된 대로, 양성평등과 예술적 자유에 대한 정책을 권장함으로써 인권과 기본적 자유(세부목표 16.10) 및 성평등(세부목표 5.5 및 5.c)에 기여한다. 그리고, 협약의 성과 체계는 4년 주기의 정기 보고 제도를 통해 이행되며, SDGs 달성에 관한 양적·질적 자료 수집을 위해 업데이트된다. 특히, 협약 당사국들은 특정한 SDGs와 연결된 혁신적 정책과 방안이 있다면, 이를 공유해야 한다. 모범 사례들은 추후 이 협약의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을 통해 전파될 것이다. 이 협약의 일환(세부목표 16.6 및 16.7)으로 설립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은 2005년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특정 SDG와 세부목표를 연계시키기 위한 성과 체계를 현재 검토 중이다.

2005년 협약에 따라 이행이 다시 활성화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1980년)는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훈련, 사회보장, 고용, 소득과 세제 조건, 이동성,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된 정책과 방안을 통해 예술가의 직업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세부목표 10.2)과 기본적 자유(세부목표 16.10)에 기여한다.

목적과 원칙

종합적인 목적

유네스코 주제별 문화지표(문화2030 지표)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목표 및 세부목표를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이행하는 데 문화가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표 체계(Indicators framework)이다. 이 지표 체계는 하나의 활동 부문으로서의 문화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SDGs와 정책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문화의 횡단적 기여를 평가할 것이다. 이 일련의 주제별 지표는 2030 의제 내에서 합의된 글로벌 지표를 뒷받침 및 보완하며, 서로 다른 SDGs와 세부목표 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2030 지표 체계(Indicators framework)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문화의 기여를 가시화한다

문화2030 지표는 문화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심층 분석을 기반으로 문화의 변혁적 역할에 대한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의 가시성과 구체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문화 관련 데이터가 여러 기관과 기구에 의해 파편적으로 생성되는 상황에서, 이 지표 체계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문화와 기타 정책 영역 간의 관련성과 교차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문화 활동의 범위와 지속가능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문화의 역할, 영향, 기여도를 쉽게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지표 체계는 문화에 의해 생성된 행위 및 활동을 정량화하거나, 또는 문화적 가치가 정책, 프로그램, 활동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문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러 SDGs에 걸친 문화의 역할에 대해 주제별 및 횡단적 개요를 제공한다

문화2030 지표는 문화와 관련된 SDG 세부목표나 전 지구적으로 인정된 지표 각각에 대한 문화의 기여를 모니터링하기보다는, 여러 SDGs 및 세부목표에 걸쳐 문화가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이를 서로 연결하고자 한다. 이 지표 체계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 활동, 정책 등에 따라 '횡적으로 연계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SDGs 및 세부목표를 아울러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주제별 차원들은 SDGs의 다섯 가지 영역, 즉 '5 P'를 개념적인 틀로 삼고 있다.

문화에 대한 옹호 활동을 강화한다

2030 의제에서 문화를 횡단적인 측면에서 가시화함으로써, 문화2030 지표는 문화와 발전에 대한 - 증거에 기반한 핵심 메시지로 뒷받침되는- 일관성 있고 강력한 내러티브(narrative)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내러티브는 국가 및 도시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문화를 포함시키고, 문화 부문에 공공 및 민간 자금을 더 많이 할당하도록 의사결정자와 파트너들을 설득하기 위한 전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옹호(advocacy) 활동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정책 및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 기반의 결과를 제공한다

문화|2030 지표는 문화가 SDGs에 기여한 정도를 2030 의제의 기존 이행 체계를 통해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와 도시에 '개념적 틀'과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한다. 수집된 증거는 문화 부문 내에서 그리고 다른 부문에 걸쳐서 횡단적 정책, 의사 결정, 운영 조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평가 도구를 반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가와 도시들은 정책의 성과 및 정책 자체의 효과나 견고성에 관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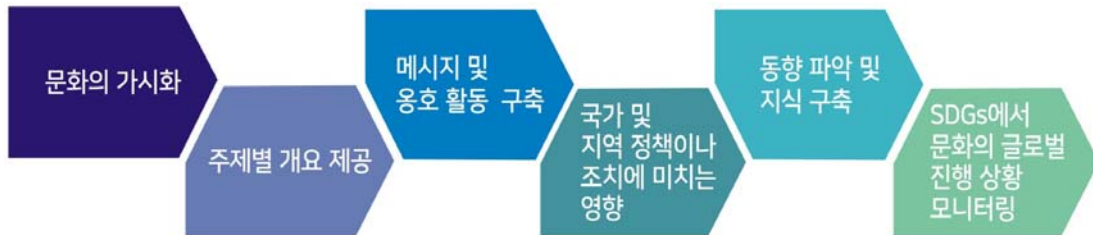
이행을 위한 지식 기반을 구축한다

일단 이 지표 체계가 도시나 국가에 의해 이행되면, 각각의 데이터가 소중한 정보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면, 다양한 도시 및 지역, 국가에서 문화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동향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개괄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얻어지는 분석 자료와 모범 사례는 문화의 기여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030 의제의 문화 관련 디지털 데이터뱅크에 취합되어 지식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30 의제에 문화가 기여하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문화|2030 지표의 이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범 도시 및 국가에서 수집된 정보는 지역 및 국가 수준의 조치에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선을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문화가 2030 의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글로벌 수준에서도 개략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 데이터는 2030 의제를 비롯해, 문화와 발전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안과 관련된 유엔 전체 보고 체계에 유네스코가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증거 기반의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그림 1. 문화 | 2030의 논리적 근거



이행 원칙

문화 2030 지표의 개념적 틀, 방법론 및 이행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에 의거한다.

기존의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한다

데이터를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은 특히 통계 역량이 제한된 국가의 경우 부담이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문화2030 지표는 가능한 한, 기존의 국가 및 지역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자기구가 이미 집계한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다. 또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기보다는, 기존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결합하여 지표에 대한 성과나 진전 상황을 평가하도록 할 것이다.

질적 및 양적 데이터를 이용해 문화의 기여도를 평가한다

문화2030 지표는 질적 및 양적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이 두 가지 데이터는 구체적인 문화 범위를 파악하는 데 모두 필요하다. 양적 데이터는 어떤 상황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또는 정해진 목표 대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양적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맥락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적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양적 데이터는 모든 회원국이 하나의 방법론과 규정을 따르는 '글로벌 데이터'이거나, 또는 국가나 지역 수준의 데이터일 수도 있다.

유네스코 문화 협약과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 데이터를 통합한다

문화2030 지표는 문화 분야에서 유네스코의 임무, 주제별 우선순위 및 규범적 도구에 따라 국가나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정책, 프로그램,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 지표의 개념적 틀은 6개의 주요 유네스코 문화협약(그리고 3개의 권고) 및 그 개념과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협약의 정기 보고 활동의 일환으로 협약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국가 보고서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2030 지표는 이러한 협약들이 보다 광범위한 문화의 틀 안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 활동에 대한 일종의 기준점을 제시해 준다.

국가 및 도시 수준에서 문화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다

문화2030 지표는 국가와 도시들이 각각의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도시'라는 개념이 국가마다 특정 기준에 따라 규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문화 지표에서는 맥락상 '도시 수준'의 이행을 가리킬 때에 '도시'(urban)와 '지방'(local)이라는 용어를 서로 호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조직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은 시 당국이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표는 국가 수준의 지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시의 관심사에 맞추어 도시 지표를 조정하기도 한다. 반면 일부이지만, 도시가 국가의 전반적인 입장에 따르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도시 수준의 지표들은 유네스코의 기존 도시 관련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특히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및 세계유산도시 프로그램(World Heritage Cities Programme)과의 시너지 효과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관련 기관의 역량 구축을 우선시한다

문화2030 지표는 국가, 지역, 지방 기관이 기존의 글로벌, 국가, 지역 차원의 데이터를 사용해 양적 및 질적인 문화 관련 지표를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지표의 목적은 각 기관이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데이터를 식별하여 통합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통계기관이 조기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한다

문화 관련 데이터는 정책 분야 전반에 걸쳐 여러 기관에 의해 파편적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데이터 생성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2030 지표 사업을 실행하려면, 여러 부문(문화, 노동, 무역, 청년, 환경, 교육 등)과 다양한 국가 및 지방 기관(국가 및 지방 통계청, 전문기구, 예술 및 유산 재단 등)에서 나오는 정보를 조정(coordination)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통계 역량에 적합한 틀을 제안한다

문화2030 지표는 통계 역량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서로 다른 수준의 통계 역량과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차 데이터 출처나 산정 방법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미흡할 경우, 각 지표용으로 개발된 방법론(methodology)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에 참여한 기술자들이 지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장 수준에서 지표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2030 지표는 문화를 평가하는 데 있어, 기술적으로 더 정교하나 융통성 없는 -예컨대 '문화 위성계정'과 같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훨씬 더 유연한 방식이다. 따라서 문화 관련 통계 역량에서 서로 차이가 큰 유네스코 회원국들에게 적용하기에 더욱 적합할 것이다.

규범적인 평가보다는 모두를 위한 '열망을 담은 도구'를 제공한다

문화2030 지표는 국가 및 도시들이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의 결과를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표는 국가 또는 도시들 간의 전 세계적인 순위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의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지표 체계의 목적은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들로 하여금 변화를 열망하고 개선할 기회를 인식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지표 체계는 '규범적'이기보다는 좀 더 '도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이 지표는 관련 국가나 지방 기관의 문화 정책,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성과중심관리의 개념적 틀을 반영한다

문화2030 지표는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제공(delivery)하는 데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적인 장치로서 성과중심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 체계를 반영하고자 한다. 문화에 의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투입', '과정', '성과'는 장기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다. 각 주제별 차원에는 투입(예: 문화 인프라 개발), 과정(예: 거버넌스 메커니즘), 성과(예: 문화 생활 참여)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표들이 설정돼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의 기여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프레임워크, 방법론 및 경험에 대한 검토

문화2030 지표의 목표는 유네스코 고유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양적·질적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문화 분야의 정책, 프로그램과 활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증거에 기반해 이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 지난 몇 년간 유네스코를 비롯한 세계 파트너들이 '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고 이행한 기존의 프레임워크, 방법론, 경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SDGs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도구와 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화통계체계(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FCS)

문화2030 지표는 문화통계체계(FCS)의 분류와 방법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유네스코 통계국에 의해 2009년에 개발되어 이행되고 있는 이 체계는 전 세계 각국의 통계청이 사용하는 합의된 국제 기준을 이용해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이 지표는 바로미터(Barometer)를 포함한 기타 국가적 또는 지역적 통계 체계를 통해서도 추가 데이터나 개념적 틀을 제공받고 있다.

SDG 글로벌 지표 11.4.1

문화2030 지표는 유산 지출에 대한 글로벌 지표인 SDG 11.4.1을 '환경과 회복력' 차원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지표 체계 참조). 유네스코 통계국(UIS)이 세부목표 11.4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개발하고 실행 중인 이 새로운 지표는 각 국가가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지출하는 1인당 총비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제적인 비교도 가능하다. 이 지표를 생성하기 위해 유네스코 통계국은 각국 및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해 새로운 조사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유네스코 문화 협약의 정기 보고 및 모니터링 체계

문화2030 지표는, 관련성이 있는 경우, 유네스코 문화 협약에 의해 개발된 정기보고 및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해 국가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기도 한다. 이는 당사국들이 문화 협약의 이행을 통해 2030 의제에 기여하는 수준과, 협약을 이행하는 방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기보고 질문지 및 모니터링 체계가 문화 부문이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상황' 및 2030 의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짜여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문화 협약의 정기 보고 및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검토는 문화|2030 사업(Initiative)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수집된 데이터를 개선하고, 기존의 개념과 작업 도구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검토 작업은 협약의 정기보고서를 중복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적 정보를 강화하여 맥락화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 협약에 대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전담 조사기관이나 연락 담당 기관을 통해 수집되지만, 문화|2030 사업과 관련된 데이터는 다양한 응답자로부터 나올 수 있으므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답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발전지표(Culture for Development Indicators Suite, C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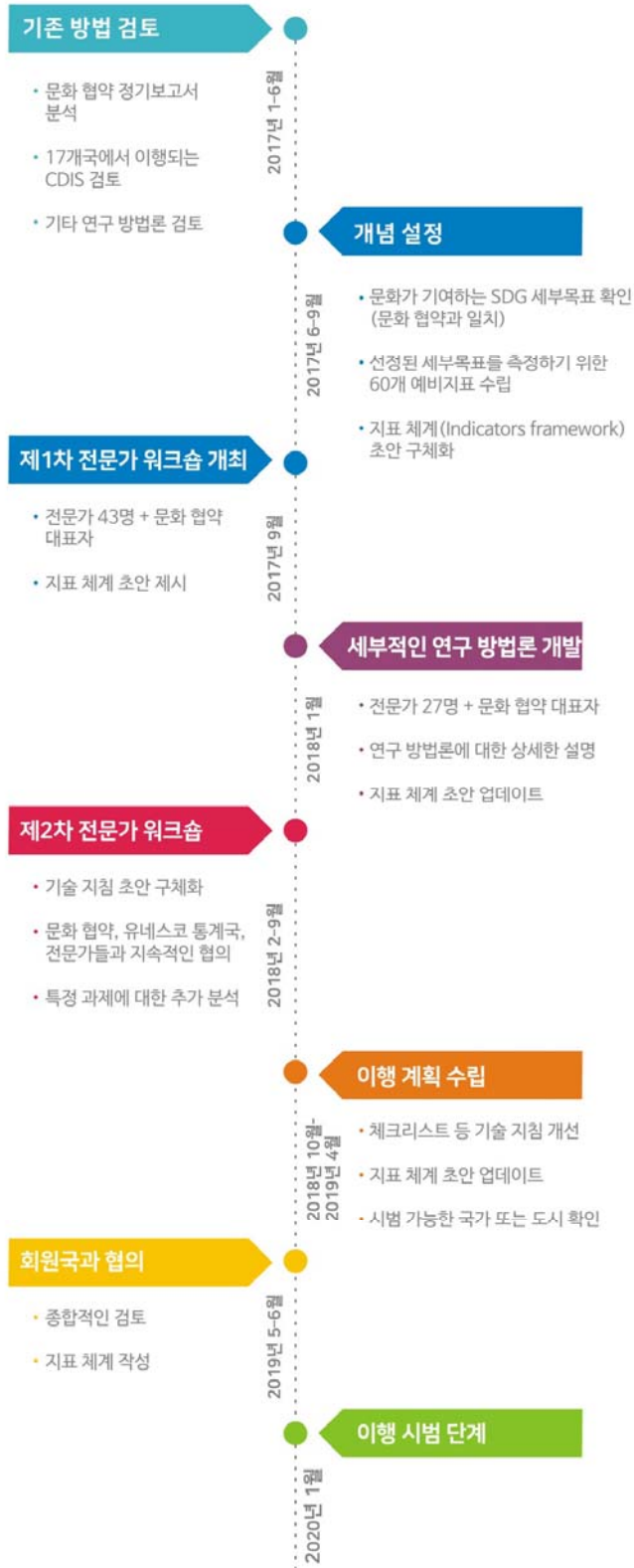
문화|2030 사업은 유네스코가 스페인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2009년에 시작해 17개국에서 이행된 문화발전지표(CDIS)의 성과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CDIS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맥락에서 문화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 보고서(UNESCO, 1996)에서 도출된 개념적 틀에 기초하고 있다. CDIS 지표는 문화·창의 산업에 중점을 두고, 7개의 주제별 차원에 따른 일련의 지표를 제시했다.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문화 통계 역량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CDIS는 원시(raw)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기존의 2차 자료(secondary sources)를 활용하는 접근 방식을 택했다. 이 자료를 분석하여, 문화의 영향 중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을 대체할 새로운 지표를 구성하는 데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하고 지표를 구성할 수 있는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문화 통계에 대한 '국가 역량'을 구축할 수 있었다. 유네스코 CDIS는 매우 특별한 정책 수단이자 옹호 도구로서 이를 이행하는 국가의 정책과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문화|2030 사업은 CDIS의 일환으로 개발된 개념적이고 방법론적인 일부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문화|2030 지표 체계 내의 일부 지표는 CDIS에서 도출된 반면, 그 밖의 지표는 CDIS의 이행 경험을 바탕으로 2030 의제의 기존 틀에 따라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다르다. 문화|2030 지표 체계는 초기의 CDIS 방법론과 범위를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하면서 개선하고 있다. 첫째, 유네스코 통계국의 문화통계 체계(UNESCO-UIS, 2009) 및 이미 데이터를 수집 중인 통계국의 글로벌 문화 지표를 활용해 방법론과 틀을 확장하고 있다. 둘째로, 특히 환경과 도시계획을 아울러, 주제 차원을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 수준의 이행을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 협약 및 권고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 체계에 조직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그림 2. 프로젝트 진행표

준비 단계 및 진행 상황



문화 | 2030 지표 개발 과정 및 진행 상황

준비 단계 및 진행 상황

문화|2030 지표 체계의 개발은 2017년 초 문화통계체계(FCS), 문화발전지표(CDIS), 문화 협약 정기보고 체계, 기타 연구 방법론 등 기존의 방법론을 2030 의제의 특정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 후 지표 체계의 초안과 함께 60개 지표의 예비 목록이 작성됐다.

유네스코는 두 차례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해(2017년 9월 및 2018년 1월) 지표 체계 및 자료 수집 방법론을 논의했다. 이 워크숍에는 유네스코 직원(여러 문화 협약 사무국 대표들 및 CDIS 이행에 사전 경험이 있는 지역사무소 대표들)과 유네스코 통계국(UIS) 관계자들을 비롯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환경계획(UNEP),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JRC), 문화 통계에 사전 경험이 있는 국가 및 지방 통계청, 이전에 CDIS를 지원했던 스페인 국제개발협력기구(AECID), 그리고 여러 지역의 국제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 검토 작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4가지 주제별 차원으로 분류된 22개의 지표 체계가 개발되었다. 또한 각 지표의 목적, 데이터 출처,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기술 지침이 만들어졌다. 이 지침의 개발은 유네스코 통계국과 유네스코 문화협약팀, 그리고 시간과 전문지식을 아낌없이 바친 많은 외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다음 단계

2019년 5월에는 유네스코 회원국들과의 협력이 시작됐다. 유네스코는 회원국들의 피드백을 수집 및 분석, 통합해 2019년 10월에 열린 제207차 집행위원회 회의에 정보 문서로 제출했다. 그 후 이 프로젝트는 2019년 11월 개최된 문화장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문화|2030 지표의 시범 이행 단계에 대비해, 프로젝트 팀은 그간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방법론을 정교하게 조정하고, 역량 구축 자료와 훈련 툴킷(toolkit) 등의 작업 도구를 개발했다. 또한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이 지표를 이행할 때에 해당 방법론과 계획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역 전문가들을 선발해 교육했다. 아울러 이 과정 전반에서, 필요한 경우엔 고위 전문가들과 추가 협의를 하도록 했다.

문화|2030 지표의 시범 이행 단계는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수의 도시 및 국가에서 시작됐다. 각 시범 도시 및 국가에서는 지역 또는 국가 수준에서 전문가(문화 분야에 경험이 있는 통계학자나 경제학자)가 지명되었다. 이 전문가들은 문화|2030 지표를 위해 개발된 세부적 방법론에 따라 데이터 추출과 분석, 지표 구성 등의 책임을 맡았다. 지역 전문가들은 이행 과정 전반에 걸쳐 전 세계의 참여 국가에 전문가 지침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최종 국가보고서의 작성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초기 단계에서는, 유효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론을 시연하고 사업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훈련 워크숍도 개최됐다.

유네스코 회원국과의 협의 개요

문화2030 지표의 기술 지침에 대한 유네스코 회원국들과의 협의가 2019년 5월 16일 온라인으로 시작됐다. 여기에는 유네스코가 제안한 문화2030 지표 체계 및 방법론에 대한 관심 사항과 권고사항을 공유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하는 온라인 설문지(영어 및 프랑스어)가 포함됐다. 이 조사는 최대한 많은 회원국들이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9년 7월 29일에 종료되었다.

회원국들의 피드백을 수집, 분석, 통합한 분석 보고서 전문은 문화2030 지표 웹사이트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볼 수 있다(whc.unesco.org/en/culture2030indicators/).

설문에 응답한 회원국들은 문화2030 지표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원칙에 대해 확실한 신뢰를 보였다. 또한 국가적으로 유엔 2030 의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문화의 역할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기여도에 대한 측정과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회원국들은 '공통적이고 일관되며 국제 비교가 가능한' 지표의 부족으로 인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문화의 기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응답국들이(46개국 중 45개국) 여러 SDGs 및 세부목표에 대한 문화의 기여도를 측정하고 이를 서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2030 지표 체계 및 접근방식에 동의했다. 특히 모든 응답국들은, 이 문화2030 지표 체계가 2030 의제 내에서 문화의 횡단적 역할을 보다 가시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사업에서 문화의 역할을 옹호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여도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한 응답국의 90% 이상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문화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문화 관련 정책과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응답국의 98%는 이 지표 체계가 다른 부문이나 정책에 문화를 포함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으며, 모든 응답국이 지표 체계가 지식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목표와 SDGs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화2030 지표 체계의 목적은, 도시나 국가들이 이 지표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2030 의제에서 문화의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선을 마련하고, 그 진전 상황을 글로벌 수준에서 살펴보는 데 있다. 일부 응답국들은 양적 및 질적 증거를 통해 문화의 역할과 기여가 SDGs와 횡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일부 국가는 2030 의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화 데이터를 수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국들은 전반적으로, 문화에 대한 양적·질적 데이터를 2030 의제 및 SDGs와 연계하는 '횡단적 연결'을 비롯해 문화2030 지표와 SDGs 간 연계가 중요하다는 데 분명히 인식을 같이했다.

문화2030 지표의 연구 방법론은 다음의 4가지 주요 원칙을 토대로 삼고 있다. 첫째, 가능한 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지표를 구성하고 둘째, 질적 및 양적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며 셋째, 유네스코 문화 협약의 국가 정기보고 및 모니터링 체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넷째, 국가 및 도시 수준에 일치하는 지표 구성을 통해 문화를 측정한다는 것이다. 지표 및 데이터 수집에 관한 이러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응답국들의 견해가 일치했다. 데이터 수집 및 업데이트는 많은 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고, 특히 통계 역량이 제한된 국가의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양적 데이터만을 수집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어서, 지속가능발전에 문화가 기여한 증거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적 데이터도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나아가, 많은 응답국들은 문화2030 지표의 방법론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기존 데이터 출처(data source)를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2030 지표를 통해 국가와 도시는 정책의 성과 및 효과성이나 견고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다. 응답국 중 90% 이상이 이 지표 체계로 인해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UN High-level Political Forum)에서 진행되는, SDGs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보고'에 문화를 포함시키는 일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회원국 중 96%가 이 지표 체계가 국가와 도시들의 SDG 11 및 '새로운 도시 의제' 이행 보고서에 문화를 포함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응답 회원국 중 87%는 주제별 프레임워크 및 지표가 국가의 우선순위에서 문화의 위상을 강화한다고 강조했으며, 89%는 이 지표 체계가 개발 프로그램에 문화를 포함시키도록 촉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화|2030 지표는 통계 역량과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다. 1차 데이터 출처나 산정 방법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할 경우, 각 지표에 대해 개발된 방법론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 회원국의 83%는 이 지표 체계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해당 국가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 출처와도 호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문화|2030 지표 사업은 국가 및 도시들이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열망과 개선'의 기회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규범적'이기보다는 좀 더 '도전적'이다. 이 지표 체계의 목표는 문화의 특성에 대한 국가 및 지역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데이터를 식별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표 이행과 관련된 피드백을 보면, 특히 통계 역량이 제한된 국가에서는 지역 및 국가 워크숍을 통해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기관 간 협력 및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요약하면, 회원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나온 피드백을 통해 응답국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다. 회원국들이 제공한 많은 제안과 지속적인 노력 및 기타 문서에 대한 링크는 지표의 방법론을 개선하고 문화|2030 지표 이행의 시범 단계를 위한 역량 강화 자료 등 작업 도구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4가지 주제별 차원

4가지 차원

문화[2030 지표는 “i) 환경과 회복력, ii) 번영과 생활, iii) 지식과 기술, iv) 포용과 참여”라는 네 가지 주제별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각 차원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문화의 다면적이고 횡단적인 기여를 정확히 담아낼 수 있도록 여러 SDGs 및 세부목표와 연결돼 있으며, 이를 통해 2030 의제 내 주제별 지표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 지표 체계는 문화부문에서 유네스코의 임무와 관련이 있으면서 양적 또는 질적 데이터가 이미 수집되고 있거나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환경과 회복력

차원 1



이 주제 차원은 ‘지속가능한 인간 거주지’에 대한 문화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며, SDGs의 세 가지 축 가운데 ‘지구’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도시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차원은 유형·무형유산 및 자연유산을 지속가능발전의 지렛대이자 목적 그 자체로서 다루고 있다. 이 차원에서 제안된 지표들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이행 수준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민감한 계획’(culturally sensitive planning)을 세울 때 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전통지식의 포용을 고려해야 하는 증거를 제공한다. 또한 이 차원에서는 공공 공간과 문화 인프라를 비롯한 도시 환경의 질을 물리적/공간적 측면에서 평가한다.

번영과 생활

차원 2



이 주제 차원은 SDGs의 또 다른 축인 ‘번영’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문화 상품과 서비스, 기업을 통해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고 수익을 증대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문화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이 두 번째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는 7개

의 지표는 경제의 핵심 요소(GDP, 무역, 고용, 사업, 가계 지출 등)에 대한 문화의 기여도를 평가할 것이다. 문화 분야의

행정조직 구조나 체계는 국가마다 다르고, 문화가 포용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어 행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화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또한 이 차원에 포함된다. 이 지표는 국가 및 지역에서 경제 발전과 생활 향상과 관련해 문화가 제 역할을 해내려면, 이를 뒷받침해줄 적절한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줄 것이다.

지식과 기술

차원 3



이 주제 차원은 지역의 지식과 문화다양성을 포함하는 지식 및 기술 기반을 구축하는 데 문화가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특히 교육 훈련, 과정, 정책, 자료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 지식, 기술을 전달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문화가 기여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차원은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은 물론 직업교육에서 문화다양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문화 지식을 통합하는 교육과정의 심층적인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차원에서 제안된 지표들은 문화

지식의 통합 및 활용과 관련해 다음 사항에 대한 공공 당국과 기관의 이행 수준을 평가할 것이다. 즉,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공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 문화적 가치의 전승, 문화 교육(유산 보존에 관한 심화 교육 등)에 대한 우선순위, 창의 분야의 기술과 역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포용과 참여

차원 4



이 주제 차원은 포용과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응집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 문화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이 차원은 사람들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사람들이 문화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예술적 및 창조적 자유를 비롯한 문화적 표현의 자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차원에서는 문화 관행, 유적지, 문화 요소, 문화적 표현이 사회적 포용에 기여하는 '가치와 기술'을 전달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지표들은 공공 생활에서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의 역량을 평가할 것이다.

데이터 유형 및 출처

데이터 유형

문화|2030 지표 체계에는 다양한 양적·질적 지표들이 통합되어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 맞게 조정돼 있다. 목록에서 사용된 지표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측정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 통계 지표: 일반적으로 비율(예: 성평등 비율) 또는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준선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 동향: 시간 경과에 따라 '원시 수치'(raw numbers)가 모니터링되는 과정을 말한다(예: 한 해부터 다음 해까지 박물관 방문객 수 등).
- 체크리스트: 통계적이진 않지만(가령, 비모수처럼) 정량적 측정을 통해서는 포착할 수 없는 몇 가지 항목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예: 한 국가의 특정한 문화 정책이나 법령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체크리스트에는 응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검증 수단이 필요하다.²

통계 지표는 문화 관련 활동에 대한 평가 척도를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 국제 표준 분류 및 정의를 사용하면 지표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타난다. 체크리스트의 장점은 쉽게 정량화할 수 없는 특정 문화 관련 활동이나 정책의 존재 또는 부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 지표에는 국가 또는 지방 수준의 지표뿐만 아니라 글로벌 범위에서 국제 비교가 가능한 국제 표준을 사용한 지표도 포함된다.

이 지표들은 관련성, 정확성, 이용가능성, 정의의 명확성, 중복 방지 등 '데이터 품질의 원칙'을 고려해 설정된 것이다. 이 모든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지표는 거의 없지만, 지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품질은 틀림없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데이터 출처

문화|2030 지표는 우선적으로 국가 통계기관을 주요 데이터 출처로 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부 부처, 감시 기관, 공공 기관, 문화 정보 시스템, 특정 바로미터, 특정 국가 및 지역 조사, 전문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데이터 출처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들이 유네스코 문화 협약 관련 정기보고서 내의 기존 데이터와 유네스코 통계국이 생성한 문화 관련 데이터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지표들은 국가(i) 및 도시(ii)라는 두 가지 관리 수준을 대상으로 하면서, SDGs 전체 및 특히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이 추구하는 바를 반영하고 있다. 개별 지표 및 항목에는 관리 수준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적용할지 분명하게 지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표를 국가 수준에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국가 지표를 도시 수준에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국가 지표는 도시 수준에서도 적절할 수 있지만, 몇몇 도시의 경우 자기 도시를 국가적 맥락의 범주 안에 두기 위해 다른 수준, 즉 도시 수준의 지표에 대응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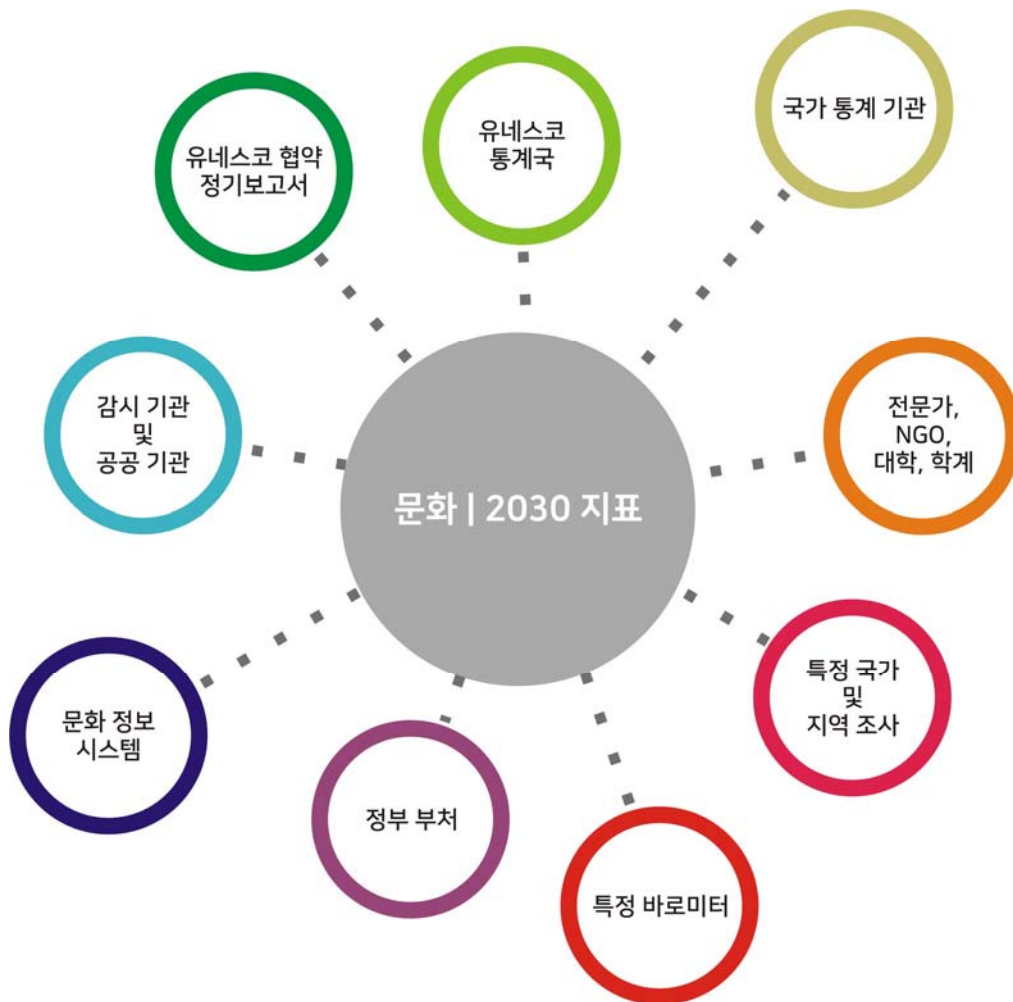
파트너십과 젠더에 대한 횡단적 접근

SDGs를 위한 파트너십 | SDG 17

문화|2030 지표 사업은 전반적으로 문화 협약을 포함한 유네스코의 다자 간 구조 및 운영의 특성에 따라 SDG 17에 횡단적으로 기여한다. 문화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

- 세부목표 17.9: 역량 강화
- 세부목표 17.16: 글로벌 파트너십
- 세부목표 17.17: 공공, 민간, 시민사회 파트너십
- 세부목표 17.19: 지속가능성 평가

그림 3. 데이터 출처



성평등 | SDG 5

성평등은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로서, 성별에 대한 특정 지표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지표 체계 전반에 걸쳐 횡단적으로(‘경계를 가로질러 서로 연결되도록’)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횡단적 접근은 대부분의 통계 정보와 행정 정보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이 방식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생활에 대한 ‘접근 기회’로부터 ‘참여’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준점에 걸쳐 성평등을 이해할 수 있다. 각 지표에서 점검할 수 있는 성별 요소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가능한 한, 성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문화2030 지표 체계는 성평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지표를 찾아낸다. 성평등은 성별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정책, 법률, 절차 등의 성별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부각될 수 있다.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개별적 특성(예: 연령, 민족, 장애 등)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동일한 세분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모든 체크리스트에는 특별히 젠더 문제를 언급하는 항목이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수치 지표는 성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세분화 외에도, 응답자들은 전 세계 통계기관이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기 보고(self-reported) 방식의 세분화가 고려되기를 원할 수도 있다.³

표 1은 성별 관점(gender lens)에서 다른 형태의 불평등이나 불이익과 마찬가지로 분석될 수 있는 지표를 보여준다. 관광 영향(지표 2, 7, 12, 21) 및 문화의 디지털 요소(지표 2, 14, 19, 21) 등과 같은 지표를 횡단적인 방식으로 검토함으로써 젠더 이외의 다른 주요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지표 체계

4가지 주제별 차원과 22개의 지표들이 시각적으로 나타나 있다(다음 쪽 참조). 이 체계는 데이터 제공자, 특히 유네스코 통계국 및 유네스코 문화 협약과의 -각각의 모니터링 체계 및 보고 메커니즘을 통한- 상호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 1. 젠더 대응표(젠더 관련 지표 및 점검 요소)

주제 차원	번호	지표	점검 가능한 성별 요소
환경과 회복력	1	유산에 대한 지출	
	2	지속가능한 유산 관리	정책 검토 시 성별 고려
	3	기후 적응과 회복력	정책 검토 시 성별 고려
	4	문화시설	자영업자의 성별 이사 및 고위직 임원의 성비
	5	열린 문화공간	사용자 및 운영자의 성별(예: 시장 노점)
번영과 생활	6	GDP 내 문화 비중	
	7	문화 고용	성별, 연령 및 기타 특성에 따른 분류
	8	문화 사업체	자영업자의 성별 이사 및 고위직 임원의 성비
	9	가계 지출	
	10	문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11	문화를 위한 공공 재정	성별 기반 회계
지식과 기술	12	문화 거버넌스	정책 검토 시 성별 고려
	13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 검토 시 성별 고려
	14	문화 지식	정책 검토 시 성별 고려
	15	다중언어 교육	
	16	문화예술교육	성평등 지수
	17	문화 훈련	성평등 지수
포용과 참여	18	사회적 응집력을 위한 문화	성별, 연령 및 기타 특성에 따른 분류
	19	예술적 자유	정책 검토 시 성별 고려
	20	문화에 대한 접근성	성별, 연령 및 기타 특성에 따른 분류
	21	문화 참여	성별, 연령 및 기타 특성에 따른 분류
	22	참여적 과정	성별, 연령 및 기타 특성에 따른 분류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

환경과 회복력

- 1 유산에 대한 지출
- 2 지속가능한 유산 관리
- 3 기후 적응과 회복력
- 4 문화시설
- 5 열린 문화공간

1970 1972 2003 2005 UNESCO Culture Conventions



- 2.4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농업
- 6.6 물 관련 생태계
- 9.1 양질의 인프라
- 11.4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 11.7 포용적인 공공 공간
- 12.b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
- 13.1 기후 및 재해 회복력
- 14.5 해양지역 보전
- 15.1 지속가능한 육상 생태계
- 16.4 불법취득자산의 환수

번영과 생활

- 6 GDP 내 문화 비중
- 7 문화 고용
- 8 문화 사업체
- 9 가계 지원
- 10 문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 11 문화를 위한 공공 재정
- 12 문화 거버넌스

1954 1971 1972 2003 UNESCO Culture Conventions



- 8.3 일자리, 기업가정신 및 혁신
- 8.9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
- 8.a 무역을 위한 원조 증대
- 10.a 무역에 대한 우대 조치
- 11.4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지식과 기술

- 13 지속가능발전교육
- 14 문화 지식
- 15 다중언어 교육
- 16 문화예술교육
- 17 문화 훈련

1970 1972 2003 2005 UNESCO Culture Conventions



- 4.4 취업을 위한 기술
- 4.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술
- 8.3 일자리, 기업가정신 및 혁신
- 9.c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
- 12.a 지속가능한 소비
- 13.3 기후 적응에 관한 교육

포용과 참여

- 18 사회적 결속을 위한 문화
- 19 예술적 자유
- 20 문화에 대한 접근성
- 21 문화 참여
- 22 참여적 과정

1970 1972 2003 2005 UNESCO Culture Conventions



- 9.1 양질의 인프라/공평한 접근
- 9.c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
- 10.2 사회적 포용
- 11.7 포용적인 공공 공간
- 16.7 참여적 의사 결정
- 16.10 기본적 자유
- 16.a 폭력 예방
- 16.b 비차별적 정책

문화 | 2030 지표는 또한 다음에 횡단적으로 기여한다:



5.5 여성 참여와 리더십
5.c 성평등 정책



17.9 역량 구축
17.16 글로벌 파트너십
17.17 공공, 민간, 시민사회 파트너십
17.19 지속가능성장 평가



지표 설명

이번 장에서는 4가지 주제별 차원과 이와 관련된 지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각 차원의 범위와 목적, 그리고 해당 차원과 연관된 SDG 세부목표에 대한 문화의 구체적인 기여를 간략히 소개할 것이다. 또한 각 지표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비롯해 데이터 출처, 상세한 산정 방법 및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다음 지표들은 '국가 및/또는 도시 수준'에서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 수준에서 적용되는 지표들은 특정 아이콘으로 표시된다(아래 참조). 일부 경우에는, 국가와 도시 수준의 데이터 출처가 달라도 두 가지 수준 모두에서 동일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이나 문화 양상이 국가 또는 도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 수준에만 적용되는 다른 지표가 제안된다.



도시 수준

또한 성별에 따라 해석이 다르고, 성별에 따라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는 지표는 다음의 아이콘으로 표시된다.



젠더





환경과 회복력

이 주제 차원은 지속가능한 장소에 대한 문화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며, SDGs의 세 가지 축 가운데 '지구'(Planet)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도시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차원은 유형·무형유산 및 자연유산을 지속가능발전의 지렛대이자 목적 그 자체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 제안된 지표들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이행 수준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민감한 계획'(culturally sensitive planning)을 세울 때 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전통지식의 포용을 고려해야 하는 증거를 제공한다. 또한 이 차원에서는 공공 공간과 문화 인프라를 비롯한 도시 환경의 질을 물리적/공간적 측면에서 평가한다.

문화는 다양한 SDGs와 세부목표에 걸쳐 환경과 회복력에 기여한다.

-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호 그 자체가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다(세부목표 11.4_문화유산과 자연유산).
- 무형문화유산과 전통지식을 정책과 전략에 통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회복력 있는 농업 및 천연자원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한다(세부목표 2.4_지속가능한 식생활과 농업).
- 자연유산의 보존은 세계유산의 중요한 요소로서, 특히 물 생태계, 해양지역, 육상 생태계 등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또한 무형문화유산과 전통지식은 지역사회의 생태계 관리 및 자연유산 보존을 위한 보호 계획 및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세부목표 6.6_물 관련 생태계, 세부목표 14.5_해양지역 보전, 세부목표 15.1_지속가능한 육상 생태계, 세부목표 13.1_기후 및 재해 회복력).
- 역사적으로 축적된 지역의 자연 건축 관행과 무형문화유산은 기후 관련 재해 위험을 줄이고, 회복력을 유지하며, 지역 사회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세부목표 13.1_기후 및 재해 회복력).
- 문화 관광과 생태 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핵심이며 환경 보호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정책과 방안은 국가, 지역, 지방 수준의 개발 계획, 메커니즘 및 전략에 통합될 수 있다(세부목표 12.b_지속가능한 관광 관리).
- 지속가능한 유산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 정책 및 전략을 통해 불법 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를 촉진해야 한다(세부목표 16.4_불법취득자산의 환수).
- 문화시설은 양질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 인프라의 일부를 형성한다. 역사적인 건축물, 공간,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현지의 자재와 상황에 기반한 '신중하고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은 도시 공간을 개선하고 문화 정체성을 강화한다. 국토 계획에 포함된 문화시설은 공공 공간의 다양성과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SDG 11의 여러 세부목표). 마찬가지로,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공공 녹지 공간은 사회적 응집력을 촉진하고 만남의 장소로 기능하여 양질의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세부목표 11.7_포용적인 공공 공간).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

35

환경과 회복력



설명	<p>SDG 11.4의 글로벌 지표: “모든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전, 보호, 보존에 사용되는 1인당 총지출 비용(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유산 유형별(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세계유산센터 지정유산), 정부 수준별(국가, 지역, 지방자치단체), 지출 유형별(운영 지출, 투자), 민간 자금 유형별(현물 기부, 민간 비영리 부문, 후원)” [유네스코 통계국(UIS)이 제공하는 방법론].</p>
목적	<p>이 지표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공공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취한 지역, 국가, 국제 수준의 금융 조치가 유산을 보존하고 도시와 인간 거주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이 지표는 대상인 유산을 측정하기 위한 대체 지표(proxy)다.</p>
데이터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데이터: 유네스코 통계국 • 국가 및 지역 데이터: 국가 통계기관, 행정 데이터, 특정 국가 조사, 문화 정보 시스템(이용 가능한 경우)
방법	<p>다음과 같이 데이터의 세분화가 필요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 유형별: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세계유산 • 정부 수준별(국가, 지역, 지방자치단체) 공공 지출 • 공적 지출 유형별(자본 지출, 운영 지출) • 민간 자금: 현물 기부, 민간 비영리 부문, 후원 $= \frac{(\sum \text{Exp}_{pu} + \sum \text{Exp}_{pr})}{\text{인구}}$ <p>PPC 지출 = 모든 문화유산 및/또는 자연유산의 보전(Preservation), 보호(Protection), 보존(Conservation)에 사용되는 지출 = 문화유산 및/또는 자연유산의 보전, 보호, 보존에 사용되는 모든 정부 차원의 공공(public) 지출 합계($\sum \text{Exp}_{pu}$) + 문화유산 및/또는 자연유산의 보전, 보호, 보존에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민간(private) 지출 합계($\sum \text{Exp}_{pr}$)</p>
의견	<p>이 지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국가의 회계 체계가 문화 활동, 자연 활동, 기타 활동을 명확하게 분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용도별로 금융 거래 채널이 다른 경우가 있다. • 금융 거래가 다른 공공 행정 차원에서 이중 집계되는 경우가 있다. <p>이 지표의 대상은 유산에 대한 공공 및 민간 금융 투자이다. 따라서 국가의 문화유산 및/또는 자연유산(세계유산 포함)의 보전, 보호, 보존을 위한 국가 규정이나 국가/지방 정책 등 금융 이외의 요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기부나 후원에 대한 세제 혜택처럼, 재정적 인센티브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p> <p>유네스코 통계국은 2018년 말까지 방법론 및 조사 도구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고, 2019년부터 새로운 글로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p>



설명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관행, 지식, 역사적 동산 유물을 보호 및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위한 체크리스트.
목적	<p>이 지표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분석해 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적 조치의 장단점을 개략적으로 보여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국제 등록과 목록 작성 •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유산의 보호, 보존, 관리 조치 • 유산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동원된 지원의 수준
데이터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데이터: 1972년, 1970년, 2003년 협약의 정기보고서 및 2011년, 2015년 권고에 따른 조사 데이터 • 국가 및 지역 데이터: 행정 데이터, 특정 국가 조사, 문화 정보 시스템(이용 가능한 경우)
방법	체크리스트에는 수치 및 '예/아니오'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의견	<p>이 지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속가능발전 정책(WH-SDP)'(2015)을 비롯한 유네스코 협약의 보고 체계에서 사용된 지표를 기반으로 아래 사항들이 보완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뿐만 아니라 대상 국가/도시에 있는 모든 유산 요소 포함 • 지역사회의 유산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 지역사회의 유산 정책 개발에 있어서 연간 동향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치 추가 <p>이 지표는 도시 및 국가 수준에서 모두 적용되지만, 일부 항목은 도시 수준보다는 국가 수준에 해당될 수 있다. 응답자는 데이터 제출 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orange;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도시 수준</p> <p>도시 유산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 및 보존을 보장하는 데 있어 예상되는 과정과 보호 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체크리스트. 아래와 같은 제한적인 요소들이 이 체크리스트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p> <p>이 지표는 '예/아니오'로 응답하는 체크리스트와 이를 증명하는 적절한 증거로 제시된다. 일부 도시의 경우, 전체 도시 면적에 대한 보호 대상 면적(m²)의 비율 등 공간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다.</p> <p>'보호' 대상은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된 유적지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의 목록에 있는 모든 유적지를 포함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p> </div>

지속가능한 유산 관리 체크리스트

A) 국가와 도시 수준

국가 수준의 응답자는 아래 지표들의 모든 항목을 작성해야 하고, 도시 수준의 응답자는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에 작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시에 한 개 이상의 세계유산지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지방 당국이나 도시 당국은 그 도시를 국가적인 맥락에서 파악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항목을 작성할 수 있다. 응답은 '예/아니오' 또는 정량화된 수치로 해야 한다. 응답에 해당되는 칸은 아래 표에서 회색으로 표시되지 않은 칸이다.

표 2(A). 지속가능한 유산 관리 체크리스트 — 국가와 도시 수준

	참고 협약	예/아니오	수치	증거
1. 등록, 목록 작성 및 조사				
국제 수준				
지난 5년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기 위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대한 잠정목록 또는 목록을 작성하거나 업데이트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또는 복합유산 지역 등재(등재 건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종목(등재 건수)				
유네스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종목(등재 건수)				
국가 수준				
국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등록부 또는 목록의 존재 (목록에 있는 유산 건수)	1972년 협약			
→ 지난 5년간 이 등록부 또는 목록은 업데이트되었나요? (최종 업데이트 날짜)	1972년 협약 - 1970년 협약 / 질문 20			
국가 또는 지방 수준의 무형유산 목록의 존재 (목록에 있는 유산 건수)	2003년 협약			
→ 지난 5년간 이 목록은 업데이트되었나요? (최종 업데이트 날짜)	2003년 협약			
보호 대상 문화재 (국가 및 지방) 목록에 포함된 유산 건수	1970년 협약			
→ 지난 5년간 이 목록은 업데이트되었나요? (최종 업데이트 날짜)	1970년 협약			
전 세계의 경찰, 세관원, 박물관, 경매 회사, 미술품 거래상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목록 중에 박물관, 종교기관 또는 공공 기념관에서 도난당한 문화재의 목록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존재	1970년 협약 / 질문 18			

표 2(A). 지속가능한 유산 관리 체크리스트 — 국가와 도시 수준

	참고 협약	예/아니오	수치	증거
→ 지난 5년간 이 등록부 또는 목록은 적어도 1회 이상 업데이트되었나요? (최종 업데이트 날짜)				
지난 5년간 과학적, 기술적, 예술적 연구 결과가 유산 보호를 위해 사용되었나요? (실행 건수 및 사례)	2003년 협약 / 지표 9.1 및 11.3			
2. 보호, 보존 및 관리				
제도적 및 정책적 틀				
유산의 보존과 증진을 위한 국가 수준의 집행력이 있는 기관의 존재	1972년 협약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 수준의 집행력이 있는 기관의 존재	2003년 협약 / 지표 1.1			
문화재 및 동산유산의 불법 거래에 대응하는 경찰과 세관 내 전문 부서의 존재	1970년 협약			
분쟁 시 문화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군대 내 전문 부서의 존재	1954년 협약 / 제3조: 질문 1 제7조: 질문 2			
지난 5년간 채택되어 목록화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정책/조치(채택일 및 증거)	1972년 협약			
지난 5년간 채택된 고고학적 발굴의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정책/조치(채택일 및 증거)	1954년 협약			
지난 5년간 채택된 보호 대상 문화재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정책/조치(예: 문화재 반출과 취득 규제 방안 등) (채택일 및 증거)	1970년 협약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1954년 헤이그협약의 제2차 의정서(1999)에 따라 문화재를 해치는 행위를 저지른 자의 기소 및 처벌을 위해 국내에 법적 틀을 수립했나요? (채택일 및 증거)	1954년 협약과 제2차 의정서 형사적 책임 및 사법권			
지난 5년간 밀렵에 대한 유죄 판결 수	1972년 협약			
관리 계획과 메커니즘				
유엔 개발원조 프레임워크(UNDAF) 및 지속가능발전 계획 등 현재의 국가개발계획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유산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 언급(계획일)	1972년 협약			

표 2(A). 지속가능한 유산 관리 체크리스트 — 국가와 도시 수준

	참고 협약	예/아니오	수치	증거
지난 5년간 자세히 검토하였거나 업데이트한 지방, 국가, 국제 수준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문화유산 관리 계획(공개일 및 증거)				
지난 5년간 자세히 검토하였거나 업데이트한 지방, 국가, 국제 수준의 등록 유산지역 관리 계획(공개일 및 증거)	1972년 협약 / 지표 8			
→ 전체 과정에 대한 성별 기여와 참여 를 명시하는 지침이 관리 계획에 포함(증거 및 위원회와 협의회의 성비)	1972년 협약 / 지표 28 및 29			
→ 관리 계획에 방문객, 관광 활동 과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는 섹션 포함	1972년 협약 / 지표 22			
→ 관광 이익이 지역사회와 공유되고 있다 는 증거(예: 일자리 창출 수, 지역 기업의 유산 수입, 지방의회의 유산 세입 등)	1972 협약 / 지표 23			
→ 지난 5년간 지역사회의 관습적 권리, 관행, 표현 을 보여주는 증거(특히 윤리적 원칙, 실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목록 작성)	위원회 문서 ITH-17-12 com. WG 및 지표 13-14			
지난 5년간 전통적 형태의 토지 소유권과 토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검토한 관리 계획/정책/조치의 증거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디지털화 프로그램 및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아카이브 및 홍보) (실행 중인 박물관 및 미술관 수)	박물관 권고사항			
지난 5년 이내에 유산에 미치는 영향(부정적/긍정적)을 검토한 증거 (검토일 및 종합적인 결과 서술)	1972년 협약 / 지표 5			
3. 전승과 지원 확보				
기타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지난 5년간 유산 보호, 보존, 전승에 시민사회 및/또는 민간 부문을 참여시키기 위해 시행한 구체적인 조치(채택일)				
유산지역의 보호, 보존, 전승을 위해 관광업체와 맺은 공식적인 협정의 존재 (합의 수)				
유산 옹호를 위한 활동 및 보호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 재단 또는 단체의 존재 (재단 및 단체 수)				

표 2(A). 지속가능한 유산 관리 체크리스트 — 국가와 도시 수준

	참고 협약	예/아니오	수치	증거
보급과 경험 공유				
이행 경험 및 모범 사례를 특히 유네스코 사무국과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유했나요?	2003년 협약 / 모범 사례 프로젝트 선정을 통해, 1954년 협약 / 제5조 2005년 협약			
국가 유산 담당 기관이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하고 있나요?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일)				
유산 관리자, 시민, 시민사회에 유산 보호의 모범 사례를 장려하고 보급하는 프로그램의 존재	1972년 협약 / 지표 42 2003년 협약 / 지표 19.3			

B) 도시 수준에서만

아래 항목은 도시 또는 지방 수준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표 2(B). 지속가능한 유산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 도시 수준에서만

	참고 협약	예/ 아니오	수치	증거
역사적인 도심 지역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나요?				
역사적인 도심 지역이 지도에 나타나 있나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지/건축물의 등록부를 보유하고 있나요?				
역사 지역에 대한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최종 업데이트 날짜) 그리고 이 계획은 이행 및 집행되고 있나요?				
아래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 를 나타내는 증거 I. 유산 후보지의 초기 목록 작성 II. 유산지역 등록 문서 작성 III. 목록에 등재된 유산지역 관리	2003년 협약			
역사적인 도심 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이 들어설 경우, 영향 평가 ⁴ 의무적인가요?				
건축물 철거 또는 신축 시 역사적/고고학적 조사의 의무화 에 대한 증거				
관광 관리를 위해 채택된 수용능력 계획 (Carrying Capacity Plans)에 대한 증거				
2011 「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 」가 이행되고 있는 범위(도시 개발에서 유산 보호 정책 또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 권고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기술해주세요.)	1972 협약 / 지표 19			

* 체크리스트에 대한 응답에는 '예/아니오' 또는 수치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함.



젠더 측면

응답자는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요소를 비롯해 아래와 같은 유산 관리 및 영향의 젠더 측면을 평가해야 한다.

- ▶ 각종 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성비
- ▶ 계획들은 유산 관리에 있어서 여성의 특정한 관심사항을 고려하고 있는가? (예: 전통적으로 여성에 의해 사용된 역사 유적지, 도심지 등)

3

기후 적응과 회복력



설명	기후 적응 프레임워크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특히 회복력을 위한 전통적인 관행을 포함한다.
목적	이 지표는 유형·무형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보호와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촉진하고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데이터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데이터: 1972년 협약과 2003년 협약의 정기보고서 • 국가 및 지역 데이터: 행정 데이터, 특정 국가 조사, 문화 정보 시스템(이용 가능한 경우)
방법	이 체크리스트에는 수치 및 '예/아니오'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의견	<p>이 지표는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2015-2030」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후변화 정책」(2008, 최신판 예정) 등 유네스코 협약에 대한 보고에서 사용된 지표를 바탕으로 아래 사항들이 보완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뿐만 아니라 대상 국가/도시에 있는 모든 유산 요소를 포함 • 지역사회의 유산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 지역사회의 유산 정책 개발에 있어서 연간 동향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치 추가

도시 수준

이 지표는 도시와 국가 수준에서 모두 적용되지만, 일부 항목은 도시 수준보다는 국가 수준에 해당될 수 있다. 응답자는 데이터 제출 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체크리스트는 두 가지 섹션, 즉 기후 적응과 회복력을 위한 제도적 틀, 그리고 전통지식이 회복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지표는 역사지구 내 신규 건축물이 지속가능하고 자연적이며 전통적인 건축 기법과 자재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측정한다.

도시계획 정책 지침, 도시계획 목록, 지정 역사지구의 개발 모니터링 등의 데이터는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 얻을 수 있다.

3



도시 건축 측면에서 SDGs는 지속가능한 건축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건축물' 또는 '자연 건축물'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용어집' 참조). 이 두 용어는 에너지 비용이 낮고 콘크리트 등의 인공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건축 자재를 의미한다. 수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재를 현지에서 조달 및 가공하는 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는 일과 연관될 수 있다. 또한 도시의 문화지구 및 역사지구와 관련해서는, 건축 자재, 건축 기법 및 건축 양식이 해당 지역의 역사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 건축물은 현지에서 조달된 자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물론, 높은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원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기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은 지역 또는 '토착' 양식에 의한 주택 건축인데, 예를 들어 미국 남서부 도시들의 공공 시설에 사용된 '현대적인' 어도비(adobe: 모래, 찰흙, 물 또는 특정한 종류의 섬유나 유기 물질로 만들어진 천연 건물용 재료) 벽돌 기법 등이 있다. 새로운 건축물 공사에는 전기 배선, 주방/욕실 시설 외에도 외관상으로는 '전통적'이 아닌, 에너지 절약 대책(예: 태양전지판) 등 일정 수준의 '현대적'인 설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축물의 전체적인 외관과 구조가 해당 역사지구의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기후 적응과 회복력 체크리스트

A) 국가 수준에서만

아래 항목의 대부분은 지방이 아니라 국가 수준의 사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지표를 지방/도시 수준에서 평가할 경우, 응답자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다.

표 3(A). 기후 적응과 회복력 체크리스트 — 국가 수준에서만

	참고 협약	예/아니오	수치	증거
제도적 및 정책적 틀				
유산 및 그 요소에 대한 국가 재해위험감소계획 의 존재(사례 첨부)	1972년 협약 / 지표 20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가 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책 문서 의 존재	1972년 협약 / 지표 21			
→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위협에 대한 주민 및 생태계의 노출이나 취약성 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이 시행한 자연유산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세계유산리뷰』(World Heritage Review) 77호(70-73쪽) / ‘유네스코 기후변화 행동전략’			
지난 5년간 유산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을 검토한 증거 ⁵	1972년 협약 / 지표 3(추세 요인)			
지난 5년간 유산에 대한 자연재해의 영향 을 검토한 증거	센다이 프레임워크 우선순위 1: d) 2003: 지표 13.3			
지난 5년간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국유림과 해양 유산지역 의 기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검토한 증거	『세계유산리뷰』 77호(70-73쪽) / ‘유네스코 기후변화 행동전략’			
기후 적응이 유산 요소와 관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평가에 있어서 전통 지식 및 지역사회의 지식 을 고려한 정책/조치에 대한 증거 ⁶	센다이 프레임워크 우선순위 1: i) 2003년 협약 / 지표 15.3			
지역 자원의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에 있어서 여성의 특정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증거				
유산 보호에 활용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 의 수	2003년 협약 / 지표 9.2			
유산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나 조치에 대한 증거(에너지 소비, 쓰레기 등)	1972년 협약			

B) 도시 수준에서만

표 3(B). 기후 적응과 회복력 체크리스트 - 도시 수준에서만

	참고 협약	예/아니오	수치	증거
회복력을 위한 전통지식과 문화 관행				
유산 및 그 요소에 대한 지방의 재해위험 경감계획 의 존재(사례 첨부)	1972년 협약/ 지표 20			
지방 및 국가 기관이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또는 자연적인 건축 자재의 사용 기술에 대한 훈련 과정의 예	센다이 프레임워크 우선순위 4: 효과적인 대응 및 회복, 복구, 재건에 있어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한 재해 대비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프레임워크.			
지속가능한 또는 자연적인 건축 기법에 대한 훈련 의 증거(훈련 과정 수, 훈련생 수, 실습 건수)				
지속가능한 건축 기법을 실행하는 공인된 전문가 의 추세/비율				
지속가능한 또는 자연적인 기법/자재로 지어진 건축물 수에 대한 추세(모든 신규 건축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모든 사람과 지역사회의 지식, 전통, 관행 등을 비롯한 문화적 요소를 환경적 지속가능성 에 관한 지역 전략에 통합한 증거				
지식, 전통, 관행 등을 비롯한 문화적 요소를 농업 전략 에 통합한 증거				
문화 생산과 예술 관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및 구상을 보여주는 증거				
기후 적응과 회복력에 관한 경험과 모범 사례 를 특히 유네스코 사무국을 통해 공유했나요?				

* 이 체크리스트에 대한 응답에는 '예/아니오' 또는 관련 데이터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문서(조직 구조, 회의록, 완료 사업의 보고서 등)가 포함되어야 함. 제안서, 초안 문서, 혹은 이행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허용되지 않음.



젠더 측면

응답자는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요소를 비롯해 다음과 같은, 기후변화 관리 및 영향의 젠더 측면을 평가해야 한다.

- ▶ 각종 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성비
- ▶ 특히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



설명

공간 지도의 작성을 통해 문화시설의 분포 파악.

이 지표는 지역적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문화시설의 다양성과 분포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구, 교통, 행정 및 경제 중심지와 연계하여 문화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목적

이 지표는 문화시설이 도시 경관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평가하고, 지역사회가 문화 행사에 참석, 실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문화 전문가와 문화 관련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문화시설이 어떻게 제공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지표 20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이 지표를 이용해, 문화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이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공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데이터 출처

- 유네스코 데이터: 유네스코 통계국(UIS)
- 국가 및 지역 데이터: 행정 데이터

공간적 분석

도시의 경우, 문화시설에 대해 보다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다. 우선 고려해야 할 요인은 다음과 같다.

다양성. 도시에는 어떤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있는가?(표 4 참조)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이 있는가? 지역 문화의 특정 요소에 초점을 맞춘 시설(과학사 박물관, 지역의 과학자나 작가를 위한 전용 박물관 등)이 있는가? 특히 소규모 지역사회에서는 많은 건물들이 각각의 기능(예를 들면 도서관/박물관/극장 등)을 가지고 있다. 반면, 대도시의 '창조 허브'에는 민간 기업, 공공서비스센터(자원센터, 상담센터 등), 심지어는 공연장까지 모두 하나의 건물에 있는 경우도 있다.

방법

수용능력. 각종 시설의 좌석 수나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극장이나 도서관 등 많은 건물은 좌석 수로 표시된다. 도시 내 여러 지역사회를 위한 대형 극장과 소규모 극장이 있는가? 여기서 '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층별로 다양한 기능에 따라 여러 개의 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면적. 다양한 문화적 기능을 위해 전용으로/이용 가능하도록 건축하거나 개방한 총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건물은 여러 층에 걸쳐 다양한 기능에 따라 여러 개의 방을 갖추고 있을 수 있다. 또한 문화 활동은 건물 안팎에서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복합에 솔단지에는 여러 개의 내부 및 외부 공간이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자료 출처로는, i) 토지이용계획이나 행정 데이터, 또는 이 둘을 모두 활용하여 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ii) 건물과 공간의 유지 보수를 위한 행정 기록이 있다. 대도시에서는 토지 이용, 교통, 행정적인 목적으로 GIS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저개발국가 도시들은 이 지표를 산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 문화시설의 분포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단순한 수준의 경우, 문화 활동은 지역사회의 정체성 구축에 기본이 되므로, 지역사회(인근 지역, 행정구)마다 문화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큰 공연장(예: 국립극장)은 먼 곳의 관객을 유치할 수 있고, 또 매우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좀 더 발달된 도심지의 경우, 당국은 공간 분석(모델 또는 GIS)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교통 경로와 연관 지어 문화시설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환경은 '원거리'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문화 행사에 참가할 의욕을 잃게 하는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아래 표 4는 열린 공간을 포함한 각종 문화시설과 더불어, 시설 유형, 측정 요소(기관 수, 산출물, 재정, 방문객 수), 그리고 이들을 측정하는 지표를 보여준다.

표 4. 문화시설에 관한 지표의 대응표

문화시설	대응하는 지표 번호			
	기관 수	경제 산출물	공공 재정	방문객/이용객 수
도서관	4	6*	11	21
박물관	4	6*	11	21
미술관	4	6*	11	21
공연장	4, 6, 8	6*	11	20, 21
영화관 ⁸	4, 6, 8	6		20, 21
전통 문화공간	4, 5		1	21*
창조 허브	4, 8	6*	6	7
교육기관			11	15, 16
문화 인터넷 사이트			6	21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에는 경제 산출물(GNP에 대한 기여도)이 항상 완전하게 측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EU에서는 이 부분이 BACH(<https://bach.banque-france.fr/?lang=en>)에 포함되어 있다). 창조 허브에는 대체로 영세 사업체가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출물은 '집합적'이거나 또는 개별적 사업체에 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어떤 경우든 창조 허브의 산출물은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젠더 측면

이 지표는 문화시설의 질을 다룬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이 젠더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 ▶ 문화시설 관리위원회의 성비
- ▶ 남성과 여성의 요구를 동등하게 충족시키는 문화시설의 이용가능성
- ▶ 문화시설 방문객의 성비(표 4 참조)

남성과 여성은 문화적 관심이 서로 다른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그들이 방문하는 시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와 같은 양상은 참여도 조사(지표 21 '문화 참여')에서 나타나지만, 여기서 제시한 공간 분석(GIS, 네트워크 등)에서도 드러난다.



설명	문화적인 목적을 위한 열린 공간의 수와 규모를 사용 유형별로 평가.
목적	이 지표는 열린 공공 공간의 범위, 공간의 특성 및 공공 이용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전통시장 포함).
데이터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데이터: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 열린 공공 공간 전략 SDG 11.7.1 • 국가 및 지역 데이터: 행정 데이터
방법	<p>아래와 같이 몇 가지 측정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열린 공공 공간 중에서 '열린 문화공간'의 면적(m², ha)이 차지하는 비율 • 모든 열린 공간 중에서 '열린 문화공간'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 • 문화통계체계(FCS)의 차원별 분류에 따른 열린 공간에서의 문화 행사 구성 비율

의견

도시 수준에서만

이 지표는 SDG 11과 유엔 해비타트의 모니터링 제안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유엔 해비타트에서는 열린 공간의 수, 면적, 다양성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반해, 이 지표는 열린 공간이 어느 정도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고, 실제로 문화 활동에 사용되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에서 접근성이 좋은 열린 공간은 아래와 같이 문화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다.

1. 다양한 민족 또는 기타 소수집단(예: 홍콩에 있는 필리핀 출신 가정부)의 공식 및 비공식 문화 모임
2. 가사 근로자 등의 축제, 음악 콘서트, 야외 극장, 국가/지역의 명절 축하 행사
3. 농촌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농산물이나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 표현을 반영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도시로 진출해서 형성한 시장 등
4. 공연을 위한 무대 구성을 포함하는 공간(예: 야외 무대)
5. 자연유산(경관, 야생생물), 건축유산, 무형유산(축제, 지역 음식, 경연대회) 등의 유산 활동

열린 공간의 정의. 정책 입안 시 '열린 공간'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된다. 열린 공간은 용도 면에서는 '오락용'이 되기도 하고, 보존 목적으로는 '보호'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용도는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지표에 의거해 유네스코가 측정하고자 하는 유산과 문화 활동의 범위는 상충될 수도 있다.

'문화 행사'는 행사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처음에는 유네스코 FCS의 영역별 분류 방식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엔, 많은 행사들이 한 가지 영역인 '공연과 축제'(Performance and Celebration)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주요 예술 분야(음악, 무용, 연극, 기타 등)에 따라 더욱 세부적으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요 축제와 행사에서는 공연 유형, 방문객 프로필, 방문객 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수집된다. 수집된 데이터는 이 지표의 분석과 해석에 중요하다. 관광업의 역할과 방문객 수는 정책 입안자와 시민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의견

‘문화적’ 요소가 있는 시장에는, FCS에 의해 ‘문화 생산물’로 정의되는 품목이 판매되거나, FCS에서 정의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포함된다.

측정 문제. 유엔 해비타트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해 면적을 측정하여 이 목표를 모니터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간적 평가를 활용하면 이 목표의 지표 전반에 대해 ‘문화적 이용’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 활동이 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알 수 있다. 열린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화 활동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리 조사(street survey)가 필요하다.⁹

현재 유엔 해비타트는 이 지표 분석에서 두 가지 글로벌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데, 하나는 거리 조사를 포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리 조사를 제외하는 것이다.¹⁰ 시장에 대한 지표는 선정된 도시 지역의 전통시장 대 슈퍼마켓의 비율(등록된 전통시장의 수/등록된 비전통시장의 수)로 측정될 수 있다.

도시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은 다양한 문화 집단, 특히 소수집단과 농촌 지역사회가 그들의 생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전통시장은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도시 환경과 경제에 강력한 문화적 요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판매가 도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 지표는 정해진 지역 내의 등록된 시장에서만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전통시장’의 개념은 이 보고서에 수록돼 있는 ‘용어집’에 정의되어 있다. 도시의 정해진 공간에서 열리는, 이와 다른 모든 등록된 시장은 ‘비전통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 지표는 이 두 그룹 간의 비율을 기록한다.



젠더 측면

젠더 측면은 무엇보다도 다음의 두 가지 특정 요소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

- ▶ 문화공간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장벽(예: 접근 제한)과 간접적인 장벽(예: 안전하지 않은 환경)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공간은 남성과 여성에 의해 동등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지표 4 ‘문화시설’ 참조).
- ▶ 문화공간에서 열리는 행사(예: 공연, 시장)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예: 시장 노점의 소유권).



C 번영과 생활

이 주제 차원은 SDGs의 세 축 가운데 하나인 '번영'(Prosperity)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화 상품, 서비스 및 사업을 통해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고 수입을 증대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추진을 가능케 하는 문화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틀을 제공한다. 이 두 번째 주제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는 7개의 지표는 경제의 핵심 요소(GDP, 무역, 고용, 사업, 가계 지출 등)에 대한 문화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문화 부문 활동을 관장하는 제도적 구조와 틀은 국가마다 다르고, 문화의 기여가 포용적인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화 거버넌스 지표도 이 차원에 포함된다. 이 지표는 국가 및 지역의 경제 발전과 생활 향상에 있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문화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는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문화는 다양한 SDGs 및 세부목표에 걸쳐 번영과 생활에 기여한다.

- 문화부문은 GDP, 일자리 및 기업 창출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유산 보존 분야, 유산 관광 및 창의 부문에서 두드러진다(세부목표 8.3_일자리, 기업가정신 및 혁신).
- 특히 유산 관광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와 특산품을 홍보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세부목표 8.9_지속가능한 관광 정책).
- 또한 공공 정책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물론 박물관, 커뮤니티센터, 미술관 등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해 경제 활동과 고용 기회를 장려할 수 있다(세부목표 11.4_문화유산과 자연유산).
- 문화 거버넌스는 문화 활동과 관습이 번창하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문화의 경제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정책과 규제를 통해 보다 공정한 국제 무역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세부목표 10.a_무역에 대한 우대 조치 및 세부목표 8.a 무역을 위한 원조 증대).





설명	민간 및 공식 문화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목적	<p>이 지표는 특정 지역의 경제에 대한 문화 부문의 전반적인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지표의 한 가지 한계점은 비공식적인 활동이나 무상 활동을 비롯한 모든 문화 활동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p> <p>이 지표는 문화통계체계(FCS)의 국제 분류 체계를 따른다.</p>
데이터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및 지역 데이터: 국민계정, 사업체 조사 및 인구 조사, 서비스 및 상업 조사, 정부 기록물, 문화 분야 특별 조사, 예술가 등록부, 민간 부문의 자료(예: 노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의 특별 조사)
방법	<p>GDP 중에서 문화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통계국의 FCS(UNESCO-UIS 2009, 52-64쪽)에 포함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통계 코드를 사용하여 얻은 값을 더한 다음, 이 합계를 지역 경제의 GDP와 비교한다. CGDP는 문화 부문 GDP이다.</p> $CGDP = \frac{\sum_1^n GVA_{isic\ codes}}{GDP}$ <p>여기서 GVA(총 부가가치)는 [GDP + 보조금 - (직접, 판매)세]이다.</p>
의견	<p>이 지표는 문화의 경제적 기여도를 평가하는 '표준' 지표이다. 여기에는 ISIC의 네 자릿수로 이루어진 코드의 데이터 또는 동일한 산업 산출물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지표는 문화발전지표(CDIS)에서 사용됐지만, UIS/FCS의 경우에는 제한된 코드 목록에서만 사용되었다. 현재 이 지표는 문화 및 창의 경제의 일부로 확인되는 모든 코드에 적용이 되어, 유네스코 FCS에서 확인되는 문화 영역별 결과를 세분화하고 있다. 이 지표에는 비공식경제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측정값은 항상 실제보다 낮다(지표 7 '문화 고용' 참조).¹¹ 이 방법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CDIS 방법론 메뉴얼』에서 찾을 수 있다(CDIS, 24-25쪽).¹²</p>

6



의견

도시 수준에서만

도시 지역의 GDP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선호하는 순서대로 다음 데이터를 대신 사용해야 한다.

1. 부가가치액
2. 매출액

생산 활동 수준에 관한 지표를 문화의 경제적 평가에 어떤 형태로든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가치는,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요소들(원재료, 노동력 등)의 전반적인 경제적 가치가 문화 생산을 통해 얼마나 덧붙여지는가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GDP와 유사하다. 도시 수준에서는 부가가치를 측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GDP와 마찬가지로, 투입물 또는 산출물이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도시 지역의 생산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 또한 도시 수준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GDP를 계산할 때 세금과 보조금을 참작하기도 한다.

도시에 기반을 둔 기업/사업체의 매출액은 생산 과정의 투입물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체 생산 수준만을 측정한 것이다. 매출액은 도시 지역 내에서 일어난 활동만을 포함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대상 도시 내의 공장(사업장)에 의한 생산과 국내 다른 지역의 공장(사업장)에 의한 생산을 분리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은 기업 본사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높은 수도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본사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지만, 전국의 모든 지사의 활동을 본사 사업장과 연관시켜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요약하면, 도시 수준에서 이 지표의 전반적인 목표는 도시 지역에 있는 문화 사업체의 생산이 도시의 전체 경제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지표를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는 가구 조사가 아니라 사업체 조사에서 나와야 한다. 단, 가정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예: 많은 예술가들이 여기에 해당)의 경우는 예외다.



최근 1년간 전체 고용에서 문화·창의 부문 및 문화 관련 직업에 고용된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

$$CEP_0 = \frac{\sum_1^n CE_{isico\ codes}}{EP}$$

CEP₀는 문화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설명

CE_{isico} 코드는 선택된 국제표준직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 코드 또는 국제표준산업분류(SIC) 코드(직업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 문화 관련 직업에 고용된 총 인원수다.

EP는 총 고용 인구수다.

목적

이 지표는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고용주'로서의 문화의 역할을 비롯해, 문화 부문의 활기와 역동성, 그리고 문화 종사자들의 물질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데이터 출처

- 유네스코 데이터: 유네스코 통계국(UIS)
- 국가 및 지역 데이터: 국민계정, 인구 조사, 노동력 조사(Labor Force Survey), 행정 기록(예: 사회보장 등록부 등), 전문가 단체

문화 고용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그룹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CDIS, 28쪽; FCS, 40쪽¹³).

표 5. 문화 고용의 구성 요소

	문화 사업체	비문화 사업체
문화 관련 직업	A	B
비문화 관련 직업	C	

방법

- 문화 관련 직업에 종사하면서 문화 활동을 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예: 연극 배우 등)
- 문화 관련 직업에 종사하지만 문화 활동을 하지 않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예: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디자이너 등)
- 문화 사업체에서 일하지만 문화 관련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예: 극단에서 일하는 회계사 등)

이 지표는 전체 고용인 수에서 이 세 그룹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의견

도시수준

이 지표는 유네스코 통계국의 FCS(UNESCO-UIS 2009, 74-77쪽)에 의해 규정된 문화 코드와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의 네 자릿수 코드를 이용하여 산출된 기술적(descriptive)이고 맥락적인 지표이다.

문화 관련 직업 데이터는 통상 노동력 조사를 통해 수집된다(표 5의 그룹 A와 B). 또한 노동력 조사는 문화 부문이나 기업체에서 비문화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수(표 5의 그룹 C)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지만, 때때로 사업체 조사나 기업 등록부를 통해 이 그룹의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FCS는 문화 관련 직업과 문화 부문을 식별하기 위한 코드 목록을 제공한다. 직업은 ISCO에 따라, 부문(사업 활동)은 ISIC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사업체 조사와 가구 조사의 대상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체 조사는 대상 지역에서 일하지만, 그 곳에 거주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기록한다. 반면, 가구 조사(예: 노동력 조사)는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록하지만, 직장을 위해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 지표에는 비공식경제의 '문화' 관련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나 문화 관련 부업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실제보다 낮게 평가된다.¹⁴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에 37개국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공식경제 조사 방법론을 개발했다.¹⁵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¹⁶

문화 고용의 동향은 종종 이 지표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 노동력 조사는 일반적으로 3개월마다 수집된다(연 4회). 이 빈도가 중요한 이유는 축제 등과 같은 문화 활동이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젠더 측면

이 지표는 노동력 조사를 이용하여 성별은 물론 연령, 민족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불리한 상황별로 쉽게 세분화될 수 있다.



설명	문화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추세.
목적	이 지표는 특히 지표 6 'GDP 내 문화 비중'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문화 관련 사업체 수의 추세를 추적함으로써 문화 사업체(특히 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우호적인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다.
데이터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역 데이터: 사업체 조사, 기업 등록부(상공회의소, 부문별 단체 등)
방법	<p>대상 지역의 전체 사업체 중에서 문화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의 연간 차이(%p로 나타낸 수치)로 변화의 수준을 측정한다.</p> $CE/\Sigma E*100\{Year\ 2\}-CE/\Sigma E*100\{Year\ 1\}$ <p>여기서 CE는 문화 사업체 수이고, ΣE는 대상 도시의 전체 사업체 수이다.</p>
의견	<p>이 지표는 유네스코 FCS(52-64쪽)의 부문별 정의(ISIC)를 바탕으로 '문화 기업'의 수를 단순히 집계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 지표보다 더 미묘한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지표 6(생산) 및 지표 7(고용)이 선호된다. 예를 들어, 이 지표는 생산/산출 수준이나 고용인 수 측면에서 모두 회사의 규모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와 같은 데이터가 부족하더라도, 이 지표는 문화 사업체의 유형 변화를 전반적으로 요약한 정보(예: 하위 부문의 균형, 집중 분야, 클러스터화 등)를 제공할 수 있다.</p> <p>이 지표를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연도별 동향을 그래프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 그래프를 사용하여 하위 부문별 동향을 보여주거나 또는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5년간의 동향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다.</p>

8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

56

번영과 생활



젠더 측면

사업체 소유권은 가능하면 성별로 평가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고위 관리자와 이사의 성비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소규모 회사와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소유권의 성비를 측정한다.



설명	총 가계 지출 중 문화 활동, 상품, 서비스 지출의 비율.
목적	이 지표는 대상 지역의 가구들이 문화 상품과 서비스를 어느 정도 중요시하는지를 시장 거래를 통해서 평가하고, 문화 활동, 상품, 서비스에 대한 지역 시장의 규모와 잠재력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및 지역 데이터: 산업 조사 및 인구 조사, 서비스 조사, 소규모 사업체 조사, 가계지출 조사 <p>CHFC는 총 '가계최종소비지출' 중에서 문화 활동, 상품, 서비스에 사용된 '가계최종소비지출'을 뜻한다.</p>
방법	<p>HCSCOICOP 코드는 선택된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 COICOP) 코드 중에서 총 가계지출액을 나타낸다.</p> <p>HFC는 총 '가계최종소비지출'이다.</p> $CHFC = \frac{\sum_1^n HCS_{coicop\ codes}}{HFC}$
의견	<p>이 지표는 문화 참여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가구의 모든 문화 소비 및 지출 관점에서 본, 국민생산에 대한 문화의 기여를 모두 평가하지는 못한다. 이는 대부분의 비시장 생산물이 제외되고, 가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문화 생산물(예: 디자인 서비스, 광고 등)에 대한 지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p> <p>이 지표는 국가 가계지출 조사에서 사용되는 유네스코 통계국(UIS) 문화통계체계(FCS)(UIS-FCS, 34쪽)의 COICOP 코드를 기반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일부 지역 조사는 예를 들어 '외출' 활동에 지출한 금액(가령, '쇼' 티켓 구입)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에 기초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2018년에 COICOP에 대한 중요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FCS 개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¹⁷</p> <p>문화에 대한 지출을, 동일한 기준 기간 동안의 총지출 중 차지하는 비율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 기간은 계절적인 편차(예: 야외 활동의 비율은 여름에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 수준의 가계 조사를 활용하면, 지출을 훨씬 더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p>



젠더 측면

대부분의 가계지출 조사는 가구를 하나의 단위로 삼아 지출을 분석하므로 성별로 분리할 수 없지만, 일부 조사에서는 가족 지출의 서로 다른 측면(예: 지역 시장에서 식료품 구입 등)이 고려되고 있다. 후자의 상황에서는 성별에 따른 문화 지출 패턴을 식별할 수 있다.



설명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목적	이 지표는 경제적 수요, 국가/도시의 문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측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 환경 등을 모두 반영하여 '문화적 표현' 상품이 수출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데이터: 유네스코 통계국(UIS) • 국가 및 지역 데이터: 국가 관세 및 수입 보고서가 선호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유엔의 국제상품무역통계(COMTRADE) 데이터베이스(comtrade.un.org)가 권장된다.
방법	<p>a. 문화통계체계(FCS)에 나열된 코드[가능한 경우 품목분류제도(HS) 코드]를 사용하여 물리적 문화 상품의 수출액이 전체 물리적 상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평가한다. 수출액과 수입액은 미화(권장) 또는 각국 통화로 나타낸다.</p> <p>b. FCS(39쪽)에 나열된 코드[가능한 경우 서비스무역세분류(Extended Balance of Payments Services classification, EBOPS) 통계]를 사용하여 문화 서비스 수출액이 전체 서비스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평가한다. 수출액 및 수입액은 미화(권장) 또는 각국 통화로 나타낸다.</p>
의견	<p>물리적 상품은 각국에 의해 유엔 국제상품무역통계(COMTRADE)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입수는 매우 용이하다.18 COMTRADE에 포함된 물리적 제품과 상품은 HS 및 국제표준무역분류(International Standard Trade Classification, ISTC) 코드로 분류되며, 이 중 권장되는 것은 HS 코드다.</p> <p>서비스는 EBOPS 코드로 분류되지만, 국제기구(IMF, UNCTAD, 유네스코, WTO 등)에 데이터를 제출한 국가는 거의 없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현재 일련의 지표에 기초한 보고는 물리적 제품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각국은 EBOPS에 상응하는 국가 분류 제도를 사용하여 문화 서비스에 관한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다.</p> <p>EBOPS, HS, ISTC에서 문화 및 창의 활동 분류와 일치하는 코드는 UIS의 FCS에 나열되어 있다. 이 지표는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국가의 문화 상품의 중요성을 측정한다. UIS는 이러한 무역에 대한 평가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19 또한 UIS는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중이고, 이 데이터는 2019년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매년 업데이트될 예정이다.</p>

10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

58

번영과 생활



설명	문화 및 창의 활동에 사용되는 공공 지출 비율 및 문화 및 창의 부문에 대한 연간 공공 예산과 지출.
목적	이 지표는 문화 및 창의 활동에 대한 실제 공공 지출액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지출액 데이터가 배정 예산 데이터보다 더 선호되는데, 그것은 지출액을 배정 예산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출 자료가 없으면 그 대신, 예산액을 제시할 수도 있다.
데이터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역 데이터: 행정 데이터, 특정 국가 조사, 문화 정보 시스템(이용 가능한 경우)
방법	<p>문화를 위한 공공 지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 자료가 필요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단위별 공공 지출 • 공공 지출의 유형(자본 투자, 운영 비용) • 주민 1인당 공공 지출 • 개입 부문별 • 자금원별 공공 지출 <p>문화를 위한 공공 예산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 자료가 필요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단위별 공공 예산 • 공공 예산의 유형(자본 투자, 운영 비용) • 주민 1인당 공공 예산 • 개입 부문별 • 자금원별(기부, 중앙정부 배분, 지방세)
의견	<p>문화를 위한 공공 지출</p> <p>이 지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산이 어려울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국가 회계 체계가 문화 활동과 기타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 b. 용도별로 자금 채널이 변경될 수 있다. c. 자금이 다른 행정 차원에서 이중 집계될 수 있다. <p>한편, 문화에 대한 어떤 프레임워크든지 문화와 예술에 대한 공공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계산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는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p> <p>문화통계체계(FCS, 34쪽)에는 지출과 비용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문화 관련 통계 분류가 열거되어 있는데, 특히 '정부기능별 지출 분류'(Classification of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에 따라 '8.1 오락 및 스포츠 서비스', '8.2 문화 서비스', '8.3 방송 및 출판 서비스', '8.5 연구 개발', '8.6 오락, 문화, 종교' 등이 포함되어 있다.</p> <p>공공 지출의 자금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문화를 위해 제공한 자금과 지방에서 조달한 자금(세금 또는 기타 자금원)을 구별해야 한다.</p>



의견

문화에 대한 공공 지출에는 해당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이외에 더 많은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면, NGO나 예술가 개인에 대한 지불금, 지역사회 보조금, 공공 문화 행사의 홍보와 광고 등이 있다. 또한 이 지표의 수치에는 유산에 대한 공공 지출이 포함될 수 있다(지표 1에 포함). 만약 이와 관련된 다른 데이터 출처를 활용할 수 있다면, 유산에 쓰인 공공 문화 지출의 비율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를 위한 공공 예산

실제 지출이 예산과 크게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지출에 대한 정보 수집이 권장되지만, 많은 국가들은 지출을 계산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 지표는 FCS 영역에 해당되는 사업이나 기관에 배정된 모든 공공 예산을 포함한다.

11



젠더 측면

젠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이것을 활용하여 공공 지출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평가할 수 있다. 젠더 예산 또는 회계 편성에서 남성과 여성에 따라 예산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대상이 되는 지출이 어느 정도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지는 알 수 있다.²⁰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

60

번영과 생활



설명	<p>문화와 창의성을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체크리스트.</p> <p>이 지표는 문화 부문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규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에 대한 문화의 기여뿐만 아니라 문화 영역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지표는 또한 문화 부문에 관한 규제를 평가하고, 생활 향상을 위해 더 나은 노동 및 거래 조건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p>
목적	<p>이 지표는 문화 전체 및 문화 영역별로 국가/지방 수준에서 거버넌스 체계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유네스코 통계국(UIS) 문화통계체계(FCS) 참조]. 이 지표와 관련해 선정된 기본적인 여러 구성요소들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항목으로 분류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방 수준의 제도 및 규제 체계 • 관리, 기술, 재정 지원 체계 • 지원 확보
데이터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데이터: 1954년, 1970년, 1972년, 2003년, 2005년 협약의 정기보고서 • 국가 및 지역 데이터: 행정 데이터, 특정 국가 조사, 문화 정보 시스템(이용 가능한 경우)
방법	<p>체크리스트에는 수치 및 '예/아니오' 항목이 포함된다</p>
의견	<p>가능한 한, 각 구성요소(행)는 UIS/FCS가 정의한 각 영역(열)별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아래 표의 모든 항목에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요소들은 도시 수준이 아니라 국가 수준에만 적용된다. 또한 각 경우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 형태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p> <p>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아래의 체크리스트에서 문화유산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 또한 문화 활동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도시 환경에서는 자연유산 요소의 지속가능성을 건축유산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p>

문화 거버넌스 체크리스트

A) 국가 수준에서만

모든 응답은 '예/아니오' 형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정책/법적 문서 또는 활동 결과 보고서의 형태로 첨부되어야 한다.

표 6(A). 문화 거버넌스 체크리스트 — 국가 수준에서만

	참고 협약	예/아니오	증거
1. 초국가 또는 국제 수준			
비준된 구속력 있는 국제 문서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문학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WCT)			
세계무역기구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세계지식재산기구 공연 및 음반 조약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브뤼셀 협약(Brussels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12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

62

번영과 생활

표 6(A). 문화 거버넌스 체크리스트 — 국가 수준에서만

	참고 협약	예/아니오	증거
내용과 원칙이 국내 법률 및/또는 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된/통합된 보편적인 권고 및 선언(연성법)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발전에 대한 권리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발전을 위한 문화 정책에 관한 스톡홀름 행동계획 (Stockholm Action Plan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발전을 위한 문화 정책에 관한 정부 간 회의)			
원주민 권리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언어 사용 증진 및 보편적 접근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Use of Multilingualism and Universal Access to Cyberspace)			
비준된 구속력 있는 지역 문서			
문화 및 문화권과 관련된 구속력 있는 지역 조약 또는 문서를 적어도 하나 이상 비준/채택했나요? (예: 유럽의 1954년 「유럽문화협약」, 1962년 「유럽사회헌장」(1996년 개정); 아프리카의 1977년 「아프리카문화헌장」; 남아메리카의 1988년 「산살바도르 의정서」 등)			
2. 국가 수준			
국가 법률 및 규제 관련 틀			
문화에 대한 ‘ 기본법 ’(framework law)의 존재			
예산법에 문화에 대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호를 통합하고 다양성을 반영하는 문화 정책/조치가 수립, 개정 및 이행된 증거	2003년 협약 / 지표 11.1		
점령 지역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반입된 문화재의 보호를 규정하는 국내법이 채택되어 있나요?	1954년 협약 / 제3절		
점령 지역에서 자국 영토로 반입된 문화재를 보호한 적이 있나요?	1954년 협약 / 제3절		
국제박물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윤리강령 등과 같은 윤리강령 을 채택하고 있는 국내 박물관은 어느 정도 있나요?	1970년 협약 / 질문 34		
1970년 협약의 원칙에 부합하는 관행을 따르는 거래상과 경매 회사 는 어느 정도 있나요? (예: 「유네스코 문화재 거래상을 위한 국제윤리강령」 및 「운영지침」)	1970년 협약 / 질문 36		

표 6(B). 문화 거버넌스 체크리스트 — 국가와 도시 수준

	참고 협약	A. 유산	B. 공연	C. 시각 예술	D. 도서 및 출판	E. 시청각	F. 창조적 서비스	G. 관광	H. 스포츠 및 오락
문화 및 창의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2005년 협약 / 목표 1.1 질문 5								
영세 및 중소기업의 공식화(formalization)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2005년 협약 / 목표 1.1 질문 5								
문화 부문에 대한 공적 지원 및 보조금을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문화 관련 과세 상황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조치 (도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문화 부문의 혜택을 위해 마련된 세금 면제 및 인센티브)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균형 있는 국제적 흐름을 지원하는 정책과 조치에 대한 증거(수출 전략과 조치, 우대 조치 이행, 무역을 위한 원조 등)	2005년 협약 / 목표 2.2 질문 1								
2005년 협약과 관련된 무역 및 투자 협정(특별 지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제품 관련 문화 조항, 우대 조치 조항)	2005년 협약 / 목표 2.2 질문 2, 목표 2.3 1970년 협약 / 지표 39								
문화 관련 창조, 후원, 민관 파트너십의 예									
비영리 문화 단체의 법제화에 대한 증거(문화 재단 및 협회)									

표 6(B). 문화 거버넌스 체크리스트 — 국가와 도시 수준

	참고 협약	A. 유산	B. 공연	C. 시각 예술	D. 도서 및 출판	E. 시청각	F. 창조적 서비스	G. 관광	H. 스포츠 및 오락
문화적 책무를 지닌 공공서비스 미디어에 대한 증거	2005년 협약 / 목표 1.2 질문 1								
이해관계자의 접근을 위해 추진된 문화산업 및 기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증거	2005년 협약 / 목표 1.3 질문 1								
모든 규모의 다양한 e-플래이어가 있는 문화산업 시장을 보여주는 증거(예: 공정한 보상 규칙, 시장 집중 통제,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체/유통업체의 독점 방지 등)	2005년 협약 / 목표 1.3 질문 2								



젠더 측면

응답자는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요소를 비롯해 아래와 같은 유산 관리 및 영항의 젠더 측면을 평가해야 한다.

- ▶ 각종 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성비
- ▶ 고위 관리직 및 지도자 지위에 있는 여성의 존재
- ▶ 계획과 정책이 여성의 특정한 관심사항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예: 여성이 특히 관심이 갖는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C 지식과 기술

이 주제 차원에서는 지역 지식과 문화다양성을 포괄하는 '지식과 기술' 체계의 구축에 문화가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특히 교육 훈련 및 관련 과정, 정책, 자료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지식, 기술을 전달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 문화가 기여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 차원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은 물론 직업교육과 관련해 문화다양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문화 지식을 통합하는 교육 과정을 심층적으로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지표들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한 공공 당국과 기관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즉,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공감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적 지식의 통합 및 활용, 지속가능발전 및 문화적 가치의 전승에 대한 이해, 문화 교육(유산 보존에 관한 심화 교육 등)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창의 분야의 기술과 역량 향상 등이다.

문화는 다양한 SDGs 및 세부목표에 걸쳐 지식과 기술에 기여한다.

- 문화 및 창의 부문은 전문 직업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청소년과 성인을 교육하며,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증진시킨다(세부목표 4.4_ 취업을 위한 기술 및 세부목표 8.3_ 일자리, 기업가 정신 및 혁신).
- 교육 과정에 문화다양성을 통합하는 것이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다. 실제로, 지역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은 세계시민성, 관용과 존중, 인권과 비폭력을 지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세부목표 4.7_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술).
- 전통지식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소비와 생산을 향상시키며(세부목표 12.a_ 지속가능한 소비), 기후 적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한다(세부목표 13.3_ 기후 적응에 관한 교육).



13 지속가능발전교육



설명	'SDG 4.7.1'은 유네스코 통계국(UIS)이 제공하는 글로벌 지표로, 현재도 UIS에 의해 개발 중이다. 이 지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문화다양성 교육과 관련해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있다.
목적	이 지표는 특히 문화다양성에 중점을 두면서, 세계시민교육(GCED)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이 (a) 국가 교육 정책, (b) 교육 과정, (c) 교사 교육, (d) 학생 평가에 통합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데이터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데이터: 유네스코 통계국(UIS) • 국가 및 지역 데이터: 행정 데이터, 특정 국가 조사 및 문화 정보 시스템 (이용 가능한 경우)

14 문화 지식



설명	문화 교육 및 역량 구축에 중점을 둔 체크리스트.
목적	이 지표는 문화 지식이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어떻게 확대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데이터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데이터: 1972년, 2003년, 2005년 협약의 정기보고서, 국제교육국(IBE)
방법	체크리스트에는 수치 및 '예/아니오'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표7. 문화 지식 체크리스트

	참고 협약	예/아니오	수치	증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정규 교육과정에 ICH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초등/중등 교육 국제표준교육분류 (ISCED) 1-3] (수준별 연간 수업 시간 수)				
ICH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에 대한 중등후(post-secondary) 훈련과 교육 의 증거(중등후 비고등교육 ISCED 4+)				
교육 과정이 기후 적응 및 ICH와 문화·자연유산 보존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을 고려해 구성됐다는 증거가 있나요?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연구/학문 분야: 052 환경] (초등/중등 ISCED 1-3) (수준별 연간 수업 시간 수)				
중등후 훈련과 교육 이 기후 적응 및 ICH와 문화·자연유산 보존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나요? (ISCED 연구/학문 분야 052 환경) (중등후 비고등교육) (연간 수업 시간 수)				
유산에 관한 교육 과정의 다양성				
국가 교육 과정이 지역사회의 ICH를 존중하고 반영 하는 정도	2003년 협약 / 지표 5.2			
→ ICH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와 개발 및/또는 대상 유산의 적극적인 소개와 전승에 유산 종사자와 보유자가 참여 하는 정도	2003년 협약 / 지표 4.1			
ICH가 그 자체로 '기여 요소'로서 및/또는 '다른 주제를 설명하거나 입증하는 수단'으로서 관련 분야의 내용에 포함 되는 정도	2003년 협약 / 지표 5.1			
ICH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자연 및 문화 공간, 기억의 장소 보호 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의 증거(프로그램 수)	2003년 협약 / 지표 5.4			
중등후 형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ICH의 실천 및 전승을 강화 하는 중등후 교육과정 (ISCED 4-7 연구/학문 분야 021)에 대한 증거	2003년 협약 / 지표 6.1 및 6.2			
교사 교육 프로그램 에 ICH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교사 교육 프로그램 수)	2003년 협약 / 지표 4.4			
역량 구축 프로그램 및 메커니즘				
유형유산의 보호 및 보존에서 유산 관리 직원의 전문성 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실시된 역량 구축 및 훈련 프로그램 에 대한 증거(프로그램 수)	1972년 협약 / 지표 35 및 36			

표7. 문화 지식 체크리스트

	참고 협약	예/아니오	수치	증거
무력 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군대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실시된 역량 구축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프로그램 수)	1954년 협약			
문화재 불법 거래 방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년간 실시된 프로그램 중에서 경찰, 세관, 박물관 직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한 역량 구축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프로그램 수)	1970년 협약			
지역사회에 의한/지역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년간 실시된 역량 구축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프로그램 수 및 수강생 수)	2003년 협약 / 지표 2.3 및 3.1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유산 관련 역량 구축 프로그램 수 (목록 작성, 관리, 보존 등)	1972년 협약 / 지표 30			
교육 및 인식 제고				
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성을 증진하며,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아동 및/또는 청소년을 위한 유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수준별 프로그램 수)	1972년 협약 / 지표 40 2003년 협약 / 지표 17.4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유산 인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산 및 박물관 수	1972년 협약 / 지표 42			
창의성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문해력)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프로그램 수 - 수준별, 형식/비형식, 온라인/오프라인 등)	2005년 협약 / 목표 1.1 질문 4 SDG 4.4.2: 최소한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에 관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소통, 옹호 및/또는 자금 조성에 대한 기술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5년간 공공 기관이 조직하거나 지원한 정기적인 교육 및 멘토링 기회에 대한 증거	2005년 협약 / 목표 1.4 질문 2			
문화 훈련 및 전문 인력을 위해 공공 기관이나 민간기관이 지원하는 장학금에 대한 증거(장학금 수)	2005년 협약 / 목표 2.1 질문 3 SDG 4.B			

* 체크리스트에 대한 응답에는 '예/아니오' 또는 수치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함.



젠더 측면

응답자는 이 체크리스트에서 다루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젠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 ▶ 교육과정 내용은 남녀 모두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등록 학생, 졸업생, 교사 등의 성비를 보고한다.



<p>설명</p>	<p>총 언어 수업 시수(진행 시간의 수) 중 다중언어에 배당되는 수업 시간의 비율</p> <p>a) 초등교육[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1] b) 전기 중등교육(ISCED 2)</p>
<p>목적</p>	<p>이 지표는 교육시스템 내에서 문화 간 대화 증진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이해 수준을 추정하여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어느 정도 다중언어 사용이 장려되고 있는 지에 대한 근사값을 제공한다.</p>
<p>데이터 출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데이터: 유네스코 교육부문(Education Sector of UNESCO), 국제교육국 • 국가 및 지역 데이터: 교육부에서 입수한 공식적인 국가 교육 과정
<p>방법</p>	<p>지표 = $ILR + II + (1 - 1/B) \times ION$</p> <p>ION은 총 언어 수업 시수 중 학교 교육의 특정 수준(ISCED 1 또는 ISCED 2)에서 공용어 또는 국가 언어에 배당되는 연간 수업 시간의 비율이다.</p> <p>ILR은 총 언어 수업 시수 중 학교 교육의 특정 수준에서 현지 언어 또는 지역 언어에 배당되는 연간 수업 시간의 비율이다.</p> <p>II는 총 언어 수업 시수 중 학교 교육의 동일한 수준에서 국제 언어에 배당되는 연간 수업 시간의 비율이다.</p> <p>B는 가르칠 수 있는 공용어 또는 국가 언어의 수이다.</p>
<p>의견</p>	<p>유네스코가 개발한 문화발전지표(CDIS)는 전기 중등교육의 처음 2년 동안만 적용되었다. 최신 버전의 지표는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에 맞게 조정되면서, 국제 비교가 용이하고 SDG 4의 지표와의 적합성도 높아지고 있다.</p> <p>이 지표는 초등교육(ISCED 1)과 전기 중등교육(ISCED 2)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용된다. 초등교육 수준에서 검토할 수 있는 문화적인 측면은 거의 없지만, 주목할 한 가지는 '수업 언어는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교육에 대한 지표는 '초등학교에서는 모국어를 사용해 가르쳐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지침을 반영하고 있다.</p> <p>초등교육 및 전기 중등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지표와 후속 지표는 공식 학교 제도에서 문화의 지위를 보여주는 주요 기준이다. 후속 지표는 중등후교육 및 비형식교육에서 문화의 위상을 평가한다.</p> <p>국가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실제로 수업하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수집단 출신의 교사 공급이 제한적일 경우 현지 언어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업의 '실제' 언어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p>



의견

도시 수준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과 도시 수준 간에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 지표는, 아래에서 보듯 여전히 도시 분석에 유효하다.

-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및 지역/지방의 교육과정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 이 지표를 통해 지방 수준의 교육과정에 도시의 문화/언어 구성(국가 수준과 다를 수 있음)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고려할 수 있다.
- 이 지표를 통해 도시에서 모국어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고려할 수 있다(현재의 지표 외에 교사의 언어 능력도 고려해야 함).

표 8. 다중언어 교육

	수업 시간		자료	연도
	초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총 언어 수업 시수 중 중등학교에서 공용어 또는 국가 언어 에 배당되는 연간 총 수업 시간의 비율				
총 언어 수업 시수 중 중등학교에서 현지 언어 또는 지역 언어 에 배당되는 연간 총 수업 시간의 비율				
총 언어 수업 시수 중 중등학교에서 국제 언어 에 배당되는 연간 총 수업 시간의 비율				

15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

74

지식과 기술



젠더 측면

이 지표는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국가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초등교육과 전기 중등교육(ISCED 2)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언어 수업을 성별에 따라 모니터링하는 기반은 없지만, 등록 학생의 성비는 교과목과 상관없이 지표의 핵심적인 젠더 측면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이 교육 수준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성비 또한 중요한 지표다. 이러한 성별 지표는 유네스코 통계국(UIS)에 의해 모든 국가에서 수집되고 있다.



설명	총 수업 시수 중 전기 중등교육(ISCED 2)의 처음 2년간 문화 교육에 배당되는 수업 시간의 비율이다.
목적	이 지표는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문화 교과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 지표를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적 표현 및 '문화 욕구'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증진시키고 있는지, 또 창의성과 창의 인재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얼마나 권장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추정할 수 있다.
데이터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데이터: 유네스코 교육부문, 국제교육국 • 국가 및 지역 데이터: 교육부에서 입수한 공식적인 국가 교육과정
방법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에서 교과별 시수를 입수하고, 문화통계체계(UNESCO-UIS 2009) 및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 연구/학문 분야를 활용하여 문화 교과에 배당되는 시간의 비율을 측정한다.
의견	<p>교육 시스템상 교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을 채택하는 것은 전기 중등교육(ISCED 2)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UNESCO-UIS 2012, 33쪽), 해당 교육 수준에서 문화 교과에 배정된 시간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후기 중등교육 수준(ISCED 3)에서는 문화 교과의 등록 학생 수가 '공식 연령대'의 전체 학생 수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문화 교과가 필수 교육과정이 아닌 '선택'으로 간주되는, 제한된 수의 교과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표는 전기 중등교육(ISCED 2)의 첫 2년간 적용되며, 후기 중등교육(ISCED 3)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문화 교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유산'에 배당되는 시간을 식별할 수는 없지만, '역사'에 배당되는 시간은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역사'에는 유네스코가 이해하는 '유산'과는 뚜렷한 관련이 없는 정치적 및 국제적 사건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무형유산'의 측면도 -예를 들어 '유산' 또는 심지어는 '문화' 이슈에 배당되는 시간이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사회' 교과에 포함될 수 있다. 문화 교과는 '디자인' 등의 학문 영역을 포함한 '예술 교육'과 공동체 가치 및 관습 등의 사회 교과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이는 지표 14 '문화 지식'에도 해당된다).</p> <p>국가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수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수집단 출신의 교사 공급이 제한적일 경우 현지 언어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문화의 위상을 어떤 식으로든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 교육은 전기 중등교육 수준(ISCED 2)에서 가장 잘 실현되고 있다.</p>

16 문화예술 교육



의견

도시 수준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과 도시 수준 간에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 지표는, 아래에서 보듯 여전히 도시 분석에 유효하다.

-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및 지역/지방의 교육과정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 이 지표를 통해, 지방 수준의 교육과정에 국가 수준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는 도시의 문화 구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고려할 수 있다.
- 교육과정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도시와 관련된 문화 활동/이벤트가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및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젠더 측면

이 지표는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국가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전기 중등교육(ISCED 2)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등록 학생수의 성비는 교과목과 상관없이 지표의 핵심적인 젠더 측면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이 교육 수준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성비 또한 중요한 지표다. 이러한 성별 지표는 유네스코 통계국(UIS)에 의해 모든 국가에서 수집되고 있다.

17 문화 훈련



설명

- 기준 연도에 문화 분야에서 중등후교육 및 고등교육에 등록한 학생 수가 이 교육 수준에 등록된 전체 학생 수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
- 기준 연도에 문화 분야에서 중등후교육 및 고등교육을 졸업하는 학생 수가 이 교육 수준을 졸업하는 전체 학생 수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

목적

이 지표는 중등후교육 수준에서 문화 및 창의 학습에 참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데이터 출처

- 유네스코 데이터: 유네스코 교육부문, 국제교육국
- 국가 및 지역 데이터: 기술·고등교육부, 문화부

방법

- 문화·창의산업 연구/학문 분야의 중등후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모든 학생의 비율
문화·창의산업 연구/학문 분야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모든 학생의 비율
- 문화·창의산업 연구/학문 분야의 중등후교육 프로그램을 졸업하는 모든 학생의 비율
문화·창의산업 연구/학문 분야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졸업하는 모든 학생의 비율



의견

이 지표는 문화통계체계(FCS)에 의해 규정된 영역 내에서 문화·창의산업과 관련된 모든 중등후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폭넓게 평가한다. 이 지표의 평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치가 중요하지만, 반드시 높은 수준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즉, 높은 수치 또는 비율이 낮은 비율보다 반드시 '더 나은' 것은 아니다). 이 지표는 유네스코 통계국(UIS) FCS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과 관련이 있고,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4-8 수준(중등후 비고등교육, 단기 고등교육 프로그램 및 고등교육 프로그램)에서 가르치는 연구/학문 분야를 기반으로 한다.²¹

이 지표는 일련의 '문화 지표' 가운데 교육에 대한 유일한 통계 지표다. 이 지표는 문화부문에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연간 채용 인원수를 평가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임금이 -특히 낮은 수준의 직종에서- 다른 부문보다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문화부문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성적이 높은 학생들조차도 높은 소득의 직종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직업기술교육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은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공식 용어로, 고등교육(예: 대학) 또는 공공 부문(예: 전문대학)과 민간 부문 사업자의 비형식교육 등을 포함한다. TVET 프로그램은 'SDG 4-교육 2030' 목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형식교육과 무형식 학습을 분류하는 것은 어렵지만(이전 지표 참조), 형식교육 프로그램의 TVET 데이터는 UIS에 제출되어 이 지표를 계산하는 데 신뢰성 있게 사용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는 국가역량체계(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NQF)에 따라 특정 기술 및 역량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 비록 이들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수천 개의 단기 NQF 과정을 교육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NQF 과정은 직업별 및 부문별 요구 사항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국가 또는 도시 수준에서는, NQF 데이터를 활용하면 ISCED의 경우보다 문화 관련 교육 및 훈련의 참여 수준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²²



젠더 측면

이 지표의 젠더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통계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 ▶ 다양한 프로그램 참가자의 성비를 비교하면, 젠더 규범이 강화되고 있는지 또는 약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 특정 프로그램들에 등록된 남녀의 전체 비율을 분석하면, 남성이나 여성이 다양한 범위의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 ▶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사 성비를 비교하면, 학생들이 특정 과목에 대해 성별 다양성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후기중등교육 수준 이상(ISCED 3-6)의 젠더 요소를 문화 직업(지표 7 '문화 고용')의 성비와 비교하면, 교육 및 훈련에서의 성 편견이 문화 직업에 얼마나 전파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C 포용과 참여

이 주제 차원은 포용과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응집력을 구축하는 데 문화가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이 차원은 사람들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사람들이 문화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예술적·창조적 자유를 비롯한 문화적 표현의 자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차원에서는 ‘문화 관행, 유적지, 문화 요소 및 문화적 표현’ 등이 사회적 포용에 기여하는 가치와 기술을 어떻게 전파하는지 살펴본다.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지표들은 공공 생활에서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의 역량을 평가할 것이다.

문화는 다양한 SDGs 및 세부목표에 걸쳐 포용과 참여에 기여한다.

- 문화다양성은 상호 이해와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포용적 문화 활동, 과정 및 정책을 통해 공동 가치와 실천을 강조하고 대화와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집단 간의 대립과 적대감을 줄이거나 극복할 수 있다(세부목표 10.2_사회적 포용 및 16.a_폭력 예방). 또한 문화다양성의 수용은 비차별적 정책을 촉진한다(세부목표 16.b_비차별적 정책).
- 문화시설에 대해 포용적인 접근을 하면 환경 개선 및 일상적인 웰빙에 기여한다(세부목표 9.1_양질의 인프라/공평한 접근 및 세부목표 11.7_포용적인 공공 공간).
- 인터넷에서 문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면 적정 가격의 보편적인 문화 접근성이 증가한다(세부목표 9.c_정보기술에 대한 접근).
- 표현의 자유, 특히 예술적 자유는 기본권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공개 토론과 세계시민의식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한다(세부목표 16.10_기본적 자유).
- 문화는 지역사회의 참여 및 공공 기관과 지역사회 간의 새로운 관계를 위한 무대를 제공하고, 종종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참여적 의사 결정을 촉진한다(세부목표 16.7_참여적 의사 결정).





18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

80

포용과 참여

설명

사회적 응집력 지표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지표를 종합한 것이다

- **문화 간 관용**: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웃이 있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
- **대인 신뢰**: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표명하는 사람들의 비율
- **성평등에 대한 인식**: 성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정도(주관적 의견)

목적

이 지표는 문화 간 이해의 정도를 평가하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수용 정도를 측정하며,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기회 및 권리와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 간의 격차를 측정하는 것이다.

데이터 출처

- 국가 및 지역 데이터: 행정 데이터, 특정 국가 조사[로젠버그 질문(Rosenberg question) 포함] 및 문화 정보 시스템(이용 가능한 경우).
-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WVS); 라티노 바로미터: 대인 신뢰 (A60112), 아시안 바로미터: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Q024), 아프리카 바로미터: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 즉 타인을 신뢰한다.

주요 참고사항: 이 설문 조사의 실제 질문과 변수는 변경될 수 있다. 각 국가의 실제 질문 내용을 검토한 후, 이 주제에 대해 '가장 적합한' 질문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 간 신뢰

산정 방법은 사용 가능한 데이터 출처에 따라 다르다.
산정 방법은 데이터 출처의 선호도 순으로 구성된다.
공식:

$$DoC = \sum_{i=1}^k \frac{f_i}{N} / k$$

방법

1. 세계가치관조사(WVS)

f_i 는 항목 i 를 신뢰하는 사람 수
 N 은 참조 모집단
 k 는 고려 대상 항목 수(예: WVS에서는 세 가지를 사용)

질문 V35, V37 및 V39(V43MD_MDI 섹션)에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그룹을 이웃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을 계산한다.

- 다른 인종의 사람들
- 이민자/외국인 노동자들
-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방법

2. 공식적인 국가 또는 지역 조사

가장 최근의 공식적인 국가 또는 지역 조사에 포함된 적절한 질문을 사용하여 다음 그룹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한다.

- a. 다른 인종의 사람들
- b. 이민자/외국인 노동자들
- c.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대인 신뢰

아래의 세 가지 데이터 출처(우선순위에 따라 나열)에 포함되는 해당 국가의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 지표를 구성할 수 있다.

1. 공식적인 국가 또는 지역 조사

다음과 같이 '로젠버그 질문'을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 관계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a. 대부분 믿을 수 있다.
- b. 조심해야 한다.

2. 세계가치관조사(WVS)

대인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1981년부터 로젠버그 질문이 WVS에 포함되었다: "V23. -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 관계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a. 대부분 믿을 수 있다.
- b. 조심해야 한다.

이 지표는 로젠버그 질문에 "대부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다(아래 참조).

성평등에 대한 인식

산정 방법은 사용 가능한 데이터 출처에 따라 다르다.

1. 세계가치관조사

이 지표의 구성을 위해서는 다음 질문을 참조한다

- a. (V44)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 여성보다 남성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 b. (V61) 남성이 여성보다 더 뛰어난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 c. (V62) 대학 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세계가치관조사의 온라인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V44, V61 및 V62에 대한 결과를 조사한다.

- a. V44의 경우, 세 가지 답변이 가능하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둘 다 아님".

데이터 표의 관련 칸에서 '-가장자리'(marginals) 탭을 클릭해 얻을 수 있는- "동의하지 않음"에 해당되는 결과만 주목한다.

- b. V61의 경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답변이 가능하다: 1. 매우 동의함; 2. 동의함; 3. 동의하지 않음;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모름; -2. 응답 없음; -3. 해당 없음; -4. 조사에서 질문을 받지 않음; -5. 누락/알 수 없음.

데이터 표의 관련 칸에서 '-가장자리'(marginals) 탭을 클릭해 얻을 수 있는- "동의하지 않음" 및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 해당되는 결과만을 주목한다.

- c. V62의 경우, 이 질문에 대해 많은 대답이 가능하다: 1. 매우 동의함; 2. 동의함; 3. 동의하지 않음;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모름; -2. 응답 없음; -3. 해당 없음; -4. 조사에서 질문을 받지 않음; -5. 누락/알 수 없음.

데이터 표의 관련 칸에서 '-가장자리'(marginals) 탭을 클릭해 얻을 수 있는- "동의하지 않음" 및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 해당되는 결과만을 주목한다.



의견

문화 간 신뢰

이 지표는 문화발전지표(CDIS)에서 사용되는 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이 지표는 타 문화에 대한 관용의 정도를 측정하고, 다음 지표와 마찬가지로 '신뢰'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세계가치관조사의 세 가지 측정 요소에 대한 통계 분석은 세 가지 모두 동일한 신뢰의 '측면'을 측정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2017; 41-2, Box 2.1).

이 지표는 두 가지 주요 이유로 핵심 지표로 선정되지 않았다. 첫째, 이 지표는 주관적인 지표다. 조사 결과는 단기적인 여론 추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둘째로, 가장 일반적인 출처인 세계가치관조사의 표본 크기는 국가 수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반면, 그러한 의견 조사의 결과는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국제 수준에서 '신뢰' 조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조사 방법의 평가 및 결과 해석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신뢰 측정에 대한 지침』(Guidelines on Measuring Trust, OECD 2017)을 참조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는 문화 발전을 위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대인 신뢰

이 지표는 CDIS에서 사용되는 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대인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일반적인 척도가 되는 지표이자 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다. OECD(2017; 51)는 SDGs 및 사회적 자본을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신뢰'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다.

'신뢰'에 대한 정확한 척도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측정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 또는 국제 수준에서 '신뢰' 조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조사 방법의 평가 및 결과 해석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OECD의 『신뢰 측정에 대한 지침』(2017)을 참조해야 한다.

이 지표는 두 가지 주요 이유로 핵심 지표로 선정되지 않았다. 첫째, 이 지표는 주관적인 지표다. 조사 결과는 단기적인 여론 추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둘째로, 가장 일반적인 출처인 세계가치관조사의 표본 크기는 국가 수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반면, 그러한 의견 조사의 결과는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성평등에 대한 인식

문화적 관행, 가치관, 태도, 전통은 개인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성별 관계의 성격과 특성을 형성하고, 그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은 여성과 남성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이끌며, 국가의 문화·정치·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결정요인이기도 하다.

이 지표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성평등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지지를 받고 있는지 측정하는 '기술적 지표'(descriptive indicator)이다. 최종 점수의 범위는 0%에서 100%까지이다. 그중 100%는 이상적인 결과로, 성평등이 사회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상적인 결과는 국가의 이행 상황을 측정할 때 목표나 기준으로 간주돼야 한다.

18 사회적 응집력을 위한 문화



의견

또한, 그 결과들을 분석하고 맥락화할 때, 성별 및 연령대별(농촌/도시 또는 소득 5분위 그룹 등의 사용 가능한 추가 주요 변수도 포함)로 분리된 최종 점수를 참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료들은 다양한 사회 집단 및 인구 집단에서 성평등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성평등에 대한 가치 부여를 저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관적 지표는 성평등 측면에서 객관적 지표의 대상이 되는 영역(노동력 참여, 정치 참여 및 교육)을 보완하기 때문에, 이러한 각 특정 영역에 대해 얻은 결과를 상호 연관시키면 흥미로운 분석이 될 수 있다.



젠더 측면

이론상으로는, 여기서 인용된 다양한 설문조사에서 사용되는 조사 자료는 남성과 여성의 응답으로 분류돼 있어서 대인 신뢰 및 성평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조사 설계와 관련된 표본 추출 문제로 인해, 성별로 분리했을 때 신뢰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데이터 중 일부는 인쇄물이나 온라인으로 출판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본 데이터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

83

19 예술적 자유



설명

예술적 자유에 대한 지원 수준과 예술가의 지위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목적

이 지표는 예술가 및 창작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의 개발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데이터 출처

- 유네스코 데이터: 2005년 협약 정기보고서
- 국가 및 지역 데이터: 문화부, 행정 데이터, 특정 국가 조사 및 문화 정보 시스템(이용 가능한 경우)

방법

체크리스트에는 수치 및 '예/아니오'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의견

예술가에 관한 지방 법령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부문의 법령들은 국가 법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포용과 참여

예술적 자유를 위한 체크리스트

이 리스트의 항목은 대부분 국가 수준에서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도시의 경우 특정 항목은 지방 수준에서도 관련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표 9. 예술적 자유를 위한 체크리스트

	참고 협약	예/아니오	수치	증거
비준된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유네스코 1952년, 1971년 세계저작권협약 (UNESCO 1952, 1971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986년 문학·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유네스코 1961년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WIPO 1971년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WIPO 1996년 저작권조약				
WTO 1995년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WIPO 1996년 공연 및 음반 조약				
국가 법률 및 규제 틀				
유네스코 1980년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채택 및 이행)				
예술적 자유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침해 및 제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 기관	2005년 협약 / 목표 4.2 질문 2			
전문 예술가 등록을 담당하는 국가 전문 기관 또는 행정 기구에 대한 증거(성별로 등록된 예술 전문가 수)				
예술가, 문화 전문가 및/또는 창의적인 기업가로서 여성에 대한 인식 및 지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증거	2005년 협약 / 목표 4.1 질문 3			
당국의 사전 개입 없이 예술 작품을 보급 및/또는 공연할 수 있는 예술가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책에 대한 증거	2005년 협약 / 목표 4.2 질문 1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예술 작품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책에 대한 증거	2005년 협약 / 목표 4.2 질문 1			
저작권 법률에 대한 증거	2005년 협약 / 지표 22.3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s) 법률에 대한 증거				

표 9. 예술적 자유를 위한 체크리스트

	참고 협약	예/아니오	수치	증거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의 수집 및 배포를 담당하는 행정 부서/시민사회단체의 존재(등록 예술가 수, 연간 기금 조성)				
예술가 및 예술가 단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증거 a. 전문가 지위 및 권리 b. 디지털 환경의 규제				
지난 5년간 위험에 처하거나 망명 중인 예술가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 기관이 개발하거나 지원한 정책(안전한 피난처, 지침 및 훈련 제공 등)에 대한 증거	2005년 협약 / 목표 4.2 질문 3			
지난 5년간 예술가를 위한 정부 기금/국가 보조금 및 상급에 대한 투명한 의사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거나 개정된 정책에 대한 증거(예: 독립 위원회)	2005년 협약 / 목표 4.2 질문 4			
지난 5년간 채택되거나 개정된 예술가의 전문적인 지위를 고려한 사회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예: 건강 보험, 퇴직 연금 제도, 실업 수당 등)	2005년 협약 / 목표 4.2 질문 5			
지난 5년간 채택되거나 개정된 예술가의 지위를 고려한 경제 정책에 대한 증거(예: 단체 협약, 세금 감면, 기타 규제 등)	2005년 협약 / 목표 4.2 질문 6			
새로운 기술로 작업하는 예술가의 디지털 창의성과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증거 a. 실험 공간, 인큐베이터 b. 교육 프로그램(예: 웹 디자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사용 등)	2005년 협약 / 목표 1.3. 질문 4			
예술가의 작품을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증거	2005년 협약 / 지표 5 및 6			
예술가 및 문화 전문가의 이동성 및 실제 참여(문화 행사 및 교류 시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교류 프로그램 참여 예술가 수 및 증거)	2005년 협약 / 목표 2.1.			

* 이 체크리스트에 대한 응답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예/아니오', 수치 또는 증거가 포함될 수 있음.



젠더 측면

응답자는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요소를 비롯해 다음과 같은 예술적 자유와 영향의 젠더 측면을 평가해야 한다.

- ▶ 각종 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성비.
- ▶ 고위 관리직 및 지도자 지위에 있는 여성의 존재.
- ▶ 계획과 정책이 여성의 특정한 관심사항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예: 여성이 특히 관심을 갖는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 ▶ 예술가, 공연가 및 관련 종사자로 구성된 전문 단체의 성비.
- ▶ 위에 나열된 프로그램 참가자의 성비.



설명	<p>인구 분포에 따른 문화 인프라의 이용가능성</p> <p>이 지표는 다양한 사람들이 문화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p>
목적	<p>이 지표는 인구 규모와 관련하여 도시 또는 국가의 문화시설 수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표 4인 '문화시설'을 보완한다.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문화 인프라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할 수도 있다. 표 4는 이러한 일련의 여러 지표들이 문화시설의 다양한 측면(재정, 품질, 고용/직원 배치, 방문객 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대응표이다.</p>
데이터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 수준의 기여: 행정 데이터 및 문화 정보 시스템(이용 가능한 경우). <p>이 지표는 도시 또는 대도시의 하위 행정 단위 또는 국가의 행정구역(예: 도, 군 등)에서 문화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와 관련하여 문화시설의 전반적인 이용가능성과 이용도를 평가하는 것이다.</p>
방법	<p>각 행정구역 또는 도별로 각 유형의 문화시설(예: 박물관) 수와 총 거주 인구수를 파악한다. 각 시설이 국내 전 지역에 걸쳐 어느 정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전국/도시에 걸친 각 시설의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p>
의견	<p>이 지표는 행정구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장소'(venue)의 수를 계산하고 표준 편차를 산출하여 이러한 분포의 일관성을 평가한다. 이 지표는 다양한 장소의 상대적인 규모도,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일부 조사(예: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수도의 문화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수도의 '장소'는 지방보다 규모 면에서 훨씬 더 크고, 질적인 면에서도 더 좋다. 예를 들면, '국립도서관'은 단 한 곳밖에 없지만 수천 권의 최신 서적을 소장하고 있으며, '국립극장'도 단 한 곳밖에 없지만 그 어느 지방 극장보다 훨씬 더 크고, 일류의 국립극단과 무용단이 이용하고 있다. 이 지표는 단순히 수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지만, 위와 같은 해석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p> <p>이 지표 20은 여러 행정 구역 또는 인근 지역에 문화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주제별 차원 1'(환경과 회복력)은 문화 환경의 특성 및 분포와 관련이 더 많기 때문에 문화시설의 '질'은 지표 4를 통해 평가되며, 다음 지표 21(문화 참여)에서는 사람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정도(인구 집단별 비율)를 측정한다.</p> <p>문화 인프라는 역동적인 문화부문과 클러스터의 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하다. 인프라는 문화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활력의 원천이다. 자본에 대한 접근성, 창작 생산 유통 보급 및 교육을 위한 시설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할 때 문화 사업자들은 실행 가능한 문화 벤처를 설립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p>

20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

86

포용과 참여



젠더 측면

이 지표는 문화시설의 분포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젠더 관점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을 평가할 수 있다.

- ▶ 문화시설 관리위원회의 성비
- ▶ 남녀 모두의 요구에 동등하게 부합하는 문화시설의 이용가능성
- ▶ 문화시설 방문객의 성비(표 10 및 지표 21 참조)

21

문화 참여



설명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하위 지표에 따라 문화 참여를 측정한다.

1. **문화 장소 방문**: 선정된 문화 장소 또는 공연에 대한 방문 횟수의 추이.
2. **문화 활동 참여**: 지난 12개월간 1회 이상 외부 문화 활동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
3. **개인적인 문화 활동**: 지난 12개월간 가정에서 문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보고한 가구의 비율[문화적인 목적으로 인터넷 사용(Eurostat 방식) 포함].

목적

이 지표에는 세 가지 주요 목적이 있다.

- 문화 장소나 시설에 대한 전체 방문 횟수를 평가한다. 동향 데이터는 특정 유형의 문화시설에 대한 관심/방문이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 문화 행사나 시설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을 평가한다. 동향 데이터는 외부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 혹은 감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사람들이 가정에서 문화 활동이나 기술(요리, 바느질 등의 일상적인 활동은 제외)에 참여하는 정도를 평가하고, 문화 활동의 역할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한다.

데이터 출처

- 국가 및 지역 데이터: 행정 데이터, 특정 국가 조사 및 문화 정보 시스템(이용 가능한 경우).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한 데이터.
- 유로 바로미터 및 라티노 바로미터와 같은 지역 조사

21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

87

포용과 참여



방법

문화 장소 방문

연간 판매 티켓 수 또는 공식 문화시설 방문 횟수에 대한 동향; 영화, 극장, 콘서트 및 기타 대규모 공공 장소에서 개최되는 문화 행사.

이러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인구 1,000명당 수치로 표시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2회 이상 중복 계산되기 때문에 분모로 적합하지 않다(아래 '의견' 참조).

문화 활동 참여

지난 12개월간 다음 활동 중 하나에 참여했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

- 영화/영화관/영화제
- 극장 또는 댄스 공연
- 라이브 뮤지컬 공연
- 역사/문화 공원 또는 유적지
- 박물관, 미술관 또는 공예 전시회
- 그 밖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 다른 활동에도 확장될 수 있다.

중요 사항: 가능하면 이들 수치는 성별, 연령대, 장애, 민족, 소득, 교육 수준 및 기타 변수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문화 활동

지난 12개월간 다음 활동 중 하나에 참여했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 계산

- 음악, 춤 등의 공연/학습
- 시각예술 및 공예 활동(예: 회화, 조각, 도예 등)

여기서 정확한 범주는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화적인 목적으로 인터넷 사용

지난 12개월간 다음 활동 중 하나에 참여했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 계산

- 온라인 뉴스 읽기
- 게임, 이미지, 영화 또는 음악 재생/다운로드
- 웹 라디오 청취
- 위키(wikis) 조사
- 웹 사이트 또는 블로그 개설.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이 사용한 분모는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을 사용한 인구다. 또 다른 분모로 전체 인구(특정 연령대)를 고려할 수 있다.

방법



의견

문화 장소 방문

문화 장소 또는 공연(축제 등)의 방문 횟수에 대한 행정 데이터는 입장이 마감되거나 티켓이 발권되는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수치의 변화는 문화 활동에 대한 매력이나 수요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아래에서 언급할 '참여' 지표는 방문 횟수가 아니라 인원수를 세는 것이기에 통계 측면에서 선호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지표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문 횟수 관련) 수치들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설에 대해 쓰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상이 되는 시설로는 공공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극장, 공연예술 센터 등이 있다. 이 지표는 국제적인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장소에 대한 방문객의 추이를 추적하는 것에 더 적합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지표를 사용하면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지, 문화 행사는 충분히 신청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 지표는 문화 행사에 대한 관심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 지표로도 볼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표는 인원수가 아닌 채워진 좌석 수 또는 티켓 판매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방문'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 지표에 따르면 한 달에 4번 영화관에 가는 사람은 '4회'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방문' 횟수(예: 티켓 판매)의 증가는 폭넓은 층의 방문이 아니라 '문화 계층'의 반복적인 방문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²³ 게다가 이러한 행정 데이터는 보통 연령별, 성별 또는 기타 특성별로 작성되지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음의 '참여' 지표들은 인원수를 측정하고 있어, 사회의 모든 사회 및 문화 집단이 어느 정도 문화 활동에 포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 지표는 방문객이 어디서 오는지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가구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지표는 특정 지역과 관련된 참여를 구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지표는 현지 주민, 다른 지역 사람들과 함께 관광객을 포함할 수 있지만, 다음에 언급할 지표의 경우에는 관광객과 다른 지역 사람들의 문화 참여를 구분할 수 있다. 간혹 드물기는 하지만, 티켓 판매나 방문 횟수의 집계가 관람에 대한 직접 조사와 연관되는 경우, 이를 통해 예를 들어 외국인의 방문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설은 다음 지표의 방문 시설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기관 차원에서 계산된다. '방문' 및 '참여' 횟수가 서로 얼마나 중복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의견

문화 활동 참여

이 지표는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공연, 전시회 및 기타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핵심' 문화 참여 지표로 간주된다.

앞에서 언급한 '방문' 관련 지표는 행정 데이터(집계된 '입장권' 수, 티켓 판매 수 또는 채워진 좌석 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연령별, 성별 또는 사회·인구통계 집단별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참여' 지표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대체로 상당한 수의 사회·인구통계학적 변수 -특히 성별과 연령- 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종종 장애, 민족, 소득 등과 같은 기타 중요한 변수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수집한다. 이러한 모든 측면은 다양한 집단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에게 중요하다.

문화 활동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문화다양성의 여러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도시, 지역 등에서 다양한 중요성을 지닌 다양한 유형의 문화 활동을 엿볼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다수의 국가들이 '문화 참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²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이 조사를 수행할 자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 참여 조사의 설문들을 기존 조사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이전 지표에서 설명한 대로 행정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 수준

문화 참여에 대한 설문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 조사는 도시 인구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표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도시는 특히 새로운 관광 전략의 도입이나 주요 축제에 대한 평가 등 중요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과정의 일환으로, 문화 참여에 대한 자체 조사의 실시를 고려해야 한다. 일부 도시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표본을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지역 인터뷰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조사의 표본을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도시가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대신에 국가 조사를 강화한다면, 국가 전체의 상황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개인적인 문화 활동

'외출' 외에도,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활동이 많이 있다. 여기에는 문학 작품 독서, 음악 또는 무용 공연/학습, 회화, 조각, 도예 등의 시각예술 및 공예 활동이 포함된다.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다.

21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

90

포용과 참여



의견

이 지표와 이전 지표의 차이점은 이전 지표는 문화 행사/활동에 관객으로 참여한 개인(성별, 연령별, 장애별)의 비율을 평가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이 지표는 사람들이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정도를 측정한다. 이 지표에 유료 활동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가령 가정에서 악기 연주를 배우는 경우라면- 얼마나 연습/연주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연'에 대한 관객은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프로 또는 아마추어)가 자택에서 리허설을 할 수도 있지만, 자택이 다양한 유료 관객 앞에서 공연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그러나 '절대'는 아니다). 국가와 도시는 문화 활동을 수행하거나 배우려는 사람의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관객으로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종종 '수동적 문화 참여'로 분류되지만, 이 지표에 포함된 활동은 '능동적 문화 참여'로 묘사된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의 축제나 전통적 관행에서 참석자들 주위를 돌면서 악기 연주나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각 개인이 집단 앞에서 춤을 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하나의 행사에서 참가자는 관객이 되기도 하고 공연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분은 주요 '장소'의 공식적인 참여와 비공식적인 무형 문화 관행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시 수준

이 지표에 대해서도 앞의 지표와 마찬가지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도의 도시 환경에서는 고소득층이 주요 예술 공연장에 관객으로 참석할 수 있는데 반해,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공연자이자 관객이고, 능동적이면서 수동적이며, 문화 활동의 전달자이자 수용자의 역할을 하는 좀 더 비공식적인 문화 활동을 추구한다.

문화적인 목적으로 인터넷 사용

'온라인 문화 활동'으로 불리는 이 카테고리들은 현재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ICT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에 인터넷의 새로운 사용 형태가 반영된다면, 이러한 카테고리들은 향후 변경될 수도 있다.²⁵ 한국의 조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카테고리의 ICT 문화 활동을 사용하고 있다.²⁶



젠더 측면

이론상으로는, 여기서 언급한 각종 조사에서 사용되는 조사 데이터를 남녀별 응답으로 분류하여 대인 신뢰 및 성평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조사 설계와 관련된 표본 추출 문제로 인해, 성별로 분류했을 때 신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인쇄물이나 온라인으로 출판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본 데이터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22 참여적 과정

설명	지역사회와 관련된 문화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대한 체크리스트.
목적	이 지표는 국가 수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문화 활동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정책, 조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행에 시민사회(특히 문화부문 전문가 및 소수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지표는 문화에 관한 정책과 프로젝트의 개발 및 실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 지역사회 및 지역 주민의 역할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표 12 ('문화 거버넌스')를 보완하고 있다.
데이터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년, 2003년 및 2005년 협약 정기보고서 · 국가 및 지역 데이터: 행정 데이터, 특정 국가 조사 및 문화 정보 시스템(이용 가능한 경우).
방법	체크리스트에는 수치 및 '예/아니오'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22

표 10. 참여적 관리 및 거버넌스에 대한 체크리스트

	참고 협약	예/아니오	수치	증거
유산 관리 및 거버넌스 시스템 참여				
문화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단체,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 및 유산(유형과 무형)과 그 보호의 통합을 규정하는 행정 조치에 대한 증거	2003년 협약 / 지표 17 및 지표 11.4			
유산 요소(유형)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관여 에 대한 증거	1972년 협약 / 지표 31			
무형유산 요소의 목록 작성에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과정 에 대한 증거	2003년 협약 / 지표 1.3 및 지표 8.1			
관리 계획(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공식화된 체계 포함)이 있는 유산의 수	1972년 협약 / 지표 32			
지난 1년간 지역사회,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의 수	2003년 협약 / 지표 3.1			
소외집단(원주민, 이주민, 난민 등)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편성 을 장려함으로써 미디어 다양성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증거	2005년 협약 / 목표 1.2. 질문 2 2003년 협약 / 지표 18			
지역사회가 무형문화유산(ICH)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문화적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실제로 모니터링 및 연구를 실시하는 사회의 수 및 활동 사례)	2003년 협약 / 지표 22			
소수집단 및/또는 원주민 집단의 문화 생활 참여 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

92

포용과 참여

표 10. 참여적 관리 및 거버넌스에 대한 체크리스트

	참고 협약	예/아니오	수치	증거
지난 5년간 시민사회단체(CSO)와 협의하여 수립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정책과 조치	2005년 협약 / 목표 1.4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CSO의 실제 지출(실제 지출액)	2005년 협약 / 목표 1.4			

* 이 체크리스트에 대한 응답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예/아니오', 수치 또는 증거가 포함될 수 있음.

표 11. 문화 전문가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2005년 협약 / 목표 1.4.)²⁷

이 항목들은 국가 및 지역 수준 모두에 해당된다.

참여	문화 전문가	소수집단 및 사회적 약자
다음 항목에 대해 대표자와 정부 관리 간에 대화의 틀을 제공하는 제도적인 메커니즘(정기적인 회의, 위원회)이 있나요? a. 정책 수립 b. 관리 c. 실행 d. 모니터링 및/또는 평가		
위의 제도적인 메커니즘은 활동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지난 24개월 동안 공식 회의가 개최되었다) 아니면, 활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지난 24개월 동안 공식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다)		
메커니즘의 성격은 영구적(예: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임시적(예: 회의)인가요?		
제도적 메커니즘을 통해 도출된 결의안은 구속력이 있나요? 아니면 자문의 성격인가요?		



젠더 측면

응답자는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요소를 비롯해 다음과 같은 참여적 과정과 그 영향의 젠더 측면을 평가해야 한다.

- ▶ 각종 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성비
- ▶ 고위 관리직 및 지도자 지위에 있는 여성의 존재
- ▶ 계획과 정책이 여성의 특정한 관심사항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예: 여성이 특히 관심을 갖는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 ▶ 이 지표는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결론 및 권고사항

유네스코의 문화 협약 및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2030지표**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목표 및 세부목표에 대한 문화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국제 개발 의제에서 문화의 위상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보고서는 **증거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통해, 글로벌 도전과제(기후변화 대응, 절대 빈곤의 감소, 고용 증대, 평화적인 공존 보장 등)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한 문화의 부가가치를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별 지표는 문화 분야 및 기타 공공 정책 분야의 정책 결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선 '참여 주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국가적·지역적으로 달성하는 데 문화가 미치는 영향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려면, 국가와 도시는 기존의 **국가 및 지역의 데이터 출처**를 비롯해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가 집계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질적·양적 데이터** 모두를 평가해야 한다. 전 세계의 눈부신 도시 성장률을 감안할 때, **도시 고유의 데이터**(city-specific data)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시 **맥락**에서 문화의 기여도를 독립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이러한 고유 데이터를 활용하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증진하고, 유네스코의 기존 도시 네트워크와 프로그램 간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

94

결론 및 권고사항

문화2030지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통계 및 분석 역량을 구축**하고, 문화의 역할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학제 간 연결 고리로서 문화의 영향을 평가하려면, 교육에서 환경에 이르기까지 기관과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이 필요하다. 2030 의제에 대한 문화의 기여도를 평가할 때, **성평등**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횡단적인('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성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정책, 법률 및 절차의 성별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기타 개별 특성(예: 연령, 민족, 장애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분화 접근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당국에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지역적·국가적으로 성별, 연령, 장애, 민족, 소득, 교육 또는 기타 관련 변수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2030지표는 국가 및 도시들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열망의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보여주는 '변화에 대한 증거'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문화를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활동의 핵심으로 삼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권고사항

환경과 회복력

1. 이 주제 차원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도시의 재정적인 기여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고, 회복력과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를 강화하며, 도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의 역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문화·자연 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국가의 투자 및 헌신의 증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도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 행동의 맥락에서 환경적인 회복력을 강화하며, 재난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1.1 ① 국가 및 지방 당국은 **유네스코 통계국(UIS)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모든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에 대한 **지출(공공 및 민간)을 세분화**해야 한다(유산 유형별, 정부 수준별, 지출 유형별 및 민간 자금 유형별 등).

1.2 ② 국가 및 도시 수준에서 공적 활동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정 데이터, 유네스코 문화 협약 보고 데이터, 국가 조사 등에 따른 증거**를 활용하여 문화 및 자연 유산, 관행, 지식, 역사적 동산 유물의 관리와 보호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례 없는 도시화에 직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1.3 ③ 국가 및 도시의 유형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호와 관리를 통해, 그리고 역사 지구의 신규 건축물에 '지속가능하고, 자연적이며, **전통적인 건축 기법과 재료**가 어느 정도 쓰였는지에 대한 **측정**을 통해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평가를 개선한다.

1.4 ④ 국가 및 지방 당국은 인구 내 모든 사회/문화 집단의 문화적 표현을 촉진하고, 이들 집단이 문화 전문가 및 문화 관련 사업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의 다양성과 공간적 분포를 평가**해야 한다.

1.5 ⑤ 도시 수준에서 **공공 공간**을 모니터링할 때에는, 문화 생활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과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 공간의 **규모, 수, 공간 분포 및 용도**를 포함시켜야 한다.

번영과 생활

2. 이 주제 차원에서는 국가와 도시의 수입, 생계 및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의 잠재력을 정량화 및 정성화하고 있다. 기존의 거버넌스 구조와 연계해 문화 상품, 서비스, 사업 등을 통한 소득, 수익,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화의 기여도를 평가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더불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추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2.1 **6** 경제 성장(생산 수준 포함)에 대한 문화부문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고용률 및 문화 고용의 추이를 추적하는 활동은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빈곤 완화를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2.2 **8** 소기업 및 영세 문화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여건은 문화 사업체 수의 추이를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추이는 문화 사업체의 유형이나 성격이 변화하는 양상을 전반적으로 보여준다(예: 하위 부문의 균형, 집중 분야, 클러스터화 등).

2.3 **9** 총 가계지출 중 문화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 시장의 규모를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모니터링의 결과는 문화 활동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사회적 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문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10** 전체 수출 중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와 도시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 수요를 파악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규제 환경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2.5 **11** 모든 문화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다양한 자금원으로부터 나오는 문화예술의 공공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을 지방의 자금원(지역 사회에 대한 보조금, NGO에 대한 지불 포함)과 구별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세분화해야 한다. 공공 지출의 수준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창출 및 문화적 표현의 증진에 끼치는 공공 자금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6 **12** 국가, 지역 및 지방 당국은 더 나은 생계를 위한 양질의 근로 조건을 보장하고, 문화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부문의 지원을 위한 기존의 정책과 규정을 계속 파악해야 한다. 공공 지출, 일자리 창출 동향 등과 같은 그 밖의 지표들은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지원하고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촉진할 것이다.

지식과 기술

3. 국가 및 지방 당국은 교육·훈련 제도와 관련된 정책 및 기관이 창의 분야에서 문화 지식과 기술의 통합, 전달 및 촉진,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문화 교육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 주제 차원은 교육과정에서 문화적 관행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증진하며, 다중언어 사용과 문화예술교육을 장려하고, 문화 다원주의에 대한 존중을 촉진한다. 국가들은 이러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국가와 도심 지역을 정기적으로 추적하고 평가해야 한다.

3.1 13 모든 교육 수준의 정책, 교육과정, 수업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문화다양성, 유산 및 문화적 가치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2 14 모든 수준의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유산 및 창의 분야와 관련된 교육의 이용가능성을 모니터링한다.

3.3 15 국가 및 지방의 교육과정을 통해, 문화 간 대화 및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다중언어 사용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지방 당국은 수업 및 교수에서 사용되는 '실제' 언어에 대해 명확하게 문서화된 기록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3.4 16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문화 및 창의 분야가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를 평가하여 창의성의 수준 및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모니터링한다. 중등학교는 문화 교육에 배당되는 시간을 측정할 때, '문화 교과'에 대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의를 사용해야 한다.

3.5 17 문화 및 창의 분야의 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모든 문화 관련 분야에서 중등후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학생의 참여를 대략적으로 추산할 수 있다. 국가역량체계(NQF)는 직업기술교육훈련(TVET)과 비형식교육에서 문화의 위상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포용과 참여

4. 이 주제 차원에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성', '문화적 표현에 참여하고 실천할 권리', 그리고 '예술적 자유와 문화다양성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참여와 포용, 사회적 응집력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의 역량을 살펴본다. 이 차원의 지표들은 지역사회가 공공 생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참여하는지 보여주며, 나아가 사회적 응집력, 문화에 대한 이해, 보다 안전한 사회에 대한 기여를 촉진한다.

4.1 **18** '문화 간 이해' 및 '타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존중'의 수준을 평가하여, 이들이 **문화 활동을 실천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4.2 **19** 창작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 및 규제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적 자유**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예술가와 창작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의 발전 수준을 평가한다.**

4.3 **20** 전국과 모든 도시 인근 지역이 다양한 문화시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문화에 대한 수요가 국가 및 도시 수준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지방 당국은 문화 지식, 서비스 및 상품의 **실행, 창작, 유통, 보급을 위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

4.4 **21** 문화 장소, 시설, 행사를 방문하는 사람들 및 자택에서 문화 활동(문화적인 목적의 인터넷 사용 포함)을 실천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가구의 비율을 평가함으로써 문화 참여를 모니터링한다. 지방 당국은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의 비율과 지속가능한 관광객 수를 늘리려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기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 방문객과 참여자에 대한 데이터(가구 조사, 주요 시설 방문 횟수에 대한 행정 데이터 등) 수집을 개선해야** 한다.

4.5 **22**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정책, 조치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문화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사회 및 문화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가한다.**

참고 문헌

- European Union. 2016. *Culture statistics*. Luxembourg, European Union.
- UN. 2014.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New York, United Nations.
- UN. 2018.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8*. New York, United Nations.
- UNESCO–UIS. 2006. *Guidelines for measuring cultural participation*. Montreal, UNESCO–UIS.
- UNESCO–UIS. 2009.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Montreal, UNESCO–UIS.
- UNESCO–UIS 2012.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2011*
- UNESCO–UIS. 2014. *The globalisation of cultural trade: a shift in consumption. International flows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2004–2013*. Montreal, UNESCO–UIS.
- UNESCO–UIS. 2014. *ISCED Fields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3 (ISCED–F 2013)*. Montreal, UNESCO–UIS.
- UNESCO. 1996. *Our Creative Diversity*. Paris, UNESCO.
- UNESCO. 2010. *Education for All Monitoring Report 2010*. Paris, UNESCO.
- UNESCO. 2011. *Information policies in Asia: development of indicators*. Bangkok, UNESCO.
- UNESCO. 2014a. *Culture for Development Indicators – Methodology Manual*. Paris, UNESCO.
- UNESCO. 2014b. *UNESCO Priority Gender Equality Action Plan: 2014–2021*. Paris, UNESCO.
- UNESCO. 2015. *Unleashing the Potential: transform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aris, UNESCO.
- UNESCO. 2017. *Towards quality assurance of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Bangkok, UNESCO.
- UNESCO. 2018. *Reshaping cultural policies. Advancing creativity for development*. Paris, UNESCO.

용어집

→ **행정구역(administrative division):**

departments/regions/provinces): 국가 수준 바로 아래에 있는 하위 정치 및 행정 구역. 분류 및 비교를 위해 권장되는 기준은 ISO 3166-2²⁸의 '국가 코드 및 하위 구역 코드의 국제 표준'이다. 여기에는 230여 개국의 행정구역 목록이 있다. 유럽연합에는 여러 수준의 행정구역을 구조적으로 분류한 '통계지역단위명명법'(NUTS)이 있다. 국가 수준 바로 아래의 주요 행정구역에 대해 사용되는 명칭은 국가마다 다르다. 콜롬비아에서는 'departments', 부르키나파소 및 베트남에서는 'provinces', 탄자니아 및 베트남에서는 'provinces', 탄자니아 연합공화국에서는 'regions'이 행정구역에 해당된다.

→ **예술교육(arts education):** 드로잉, 회화, 조각, 디자인, 공예 기술, 음악, 연극, 문학, 무용, 서커스, 사진, 디지털 예술, 영화 촬영, 비디오 등의 많은 하위 학문 분야 및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인 예술 표현으로 구성된다.²⁹

→ **이중언어 및 다중언어 교육(bilingual and multilingual education):**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교육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두 개 이상의 언어로 가르치고 지도하면 다중언어 사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지만, 이 지표가 고안된 당시에는 국제, 지역, 지방, 공식 또는 국가 수준에 관계없이 언어 교육에 배당된 수업 시간만이 고려되었다.

→ **주요 문화 영역(central cultural domains)³⁰:** 주요 문화 콘텐츠의 창작, 생산, 보급 및 향유와 직접 관련된 문화 측면에서의 생산적인 산업, 활동 및 관행.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 공연 및 축제
- 시각예술 및 공예
- 도서 및 출판
- 시청각 및 쌍방향 미디어
- 디자인 및 창조적 서비스
- 무형문화유산(분야를 초월한 영역).

→ **수용능력 계획(Carrying Capacity Plan):** 계절적 수요 및 기타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유산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산지역의 수용능력을 관리하는 계획(<http://whc.unesco.org/sustainabletourismtoolkit/guides/guide-8-managing-visitor-behaviour>).

→ **영화관(cinema):** 유네스코 통계국의 정의에 따라 '실내 영화관'으로 규정된다.

→ **창조 허브(creative hub):** 문화·창의산업 부문의 네트워크, 조직, 사업 개발을 위해 인프라 또는 장소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EU / British Council / ADDICT 2016).

→ **창조 또는 문화 클러스터(creative or cultural clusters):** 경제학에서 '클러스터'의 개념은 1890년 앨프리드 마셜(Alfred Marshall)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지만, 1990년대에 포터(Porter)와 크루그먼(Krugman)에 의해 새롭게 조명됐다. 이 개념에 의하면, 유사한 기업들은 비록 서로 경쟁하고 있어도, 시설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같은 구역이나 건물에 위치한 경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 사업에 대해 설명할 때 이 이론을 적용하면 특히 호소력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서로 영감을 받으면서, 재무, 인사 및 기타 행정 서비스 등의 많은 '일상적인' 비즈니스 기능을 공유 시설에 맡길 수 있다. 지방정부는 특히 신생 기업을 돕기 위해 '인큐베이터'의 형태로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인큐베이터는 하나 이상의 창조 부문에서 부문별 강점을 끌어올리는 데 종종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클러스터는 변하기 쉬운 사업 기반과 경영 브랜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문화 상품 및 서비스(cultural goods and services)³¹:** 다른 경제 상품 및 서비스와 구별되는 생산물로서 "예술적, 미적, 상징적, 정신적 가치를 포함한다".

→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a) 기념물: 건축물, 기념적 의의가 있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의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지(동굴 거주지), 그리고 여러 요소의 복합체로서 역사, 예술 또는 학술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 b) 건조물군: 독립된 또는 연속된 건조물군으로서 그 건축 특성, 동질성 또는 경관 내의 위치로 인해 역사, 예술 또는 학술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 c) 유적지: 인간의 작품 또는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 그리고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지역으로서 역사, 미학, 민족학 또는 인류학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 지표 작성 대상으로 고려 중인 문화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및/또는 국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국제 및/또는 국가 문화유산 목록이나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 **문화 참여(cultural participation)**: 문화 참여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뿐만 아니라 소비와 관련된 문화 관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삶의 질, 전통 및 신앙을 반영한다. 여기에는 영화나 콘서트 관람 등과 같은 공식 유료 행사 참가, 지역사회의 문화 활동 참여 및 아마추어의 예술 작업 등과 같은 비공식 문화 활동, 독서 같은 일상 활동 등이 포함된다. 문화 참여는 능동적인 행동과 수동적인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가령 콘서트를 듣는 사람과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의 경우처럼).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문화 참여 지표는 다음과 같은 문화 활동을 다룬다.

- 영화/영화관/영화제
- 극장 또는 댄스쇼
- 라이브 뮤지컬 공연
- 역사/문화공원 또는 유적지
- 박물관, 미술관 또는 공예 전시회
- 국가 또는 지역 축제
- 지역사회 문화/역사 행사의 축하 행사
- 지역사회 의례/행사/의식

→ **문화적 관행(cultural practices)**: 세 가지 범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가정 기반: TV 시청, 라디오 청취, 녹화/녹음된 이미지 시청 및 사운드 듣기, 독서,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 외출: 영화, 연극, 콘서트, 박물관, 기념물, 유적지 등

문화공간 방문을 포함한다.

- 정체성 개발: 아마추어 문화 활동, 문화 단체 회원,³² 대중 문화, 민족 문화, 지역사회 활동 및 청소년 문화³³를 포함한다.

→ **문화 생산 활동(cultural production activities)**: 개인 또는 단체의 책임하에 투입물(노동력, 상품 및 서비스, 자본)을 상품 및 서비스(산출물)로 변화시키는 활동으로, 보수를 받는 문화 영역에 속한다.³⁴ 하지만 문화 영역에 속하는 모든 활동이 생산 활동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 생산에는 시장 및 비시장 활동이 포함된다. 비시장 활동에는 무상 또는 아주 적은 대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및 정부기관의 활동이 포함된다.³⁵ 그러나 방법론상의 이유로 문화 활동의 GDP 기여도에 대한 핵심 지표[문화발전지표(CDIS)]는 민간 및 공식 문화 생산 활동이 GDP에 기여한 정도만을 평가한다.

→ **문화재(cultural property)**: 기원과 소유권에 관계없이 각국이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 따라 고고학, 선사학, 역사,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특별히 지정한 재산으로, 다음 범주에 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 진귀한 수집품과 동물군, 식물군, 광물군, 해부학 표본 및 고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유물
- 역사(과학, 기술, 군사 및 사회의 역사 포함)와 관련되고, 국가 지도자, 사상가, 과학자, 예술가의 생애와 관련되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
- (일반적인 또는 비밀리에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 또는 고고학적 발견의 산물
- 해체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기념물 또는 고고학적 유적의 일부분
- 비문, 화폐, 판각된 인장 등 100년 이상 경과된 골동품
- 민족학적으로 중요한 유물
- 예술적으로 중요한 재산으로, (i) 보조물이나 재료 여하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손으로 제작된 회화, 유화 및 소묘(손으로 장식한 공업용 의장과 공산품은 제외); (ii) 재료 여하를 불문한 조상 및 조각물의 원작; (iii) 목판화, 동판화, 석판화의 원작; (iv) 재료 여하를 불문한 미술적인 조립품 및 몽타주의 원작
- 단일 또는 컬렉션 형태를 불문하고 (역사적, 예술적, 과

- 학적 및 문학적 등으로) 특별히 중요한 진귀한 고판본, 필사본, 고서적, 고문서 및 고출판물
- 단일 또는 컬렉션 형태를 불문한 우표, 수입 인지 또는 유사 인지물
- 녹음, 사진, 영화 기록물을 포함한 고문서
- 백 년 이상 된 가구와 오래된 악기

지표 구성에 포함시키려는 문화재들은 먼저 1970 년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로부터 해당 문화재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조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목적지 관리 조직(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s):** DMO는 특정 도시 또는 지역의 관광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파트너십이다.
(whc.unesco.org/sustainabletourismtoolkit/guides/guide-2-developing-strategy-progressive-change)

➔ **사회적 약자(Disadvantaged Groups):** 이 지표에서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공공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수집단을 가리킨다. 이 집단에는 종종 여성, 아동, 소수민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이 포함되지만, 이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다('소수집단' 참조).

➔ **교육기관(educational institutions):** 학교, 대학, 훈련센터 등 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³⁶

➔ **문화 활동에서의 고용(employment in cultural activities):** 문화 고용은 문화부문에서 운영되는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들을 포함한다. 문화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예를 들어 극장에서 일하는 회계사와 같이 문화 및 문화 이외의 직종으로 구성될 수 있다. 실제로, 문화 활동에 종사하는 동일한 사업체(예: 출판사)에는 문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일러스트레이터, 작가, 편집자 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문화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관리자,

회계사, 사무원, 영업 사원 등)이 있을 수 있다.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와 같이 문화부문 이외의 사업체(때로 '부차적인 업무'라고도 불린다)에서도 문화 직종/노동자가 있을 수 있다. 문화 고용에 대한 광범위한 개념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문화 관련 기업	문화 관련 이외의 기업
문화 관련 직종	A	B
문화 관련 이외의 직종	C	x

통상적으로 문화 고용의 합계는 A+B+C로 확인되어 왔지만, 부문과 직업에 관한 데이터는 2개의 서로 다른 출처(각각 기업 조사 및 가구 조사)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총 수치를 계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문화 고용은 "문화적 또는 상징적, 정신적 의미를 창출·개발·보존·반영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문화 상품과 서비스를 창조·생산·보급하기 위해, 그리고 예술적 표현의 목적을 위해" 실시되는 작업 및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³⁷

➔ **권한 강화(empowerment):** "여성과 남성이 선택의 확대를 통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소유권을 획득하는 과정."³⁸

참고 사항: 표준 통계 측정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15세 이상으로, 소녀와 소년을 15세 미만으로 정의한다. 해당 국가에서 다른 연령대를 사용하는 경우, 각 차원의 데이터 표(Dimension Data Table) 및 기술 보고서(Technical Report)를 참고하기 바람.

→ **설비 및 보조 문화 영역(equipment and supporting cultural domains):** 유네스코

문화통계체계(2009)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주요 문화 영역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예: 인쇄, TV 장치 또는 아이팟(iPods)]의 창작,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하거나 지원하는 산업 및 부대 서비스.

→ **사업체(establishments):** 생산을 측정하기 위한 통계 단위. '사업체'는 한 곳에서만 활동을 하며, 총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을 창출하는 단 하나의 주요 활동에만 집중한다. 기업은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을 구성하는 사업체들은 다양한 주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경제 차원은 주요 문화 영역(출판 및 방송 기업, 극단 및 무용단, 박물관, 도서관 등) 그리고 설비 및 보조 문화 영역(통신회사 등)과 관련된 문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공연예술 전용 전시 장소(exhibition venues dedicated to the performing arts):** 이 장소는 특히 문화적인 목적을 위해 설치되고 갖추어진 물리적인 문화시설(공연장, 건물 또는 물리적 장소 등)을 의미하며, 주로 '공연 및 축제' 범주에 포함되는 연극, 시, 라이브 음악, 무용, 서커스, 인형극, 노래, 버라이어티 쇼 등의 보급, 유통 및 대중 공연에 사용된다.³⁹ 이 시설들은 100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시설의 정의에 따르면, 실내 공연장(극장, 음악당 등), 공연예술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상설 야외 장소(야외 원형 극장 등), 예술센터, 문화센터, 다양한 종류의 문화 활동(공연, 전시, 상영 등)의 보급에 전념하는 기타 다목적 문화 장소(다만 기술된 특성과 조건을 준수해야 함) 등이 포함된다.⁴⁰ 그러나 이 정의에는 영화관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의 정의에 의하면, 동일한 공간에 다양한 공연 예술 장소가 포함될 경우, 지표 구축을 위해 그중 하나의 인프라만을 '공연예술 전용 전시 장소'의 범주에 넣어 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정의는 공급에 기반을 두고, 공연예술의 공연 및 보급을 위해 사용되는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콘서트나 연극 등의 문화 상품 또는 무용단이나 극단 등의 문화단체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공적 자금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 연구, 문서 수집

관련 센터나 기관 및 기업들의 경우, 그들의 주요 활동과 기능이 -지표에 명시된 대로- 전용 장소로서의 특성과 요건을 준수하는 공연예술 행사의 보급이나 전시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젠더 회계(gender-based accounting),** 젠더 예산 편성(gender-based budgeting) 또는 성인지 예산 편성(gender-responsive budgeting): 재정 지출 또는 예산이 성평등을 지원하거나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재정이 남성과 여성이 선호하는 활동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를 파악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젠더 회계는 여러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⁴¹

→ **성평등(gender equality):**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의 동등한 권리, 책임, 기회"로 정의된다. 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권리, 책임, 기회는 그들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 태어났는지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두 집단의 다양성을 인식하면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관심, 요구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⁴²

→ **성형평(gender equity):** "여성과 남성 각각에 대한 대우의 공정성(fairness)"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동등한 대우 또는 서로 다르지만 권리, 혜택, 의무 및 기회 측면에서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대우가 포함될 수 있다. 발전적인 맥락에서 보면, 성형평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반적으로 여성의 역사적, 사회적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⁴³

→ **정부 의존형 사립 교육기관(government-dependent private institution):** 사립 교육기관은 정부 재원의 출연 자기에 대한 의존도를 바탕으로 '정부 의존형'과 '독립형'으로 구분된다. 정부 의존형 사립 교육기관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주된 재원의 50% 이상을 받는 기관이고, 독립형 사립 교육기관은 재원의 50% 미만을 받는 기관이다.⁴⁴

참고사항: 많은 국가에서는 사립 교육기관 및 단체가 거의 모든 직업기술훈련 과정을 제공한다. 하지만 지표의 목적을 위해 제안된 정의에 따라, "정부 의존형 사립 교

육기관”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사립 교육기관 및/또는 단체만 대상으로 고려한다.

➔ **유산 기록문서 센터(Heritage documentation center)**: 문서 정보의 접근성과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유산과 관련하여 기록된 지식, 정보 및 연구 결과를 수집, 처리, 코드화, 저장 및 보급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관들은 모든 형태의 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특정 유형의 유산(자연유산, 문화유산, 유형유산, 무형유산, 동산유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 **유산 관리 계획(heritage management plan)**: 어떤 장소나 유적지의 중요한 유산 측면을 제시하고, 미래의 사용과 감상을 위해 그 가치가 유지되도록 해당 장소나 유적지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관리 계획은 장소에 맞게 마련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a) 자산의 유산 가치를 파악하고, b) 유산 가치가 미래의 사용에 미치는 제약과 기회를 확인하며, c) 유산 사용과 관련해 소유자의 요구 사항 및 필수 사항을 파악하고, d) 수집된 정보를 비교 검토하여 적합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한다. 가능하다면, 등재된 모든 유산지역에 대해 해당 장소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장소에 포괄되어 있는 ‘모든 범위의 가치’를 다루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

➔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공동체, 집단과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 물품, 공예품 및 문화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 분야에서 나타난다.

- 무형문화유산의 전달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공연예술
-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제전
-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 전통 공예 기술⁴⁵

➔ **학교에서 가르치는 국제 언어(international**

language taught in school): 이 용어는 공용어 이외의 국제어 또는 외래어에 배당된 수업 시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학교들은 국가의 문화/식민지 역사에 따라 영어나 프랑스어로 가르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외국어’가 국가의 ‘공용어’다. 또 몇몇 국가에서는 주요 상업적, 사회적 거래 시 대부분 프랑스어나 영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들을 제2 외국어로 가르친다.

➔ **전체 인구 중 인터넷 사용자(internet users out of the total population)**: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인터넷 사용자를 “지난 12개월 동안 컴퓨터나 휴대폰을 포함한 다른 기기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들”로 정의한다.⁴⁶

➔ **교수 언어(language of instruction)**: 교사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언어. 교수 언어는 대다수 국민들의 언어인 ‘공용어’ 또는 특정 지역사회에서 온 소수 계층의 언어일 수도 있다.

➔ **도서관(library)**: 사용자의 정보, 조사, 교육, 문화 또는 오락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정보 자원을 수집하고 시설을 관리하며, 이 자원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조직 또는 조직의 일부이다.⁴⁷

➔ **학교에서 가르치는 현지어 또는 지역어(local or regional language taught in school)**: 이 용어는 공용어 이외의 토착어, 즉 국가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소수집단이 사용하는 언어에 배당된 수업 시간을 가리킨다.

➔ **소수집단(minorities)**: 1992년에 채택된 유엔 「민족적 또는 인종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집단 구성원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National or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의 제1조는 민족적 또는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소수집단을 언급하고 있고, 회원국들은 그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집단이 소수집단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사회적 약자’ 참고할 것). 이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소수집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임시 정의가 채택되었다. “소수집단”이라는 용어는 [...] 자신들과 다른 지배적인 문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의 그늘에서 사는 소외되거나 취약한 집단을 가리킨다. 이 집단들은 종종 주류 문화와는 상당히 다른 가치 체계와 자존감의 원천을 공유한다. ‘소수집단’이라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 범주의 집단을 포함한다.

- 원주민 또는 토착민: 이들의 혈통은 자국에서 원래부터 정주했던 거주자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영토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강한 소유 의식을 가지고 있다.
- 영토적 소수집단: 소수민족이 많은 국가적 환경에서 살아온 오랜 문화적 전통을 가진 집단 [...]
- 비영토적 소수집단 또는 유목민: 특정 영토에 대해 특별한 애착이 없는 집단
- 이민자: 특정 사회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종교적 입장을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경향이 있다.⁴⁸

➔ **조치(measures):** ‘조치’와 관련된 질문에 답할 때, 응답자들은 구체적인 행동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이나 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박물관(museum): 사회에 봉사하고 대중에게 개방된 비영리적이고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교육, 연구 및 향유를 위해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가치 또는 기타 문화적 특성을 지닌 세트 및 컬렉션을 수집·보존·연구·교류·전시한다.⁴⁹

➔ **국가등록 문화유산 목록(national cultural heritage registry, list or inventory):** 한 국가의 영토 안에 존재하고, 공식적인 선정 과정을 통해 유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개별적으로 확인되고 기록된 국가 문화유산의 공식적인 데이터 은행 또는 목록을 말한다. 여기에는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인위적인 부동산, 역사적 건축물, 산업시설, 과거 저명했던 인물의 기념관, 기념물, 묘지 및 무덤, 고고학 유적지, 문화 경관(인위적인 환경 및 인간에 의해 크게 변경된 자연 서식지) 등이 있다.

➔ **국가 또는 지방 무형문화유산 목록(national or loc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ventories):** 지역 사회, 단체 및 관련 NGO가 참여하여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요소를 파악하고 정의하는 과정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목록 제도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한 방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목록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하나 이상의 특정 요소들을 각기 고유한 맥락에서 설명하고 다른 요소들과 구별한다. 각국은 자국 영토에 존재하는 무형유산의 목록을 작성하는 데 다양한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다. 즉, 단 하나의 포괄적인 목록을 만들거나 또는 소규모의 한정된 목록을 만들 수도 있다.

➔ **자연 건축(natural building):** 인공 재료가 아닌 천연 소재를 사용하는 건축 기법을 말한다. 여기에는 목재 및 진흙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건축 기법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모르타르와 시멘트의 양을 줄이기 위해 결합제로 대마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 용어는 지속가능한 건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공용어(official languages):** 공용어는 해당 국가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언어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행정기관이 사용하고, 주로 학교 수업에서 사용하는 주요 언어이다.

➔ **공식 또는 국가 교육과정(official or national curriculum):**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형식 및 비형식 환경에서 체계적인 학습 경험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역량(즉, 가치에 의해 뒷받침되는 지식, 기술 및 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과정이다.⁵⁰ 이 교육과정에는 학년별로 배정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수업 시수의 지침이 포함되기도 한다.

➔ **온라인 문화 활동(online cultural activities):** 온라인 문화 활동의 정의는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⁵¹의 정의를 기반으로 하며 다음 범주를 포함한다.

- 온라인 뉴스, 신문 및 잡지 읽기
- 게임 실행/다운로드
- 인터넷 스트리밍 TV 또는 비디오 시청
- 음악 청취(예: 웹 라디오, 음악 또는 스트리밍)
- 위키(wikis) 조사
- 웹사이트 또는 블로그 만들기

➔ **문화부문 전문가 대표 단체(organized representatives of culture sector professionals):**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법적으로 구성되거나 적어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예를 들어, 국제 네트워크, 연맹, 단체 등에 가입함으로써) 대표적인 조직 구조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협회, 노동조합, 비영리단체(NPO), 네트워크, 비정부기구(NGO), 동업자 조합, 재단, 법인 등이 있다. 이 단체들의 주요 기능은 회원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증진하며, 그 활동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성격(예: 문화 협회)이나 부문(예: 예술 관리자, 문화 교육자, 프로듀서 또는 박물관학자 등의 전문가 협회)별로 흔히 볼 수 있다.

➔ **공립교육기관(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s):** 교육기관은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종적인 권한이 공공기관과 민간 주체 중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공립' 또는 '사립'으로 분류된다. 공공 교육 당국이나 기관이 직접 통제·관리하는 경우, 정부 기관이 직접 통제·관리하는 경우, 또는 대부분의 위원이 공공 당국에 의해 임명되거나 공공 프랜차이즈에 의해 선출되는 운영 기구(협의회, 위원회 등)가 통제·관리하는 경우 공립으로 분류된다.⁵²

➔ **열린 공공 공간(public open space):** 출입하려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된 토지 영역. 일반적으로 이 지역에는 건축물이 없고 초목으로 우거져 있다. 공공 공원의 경우에는 많은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카페, 무대, 공공 편의시설 등의 건물이 제한적일 수 있다. 공공 공원에는 예를 들어 해가 진 뒤에는 동물이나 방문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접근에 대한 일정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 **문화에 대한 규범 제정 프레임워크(standard-setting framework for culture):** 한 국가에서 시행 중인 문화 관련 헌법, 법률 및 규제 조항 전체와 해당 국가가 비준한 국제적, 지역적 또는 양자 간 조약 및 문서를 의미한다.

➔ **지속가능한 건축물 또는 건설(sustainable building or construction):** '자연적'이면서('자연 건축물' 참조)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건축 자재의 사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지에서의 자재 조달은 운송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전통 공구의 사용을 줄이면 배기 가스 배출량 및 전기 사용량이 줄어든다.

'지속가능한 건설'은 건축 자재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확인부터 철거 자재의 재사용에 이르기까지 건축물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모색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1983년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의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 연구, 정책 이니셔티브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다. 목표 모집단은 일반적으로 지리적 조건(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 또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예: 연령 및 성별)에 의해 정의된다.

➔ **직업기술교육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광범위한 직업 분야, 생산, 서비스 및 생계와 관련된 교육, 훈련 및 기술 개발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TVET은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중등교육, 중등 이후 교육, 고등교육에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TVET에는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 계속 학습, 전문성 개발 등이 포함되며, 이것들은 자격 인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⁵³

➔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 고등교육은 중등교육을 기반으로 삼아, 전문적인 교육 분야의 학습 활동을 제공한다. 이 교육은 높은 수준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갖춘 학습을 목표로 한다. 고등교육에는 일반적으로 인문 교육 이외에 고급 직업 교육 또는 전문 교육도 포함된다.⁵⁴

➔ **언어 배당 연간 총 수업시간(total annual instructional hours devoted to languages):** 국제 언어, 지역 언어, 현지 언어, 공용어, 국어 등에 관계없이 언어 수업에 배당되는 연간 총 시간을 나타낸다. 각 학년당 이 값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a) 설정된 학년의 기간, (b) 학년별로 각 언어에 배당된 수업 기간 수, (c) 기간(수업 또는 시간)의 평균 길이(분 단위로 표시).

➔ **전통 문화공간(traditional cultural space):**

전통적인 마을 집회나 사교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정의된 구역. 예를 들면, 벽으로 둘러싸인 반지하의 구역으로 화로와 비품이 설치돼 있는 키바(kiva) [호피족(Hopi)], 사교, 수면, 식사 및 마을 집회를 위한 곳으로 옆면이 개방되고 지붕이 덮여 있는

마네아바(maneaba) [키리바시(Kiribati)], 집회 및 기도에 사용되는, 조상과 관련된 개방된 공간이며 울타리로 둘러싸인 마라에(marae) [뉴질랜드(New Zealand)] 등이 있다.

➔ **전통시장(traditional markets):** 전통시장의 뜻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전통시장은 정부, 민간, 협동조합 또는 지역민들의 독립 경영에 의해 구축되고 관리되며, 소규모 사업체와 소액 자본을 가진 중소 규모의 거래업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상점, 키오스크, 노점상, 천막 또는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업장이 있는 장소로 매매 과정이 흥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 **수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underwater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주기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최소한 100년 동안 수중에 있는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성격을 지닌 인류의 모든 흔적을 의미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유적지, 구조물, 건축물, 인공물 및 인간의 유해와 함께 그들이 갖는 고고학적 및 자연적 배경, b) 선박, 항공기, 기타 수송 수단 또는 그 일부, 적하물 또는 기타 내용물들과 함께 그들이 갖는 고고학적 및 자연적 배경, 그리고 c) 선사적 성격의 유물들”55을 가리킨다.

고려 대상인 수중 문화유산은 국내 및/또는 국제 수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목록, 그리고/또는 난파선 및 자연적 특징에 관한 해양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수중 유산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육상 유적지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대상인 무형문화유산은 지역, 국가 또는 국제 수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형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토착 건축(vernacular architecture):** 현지의 자재를 사용하고 지역의 건축 전통에 따라 지역민들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에 적용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자재 및/또는 양식으로 지어진 모든 건축물을 지칭할 수 있다. 이것은 때때로 ‘건축가 없는 건축’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건축물들이 일반적으로 명확한 사전 계획이나 설계 없이 전통적인 관행에 따라 지역사회에 의해 건축되기 때문이다.

➔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인 피해나 고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젠더에 기반한 모든 폭력 행위를 뜻한다. 이는 공적 혹은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압박, 강압, 또는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등을 포함한다.”5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 수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체 표현’(proxies)으로 성희롱, 가정 폭력, 강간을 선정했다.

➔ **예술교육 배당 연간 수업 시간(yearly instructional hours dedicated to arts education):** 중등학교의 첫 2년 동안 매년 예술교육에 배당되는 총 시간을 의미한다. 학년별 및 국가별로 이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고려된다. (a) 실제 학년 기간, (b) 학년 수준별로 각 예술 과목에 배당된 수업 기간 수, (c) 기간(수업 또는 시간)의 평균 지속 시간(분 단위로 표시).

주(註)

1. Resolutions ref. A/RES/65/166 (20/12/2010), A/RES/66/208 (22/12/2011), A/RES/68/223 (20/12/2013), A/RES/69/230 (19/12/2014), A/RES/70/214 (22/12/2015), A/RES/72/229 (20/12/2017).
2. 검증에 필요한 입증 자료는 관련 간행물, 법률 또는 위원회 회의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자료에는 실제 이행된 활동이 기록되어야 하므로, 제안서나 초안 문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국제 수준에서 논의한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The 2021 Census: Assessment of initial user requirements on content for England and Wales: Gender identity topic report* (May 2016).
4. 영향 평가는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 평가들은 예정된 개발이 유적지의 '유산' 측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예: 실직 또는 일자리 창출) 등 그 지역의 광범위한 문화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고, 또한 환경적인 영향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영향 조사의 성격은 제시된 증거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5. 유엔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2015-2030'(15쪽)는 "해당되는 경우 지리 공간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적절한 형식으로... 위험 지도를 비롯하여 위치에 기반한 재해 위험 정보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배포하기 위해" 그와 같은 증거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6. '센다이 프레임워크', 15쪽, 24 (i).
7. Borgatti, "Network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Science* 323 (2009), pp. 892-895.
8. 영화관은 유네스코 통계국(UIS)의 정의에 따라 '실내 영화관'으로 규정된다.
9. 가구 조사는,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공연(예: '정체성 구축'으로 인해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이나 문화 상품 시장을 위해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정도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행정 데이터는 '공식적인' 사용만을 포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공식적인 문화 활동을 놓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콩의 경우 주말에 '열린 공공 공간'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동남아(SEAsian) 가정 지원 모임은 가구 조사나 행정 데이터에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0. UNSD(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8* (New York, 2018), p. 25.
11. 비공식 부문이 GDP의 60%를 차지한다고 주장해 온 아제르바이잔의 문화발전지표(CDIS)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CDIS 보고서는 여기에 많은 '문화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최종 초안 2018), ACCA, *Emerging From Shadows* (2017, pp. 11 and 13), http://www.accaglobal.com/content/dam/ACCA_Global/Technical/Future/pi-shadow-economy.pdf.
12. https://en.unesco.org/creativity/sites/creativity/files/cdis_methodology_manual.pdf.
13.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R. Towse, *Advanced Introduction to Cultural Economics* (2014), section 6.2.4를 참조.
14.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 LFS)는 종종 부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술가들은 그들의 예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임금이 높은, 문화 관련 이외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업 관련 정보는 문화 고용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통계청은 부업에 관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분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15. http://www.ilo.org/global/statistics-and-databases/WCMS_157467/lang--en/index.htm. 국가 수준의 데이터 신뢰성은 응답자가 자신의 응답이 법률상 또는 세무상의 책임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따라 달라진다.
16.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R. Towse, *An Advanced Introduction to Cultural Economics* (2014), section 6.2.4를 참조.
17. https://unstats.un.org/unsd/class/revisions/coicop_revision.asp.
18. un.comtrade.org database.
19. UIS의 최근 보고서로는 *The Globalization of Cultural Trade: a shift in consumption — international flows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2004-13* (2016)이 있다. 이 자료의 보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L. Deloumeaux, "Persisting imbalances in the flow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Reshaping Cultural Policies: advancing creativity for development UNESCO* (2018), 125-161쪽을 참조.
20. 예를 들어, J. Stotsky, "Gender Budgeting: Fiscal context and current outcomes," IMF Working Paper 46 (2016) 참조.
21. *UIS ISCED Fields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3* (ISCED-F 2013) (2014)에는 021 예술(5개의 소영역), 022 인문학(3개의 소영역), 023 언어(2개의 소영역), 032 언론 및 정보학(2개의 소영역), 061 정보통신기술(3개의 소영역), 0723 섬유 제조, 0731 건축 및 도시 설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22.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의 최근 리뷰에 관해서는, Marope, Chakroun & Holmes, *Unleashing the Potential: Transform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UNESCO, 2015), 그리고 Bateman and Coles, *Towards Quality Assurance of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UNESCO Bangkok, 2017)을 참조.
23. 이 주제에 관한 고전적인 연구 및 그 이후의 연구로는 R. Peterson, "Understanding audience segmentation: From elite and mass to omnivore and univore," *Poetics* 21 (1992), pp. 243-258을 참조할 것. 그리고 최근의 요약은 R. Towse, *Advanced Introduction to Cultural Economics* (Edward Elgar Publishing, 2014) section 1.3.2에 나와 있다.
24.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Measuring Cultural Participation*, FCS Handbook 2 (UIS, 2012). 이 핸드북은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조사를 다루고 있다.

25. Eurostat, *Culture Statistics* (2016), p. 141.
26. Kavita Karan, *Information Policies in Asia: Development of Indicators* (UNESCO Office Bangkok, 2011), p. 85.
27. '용어집' 참조.
28. http://www.iso.org/iso/country_codes.
29. 이 용어의 임시 정의는 다음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Informe sobre la encuesta de implementación del plan de trabajo para la educación artística* [Report on the investigation into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king plan for artistic education] (UNESCO, 2010), p. 14.
30. UIS, *The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2009), p. 23.
31. UIS, *The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2009), p. 22.
32. A. Morrone, *Guidelines for measuring cultural participation* (UNESCO Institute of Statistics, 2006).
33. CDIS가 제안한 종합 지표의 틀에서 아마추어 문화 활동과 문화 단체 회원에 대한 측정을 통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두 범주는 정체성 개발을 위한 문화 활동 참여에 대한 CDIS의 지표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34.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는 상품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해 수행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되며, 보수를 받지 않는 모든 가정 또는 개인의 가사 활동(예: 청소, 집 수리 및 식사 제공 등)은 제외된다.
35. 이 활동들은 공연 예술, 유산 또는 도서관, 박물관 등의 서비스에서 매우 중요한 문화적 역할을 한다.
36. UIS,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2011* (2012), p. 79
37. UIS, *The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2009), p. 40
38.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and me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Background Paper (UN DESA, 2005), p. 6. http://iknowpolitics.org/sites/default/files/women20and20men_decision_making_daw.pdf.
39. UIS, *The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2009), p. 26.
40.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정의는 다음 최종 보고서를 따르고 있다. *Les infrastructures culturelles dans la municipalité: Nomenclature, recensement et état des lieux*, compiled by Serge Bernier and Pascale Marcotte for the Ministry of Culture, Communications and the Status of Women, the Culture and Communications Observatory of the Quebec Institute of Statistics and Les Arts de la Ville (2010).
41. 예를 들어, J. Stotsky, "Gender budgeting: fiscal context and current outcomes," IMF Working Paper 16/149 (2016) 및 L. Chakraborty, "Asia: a survey of gender budgeting efforts," IMF Working Paper 16/150 (2016) 참조.
42. 젠더 담당 사무총장 특별자문관실(Office of the Special Advisor on Gender Issues and the Advancement of Women, OSAGI). <http://www.un.org/womenwatch/osagi/conceptsanddefinitions.htm>.
43.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http://www.ifad.org/gender/glossary.htm>.
44. UIS, *Global Education Digest 2010: Comparing Education Statistics Across the World* (2010), pp. 261-262.
45.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 제 2조 2항.
46. Definitions of 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ITU, March 2010; <http://www.itu.int/ITU-D/ict/handbook.html>
47. ISO 2789를 기반으로 하는 UIS/IFLA 2007 조사.
48. *Our Creative Diversity*, p. 71.49. 여기서 소수집단에 대한 정의는 ICOM, Statutes (2007), <http://icom.museum/the-vision/museum-definition/>에서 내린 정의를 따르고 있다.
49. UNESCO, <http://www.unesco.org/new/en/education/themes/strengthening-education-systems/quality-framework/core-resources/curriculum/> (2018년 1월 8일 접속).
50. Eurostat Cultural Statistics (2016), p. 141. 유사한 항목은 한국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vita Karan, *Information Policies in Asia: Development of Indicators* (UNESCO Office Bangkok, 2011), pp. 84-85 참조.
51. UIS, *Global Education Digest 2010: Comparing Education Statistics Across the World* (2010), pp. 261-262.
52. UNEVOC TVETpedia after UNESCO General Conference 2015 <http://www.unevoc.unesco.org/go.php?q=TVETipedia+Glossary+A-Z&term=Technical+and+vocational+education+and+training> (2018년 1월 8일 접속)
53. UIS,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2011* (2012).
54.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 (2001).
55.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1993), 제 1조(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S/48/104).

문화 | 2030 지표

발행인 한경구
역은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번역 이정현
교열 송영철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
이메일 cul.team@unesco.or.kr
한글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1

본 한글판은 교육부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